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383-01

# 2014

##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b>I . 서론</b>	<b>06</b>
1. 연구문제	06
2.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조사 설계	08
<b>II .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 위탁유형 별 비교</b>	<b>09</b>
1. 문제제기	10
2. 이론적 배경	11
3. 연구방법	13
4. 연구결과	16
5. 결론	45
<b>III . 위탁아동과 양육자 간 응답 일치율</b>	<b>52</b>
1. 문제제기	52
2. 연구방법	54
3. 연구결과	55
4. 결론	69
<b>IV . 부모양육태도에 영향 미치는 아동효과</b>	<b>72</b>
1. 문제제기	72
2. 이론적 배경	73
3. 연구방법	76
4. 연구결과	77
5. 결론	86
<b>참고문헌</b>	<b>90</b>

## 표 목차

표 1	보호아동발생 보호조치 현황(2011~2013)	12
표 2	가정위탁보호 현황	12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7
표 4	친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8
표 5	친부모 소득현황	19
표 6	위탁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0
표 7	위탁부모의 소득현황 및 주거형태	22
표 8	가정위탁 유형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여부의 차이	23
표 9	친부모 양육행동	24
표 10	가정위탁유형별 가정위탁 유지, 친가정복귀, 배치변경의 차이	25
표 11	1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26
표 12	2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27
표 13	3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28
표 14	4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29
표 15	5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30
표 16	2차년도~5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31
표 17	양육태도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33
표 18	학대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33
표 19	양육태도, 학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34
표 20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한 위탁유형과 조사년차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35
표 21	학교적응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37
표 22	위탁부모애착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37
표 23	학교적응, 위탁부모애착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39
표 24	아동의 긍정적 발달성과에 대한 위탁유형과 조사년차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39
표 25	우울불안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41
표 26	공격성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42
표 27	우울불안, 공격성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43
표 28	아동의 부정적 발달성과에 대한 위탁유형과 조사년차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44
표 29	ICC 기준	55
표 30	일반적 사항	55
표 31	부모와 아동의 응답 일치율 및 차이(1차)	56
표 32	위탁유형별 부모와 아동의 응답 일치율 및 차이(1차)	58
표 33	부모와 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 차이	59
표 34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응답 일치율 및 차이(2차)	61
표 35	위탁유형별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치율 및 차이(2차)	63
표 36	위탁부모와 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차이(2차)	64
표 37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응답 일치율 및 차이	66
표 38	위탁유형별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응답 일치율 및 차이	67
표 39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차이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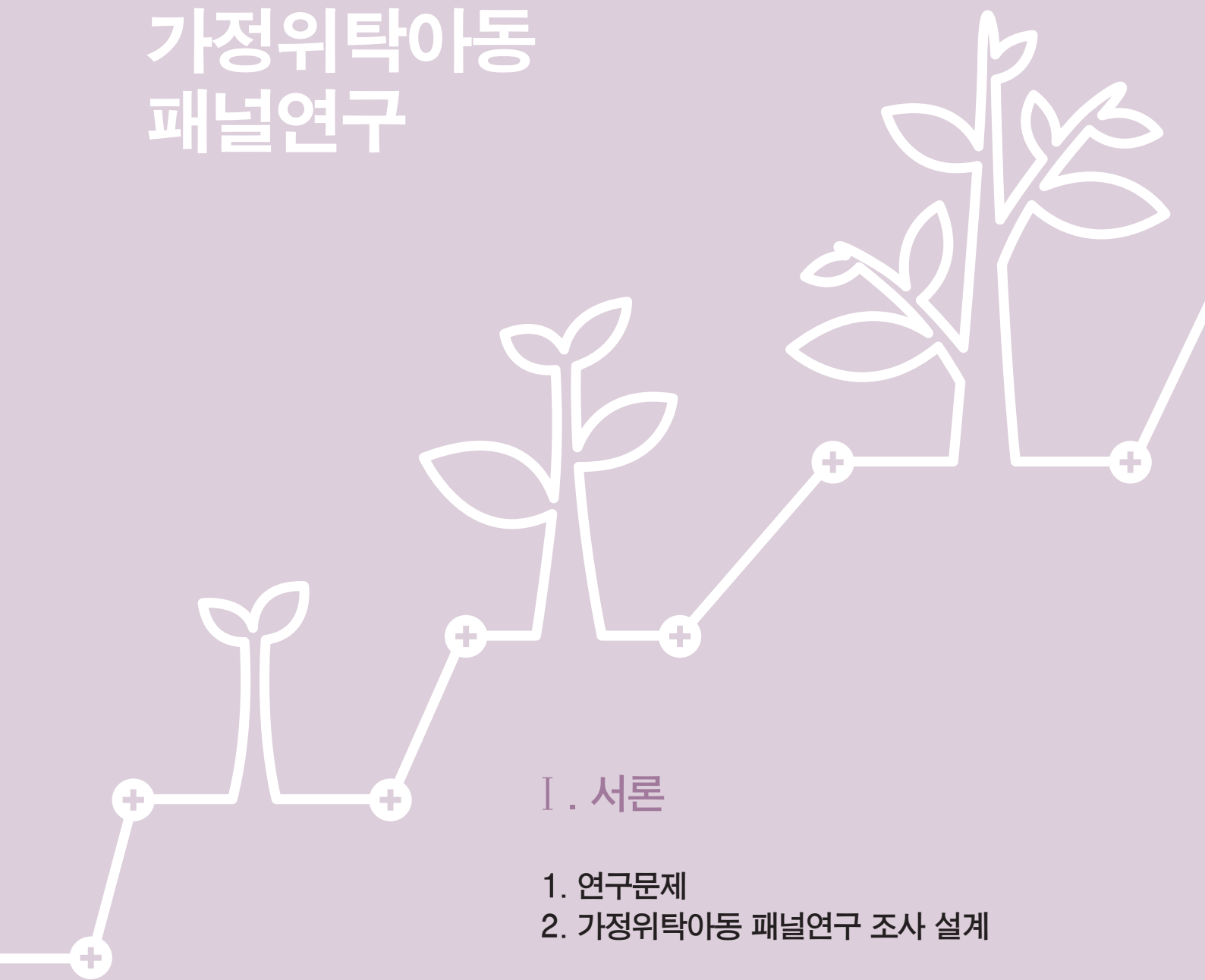
표 40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77
표 41	측정모형 I의 요인적재량	79
표 42	측정모형 II의 요인적재량	81
표 43	측정모형 III의 요인적재량	83

## 그림 목차

그림 1	조사년차에 따른 양육태도 변화	32
그림 2	조사년차에 따른 학대 변화	32
그림 3	양육태도, 학대 발달궤적 분석_무조건 모델	34
그림 4	위탁유형별 양육태도 변화 추이	36
그림 5	위탁유형별 학대 변화 추이	36
그림 6	조사년차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	36
그림 7	조사년차에 따른 양육자애착 변화	36
그림 8	학교적응, 위탁부모애착 발달궤적 분석_무조건 모델	38
그림 9	위탁유형별 학교적응 변화 추이	40
그림 10	위탁유형별 부모애착 변화 추이	40
그림 11	조사년차에 따른 우울불안 변화	41
그림 12	위탁유형별 공격성 변화	41
그림 13	우울불안, 공격성 발달궤적 분석_무조건 모델	42
그림 14	위탁유형별 우울불안 변화 추이	45
그림 15	위탁유형별 공격성 변화 추이	45
그림 16	측정모형 I	78
그림 17	측정모형 II	80
그림 18	측정모형 III	82
그림 19	아동의 비행, 공격성이 친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이르는 발달경로	84
그림 20	아동의 우울, 공격성이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이르는 발달경로	85
그림 21	아동의 비행, 공격성이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이르는 발달경로	86

# 2014

##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 I. 서론

1. 연구문제
2.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조사 설계

## I. 서론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의 학대, 질병, 수감 등의 사유로 아동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일정기간 동안 대안의 건전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원조하여 아동과 친가정이 단기간 내에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과거 가족이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대신 양육하는 대리적 서비스로 아동양육시설이 대표적이었으나, 근래에는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가정과 분리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과 친가정의 결합을 위한 가정외보호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가정위탁보호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차 권고를 계기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17개소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쯤 정책과 실천의 측면에서 10년이 넘는 가정위탁제도를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기다. 장기적으로 가정위탁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한편, 가정위탁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가정위탁제도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친가정 복귀’라는 정책목표가 현실에서 거의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는 친부모가 존재하고,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 자녀들을 대리가정서비스에 위탁하거나 양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이 자신의 친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도구가 필요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때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2003년에 제도적인 틀을 갖춘 가정위탁제도는 현재 정체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의 세 가지 위탁유형 모두 그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그 안에서 일하는 실무인력, 예산 규모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그와는 달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최근 연구경향은 여전히 횡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단편적인 관련성만으로는 아동발달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발달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종단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횡단적으로만 볼 때에는 높고 낮음의 상태만 확인할 수 있지만 종단적인 발달궤적은 높고 낮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높았다가 낮아지거나 낮았다가 높아진 변화양상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어 훨씬 더 내용을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다(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현재 가정위탁아동의 목적이 ‘일시적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특성상 친부모의 사례관리 어려움과 기존 친족보호의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 단순 전환에 따른 가정위탁제도의 낮은 인식, 단순히 혈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적인 위탁양육으로 인해 위탁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위탁 가정 내에서의 오랜 생활이 아동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패널연구를 통해 아동의 발달유형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 또는 진행되고 있는지 위탁가정 내 생활이나 양육환경이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변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위탁아동의 적응이나 발달성장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적응수준이 높아지는지 혹은 낮아지는지에 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으로 찾아내어 적응이나 발달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위탁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위탁아동 중심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아동의 발달과정을 추적 조사해 온 패널 2기 1차년도-5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반위탁아동과 대리, 친인척위탁아동의 배치 전 가정환경, 배치 시 발달상태, 배치사유, 배치 후 양육환경, 배치안정성 및 영구배치(permanency) 성과, 배치 후 아동의 발달성과 결과 및 변화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단적으로 일반위탁과 친족위탁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특정 시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나아가 시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변화 양상 및 이러한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조기 개입에 보다 풍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응답의 일치도를 통해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려고 한다. 많은 양적 설문지를 통한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 외 보호 형태의 양육에 있어 아동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동에 의한 자기보고식 응답이 더 선호되지만, 양육자나 사회복지사의 대리보고식 응답, 또는 행정상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Leathers, 2003; Palmer, 1996; Wulczyn, Kogan, & Harden, 2003). 따라서 아동의 자기보고식 응답과 위탁부모의 대리보고식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대리응답이 얼마나 자기보고식 응답을 대신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아동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가정위탁의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가정위탁과 관련된 아동-양육자 간 보고의 일치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대리보고식 응답이 얼마나 자기보고식 응답을 추측하고, 대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욕구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아동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기보고와 양육자의 대리보고 간 일치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가정위탁아동 패널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위탁아동의 응답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응답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양육자와 아동 응답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의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의 친부모와 아동의 응답,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응답,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응답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응답 일치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양육자의 보고가 얼마나 아동의 보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이에 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효과가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오랜 기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상호영향관계 안에서 발달한다(Lollis & Kuczynski, 1997). 이에 따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부모-자녀 간 영향의 인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일방향적인 부모효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결과가 아니라, 반대로 부모양육태도 차이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가 밝혀지면서 아동이 부모 또는 가족에 미치는 영향 즉, 아동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Kerr & Stattin, 2003; Macobby, 2003; McHale & Crouter,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즉 아동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부적절한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보는 부모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다(백혜정·황혜정, 2006; 이은주, 2010; 이주리, 2008). 부모효과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위탁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가 위탁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위탁가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친가족과 분리되면서 겪게 되는 위탁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위탁부모의 양육 어려움이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문제가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위탁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상호 영향관계를 밝혀 위탁아동이 겪는 심리사회적문제에 따른 위탁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동의 심리사회적문제의 원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지적하는 일반적 연구경향에서 진화하여 아동이 일방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와 아동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위탁가정에서 겪는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종단 연구모형은 기존연구와 달리 신규위탁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국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였다. 1기 패널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종다점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전국 위탁아동 중 2009년에 신규 위탁된 7세부터 15세(중학교 2학년)까지 아동 중 표본으로 선출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 조사하였다. 위탁아동 2기 패널연구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위탁아동 1기와 동일한 연구설계로 진행되고 있다. 1기 패널연구와 마찬가지로 1차 회기에서 3차 회기까지는 6개월마다 실시하였으며, 1차 회기에서는 위탁부모·친부모·위탁아동, 2차 회기에서는 위탁부모·위탁아동, 3차 회기에서는 위탁아동만을 조사하였다. 4차 회기부터 1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위탁아동만을 조사하여 위탁아동의 적응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2009년 1월부터 조사 설계 및 도구 구성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2월에는 '전국 가정위탁 지원센터장 간담회'에서 패널연구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신규위탁아동 선정이라는 특성상 새롭게 위탁아동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실시하였다. 12월에는 2차 회기 설계 및 조사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2기 조사대상은 총 151명의 아동과 그의 친부모, 위탁부모이며, 모든 아동의 조사시점은 상이하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연구진행을 하도록 하였다. 가정위탁의 특성상 위탁아동이 전출하거나 친가정 복귀 등 보호유형이 변경될 때마다 추적 조사하였으며, 전출된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토록 하였다.



# 2014

##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 Ⅱ.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 위탁유형 별 비교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 Ⅱ.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 위탁유형 별 비교

### 1. 문제제기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다.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작된 이후 위탁아동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적 변화도 있었다. 다양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조부모와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친족양육 형태가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해왔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가정위탁은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양육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특징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아동복지실천의 현실에 적합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정위탁이 과거의 소년소녀가정의 단순한 명칭변경에 불과한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위탁양육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도 가정위탁에서 친족위탁(kinship foster care)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이후 아동학대사례의 증가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Scannapieco, & Hegar, 1999). 2012년에는 29만 3,000여명의 가정위탁아동 중 약 10만 여명이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친족위탁가정에서 양육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Children's bureau, 2013). 이러한 비중의 변화는 일반위탁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친족위탁의 장단점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평가를 거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친족위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친족은 아동과 이미 형성된 공고한 혈연적, 문화적, 사회적 애착관계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아동에게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본, 즉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Kang, 2007). 또한 친족위탁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위해 그동안 많은 영미의 선행연구들이 위탁아동과 친족위탁아동의 발달성과 및 배치 안정성, 그리고 영구배치 성과 등을 비교해왔다. 이러한 실증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성과에 있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하여 아직까지 일반위탁과 친인척위탁의 상대적 우수성을 단순히 비교하여 결론내리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볼 때,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친족위탁부모가 일반위탁부모에 비해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낫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오히려 덜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친족위탁은 일반위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Kang, Chung, Chun, Noh, & Woo, 2013).

한편, 친족위탁부모의 장점을 주장한 연구들은 친족위탁부모가 일반위탁부모에 비해 아동과의 애착을 강하게 보였다는 점과 친족위탁가정의 아동들이 배치안정성이 더 높았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혈연관계에 기반한 애정과 아동에 대한 책임감은 아동에게 무시하기 어려운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친족위탁의 큰 비중은 가정위탁보호제도에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또한 일반위탁가정이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을 더 이상 아동 '연고자'에 의한 일시적 양육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을 아동복지의 제도권으로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적, 서비스적 노력이 필요하며,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을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친족위탁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여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측에서는 친가정복귀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 친부모의 아동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양육환경이 일반위탁가정에 비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및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아동이 성장할수록 아동양육, 아동의 행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어려움도 있다.

최근의 실증연구(양심영, 2009; 윤혜미·최은희, 2013; 정익중·권지성, 2012)는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임을 드러내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며, 특히 대리양육위탁부모가 정보의

부족이나 체력적 부담감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리양육위탁의 부모와 그 아동 모두 서로 간에 유대 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의 유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이것이 양육 장점이 될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아동이 성장할수록 대리양육위탁부모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가정위탁의 유형인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의 보호아동 연령이 주로 청소년이며 위탁기간은 장기화되는 데 비해, 사례관리는 거의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우려가 커진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은 일반위탁아동과 대리양육·친인척 위탁아동에 대한 비교를 해왔으나 그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 주로 횡단적 분석에 머물러왔다. 더군다나 이 연구결과들은 가정위탁에 아동이 배치된 시기부터 아동들을 관찰 추적한 연구들이 아니므로 그 비교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위탁이 오래된 서구에서는 조부모와 친척이 위탁부모가 되는 친족위탁의 경우 정서행동문제가 덜 심각하거나 발달성도가 우수한 아동들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Farmer, 2009). 즉, 양육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아동들은 친족이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지만, 여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친족이 양육부담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여 일반위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 배치부터 아동의 발달수준이나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아동들이 친족위탁에 배치되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위탁아동 중심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아동의 발달과정을 추적조사해온 패널 2기 1차년도~5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반위탁아동과 대리양육·친인척 위탁아동의 배치 전 가정환경, 배치 시 발달상태, 배치사유, 배치 후 양육환경, 배치안정성 및 영구배치(permanency) 성과, 배치 후 아동의 발달성과 결과 및 변화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단적으로 일반위탁과 친족위탁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이 가정위탁에 배치되기 전 친가정 환경(생활사건 경험 정도 및 경험사건 종류, 친부모학대, 양육태도 등)에 있어 가정위탁 유형 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이 가정위탁에 배치된 이후 위탁가정 혹은 배치 변경 및 영구배치(친가정 복귀) 성과에 있어 가정위탁 유형 별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이 가정위탁에 배치된 이후 위탁가정의 양육환경 및 아동의 장기적 발달성과(정신건강, 학교적응 등)에 있어 가정위탁 유형 별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아동이 가정위탁에 배치된 이후 위탁가정의 양육환경 및 아동의 장기적 발달성과의 변화추이(변화율)에 있어 가정위탁 유형 별로 차이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견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아동의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공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즉, 부모에

의한 아동양육 및 보호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대상아동의 공적인 양육 유형은 대표적으로 입양, 시설양육, 가정위탁이 있다. 입양의 경우 아동에게 영속적 가정을 마련해주는 이상적인 보호조치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양육의 경우 많은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방식이 가정과 비슷한 양육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보호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국가에서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2000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3년에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소하였으며 2005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의 양적인 증가가 시작되었는데, 최근 3년간의 보호아동발생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양과 양육시설 보호의 경우 전체 보호조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가정위탁의 경우는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보호아동발생 보호조치 현황(2011~2013)

(단위: 명, %)

구분	계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정	입양	시설입소			
					아동시설		장애아동 시설	공동생활 가정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2013	6,020 (100.0)	2,265 (37.6)	20 (0.3)	478 (7.9)	1,731 (28.8)	801 (13.3)	39 (0.6)	686 (11.4)
2012	6,926 (100.0)	2,289 (33.0)	117 (1.7)	772 (11.1)	2,272 (32.8)	676 (9.8)	25 (0.4)	775 (11.2)
2011	7,483 (100.0)	2,350 (31.4)	128 (1.7)	1,253 (16.7)	2,246 (30.0)	862 (11.5)	32 (0.4)	612 (8.2)

※출처: 보건복지부, 2014

〈표 2〉 가정위탁보호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13	11,173 (100.0)	14,584 (100.0)	7,352 (65.8)	9,829 (67.4)	3,068 (27.5)	3,803 (26.1)	753 (6.7)	952 (6.5)
2012	11,030 (100.0)	14,502 (100.0)	7,230 (65.5)	9,732 (67.1)	3,037 (27.5)	3,831 (26.4)	763 (7.0)	939 (6.5)
2011	11,630 (100.0)	15,486 (100.0)	7,463 (64.2)	10,205 (65.9)	3,351 (28.8)	4,260 (27.5)	816 (7.0)	1,021 (6.6)
2010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09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08	11,914	16,454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2007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2006	10,253	14,465	6,152	9,062	3,097	4,160	1,004	1,243
2005	8,816	12,562	5,078	7,552	2,966	4,007	772	1,003
2004	7,169	10,198	3,450	5,196	3,057	4,133	662	869
2003	5,313	7,565	2,315	3,458	2,563	3,541	435	566

※출처: 보건복지부, 2014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위탁과 관련한 연구는 2000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처음 시범운영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방향을 크게 나누어보면 먼저, 처음에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실태 및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화순, 2004; 권은정, 2001; 김희연·박은미·이주현, 2006; 모선영, 2003; 백순미, 2002; 이기정, 1998; 이은정, 2002; 최성욱, 2003; 허남순, 2000; 허남순·이혜원, 2006).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위탁가정의 양육환경, 부모역할, 배치에 대한 연구(김경민, 2008; 김미리, 2007; 김민정, 2007; 김민정, 2009a; 김윤미, 2008; 김정우, 2006; 김지영, 2001; 김지영 외, 2002; 김진숙, 2006; 이승이, 1999; 이영애, 2005; 이현숙, 2005)가 이어져오면서 위탁양육의 해지 또는 유지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강현아, 2006; 김민정, 2010; 김진숙·이근무, 2005)도 이루어졌다. 또한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학교적응 등에 관한 연구들(곽연숙, 2007; 김민정, 2009b; 김은정, 2008; 김진숙·이혁구, 2007; 김형숙, 2007; 노총래·김미영·박은미·강현아·신혜령, 2008; 양심영, 2003; 이현숙, 2005; 장운영·박태영, 2006; 최영, 2007a; 최영, 2007b; 허남순, 2004)도 진행되어왔다.

이렇듯 가정위탁에 대한 정책시행과 관심 가운데 가정위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아직까지 가정위탁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일찍이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90년대 이후에 친족위탁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일반가정위탁과 친족위탁가정의 비교연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위탁가정 유형에 따른 비교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비록 소수지만 종단분석을 통해 양육유형 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결과(Kang et al., 2013)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친인척 위탁아동은 일반위탁아동의 발달성과에서 주요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스스로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평가, 사회적지지 등에 있어서 일반위탁과 친인척위탁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횡단분석을 실시한 다른 연구(노총래·박근혜·서지원, 2009)에서도 위탁아동의 서비스만족도는 일반-친인척-대리양육위탁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친족위탁가정은 경제적인 면이나 위탁부모의 교육수준, 연령, 공적 지원 등의 모든 면에서 일반위탁가정에 비해 열악한데도 위탁아동의 행동은 더 적응적이라고 평가한 연구결과(허남순, 2004)나 친족위탁 아동이 일반위탁아동에 비해 적응도가 더 높고 비행, 공격, 불안 등의 지표가 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허남순, 2004).

지금까지의 연구 중 위탁유형에 따른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본 연구들(노총래·김미영·박은미·강현아·신혜령, 2008; 양심영, 2003; 최영, 2007b; 최은희·윤혜미, 2014; 허남순, 2004)이 있어 큰 의미가 있으나, 횡단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혈연관계를 통해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위탁이 이루어져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 위탁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가정위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탁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정위탁 유형별 친가정 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배치유형이 변경되거나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성과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종단적 분석을 통해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장기적인 발달성과의 차이와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주요변수

##### (1) 친부모와의 부정적 생활사건

친부모와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Coddington(1972)의 Child Life Event Scale(CLES)을 바탕으로 친가족과 관련된 생활사건 14가지 문항(정선욱, 2002) 중 부모와 관련된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사업실패, 교도소 수감, 알코올 중독, 장기입원, 가정폭력 등이며 경험유무(있다: 1점, 없다: 0점)로 응답하여 확인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에게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2)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하여 오성심·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4개 영역에 각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22개의 긍정적 문항과 18개의 부정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차원, 자율차원, 성취차원, 합리차원의 4차원으로,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에서는 친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으며, 2차년도부터는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 (3) 아동의 학대 피해 경험

아동의 학대 피해 경험 정도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측정되었다. 신체학대는 '주위의 물건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등의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련된 총 5개의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정서학대는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은 적이 있다'를 포함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방임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학대경험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0)'부터 '일주일에 1~2번 정도(4)'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자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 (4) 애착

보호자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은 '보호자(친부모 또는 위탁부모)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보호자(친부모 또는 위탁부모)와 내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보호자(친부모 또는 위탁부모)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즐겁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하여 총 6개의 문항이다. 응답범주는 '해당없음(0)'부터 '항상그렇다(4)'까지 Likert 척도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자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5) 학교적응

위탁아동의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이 즐겁다',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등의 9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6) 공격성, 우울·불안

공격성과 우울·불안은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오경자 등(1998)이 수정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Youth Self Report)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자기행동평가척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아동 자신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한 것이다. K-YSR은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이다(정선옥, 2002). 공격성은 '말다툼을 자주한다', '내 물건을 부순다', '남을 위협한다' 등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불안은 '잘 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1)', '그런 편이다(2)', '자주 그렇다(3)'까지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우울·불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8)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친구들에 대한 문항 중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의 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친구들과의 애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9)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내 주위에는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큰돈이라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내 주위에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내 주위에는 내가 기분이 언짢았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등의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 '거의 없다(2)', '있다(3)', '매우 많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chi^2$  검정을 실시하여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친부모의 생활사건 경험, 배치변경과 친가정복귀의 빈도와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정위탁 유형별 아동의 발달성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분산의 원인이 집단간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이다(성태제, 2007). 또한 분산분석에서 각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고 할 경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간의 차이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위탁유형별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의 변화와 조사시점에 따른 변수들의 변화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프로그램은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반복측정분산분석은 두 집단 이상과 여러 시점별로 실험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표본간의 차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2회 이상 반복측정해서 얻은 자료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충분한 수의 표본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고 각 개체 스스로가 대조역할을 함으로서 비교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영준, 2000).

또한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의 변화와 변수들의 변화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개인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이 방법의 장점은 집단의 평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개인의 변화(혹은 개인간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측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은 평균과 변량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포괄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변화와 개인 간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이다(김주환 외, 2009; 배병렬, 2009).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통한 인과관계의 검증과 함께 초기의 상태도 가정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어 변화·성장 분석을 위한 통계적 모형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용 통계프로그램인 AMOS 21.0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려면 결측치가 없어야 하나, 종단연구의 단점인 중도탈락자 및 항목무응답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FIML)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chi^2$  검정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chi^2$  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편으로  $\chi^2$  검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방법이 필요하다(김주환 외, 2009; 배병렬, 2009). 본 연구에서는  $\chi^2$  값과 함께 NFI,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였다. 홍세희(2000)와 김주환 외(2009)에서는 NFI, TLI, CFI의 값은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으며, RMSEA는 그 값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고려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위탁아동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처음 조사가 시작되어 5차까지 진행되면서 전체 응답자 수는 1차년도 150명, 2차년도 133명, 3차년도 130명, 4차년도 117명, 5차년도 100명으로 감소되어 5차년도의 표본 유지율은 66.7%로 나타났다. 탈락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1차년도 이후 아동들이 탈락된 이유는 종결 후 연락두절, 설문거부, 설문미실시 등이다. 이는 위탁종결 이후 친가정 복귀 상황에도 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규정되었고, 실제 가정위탁 내부지침에서 위탁종결 이후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내부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조사 탈락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0). 1차년도 연구대상자 중 남자아동 88명(58.7%), 여자아동 62명(41.3%)으로 남자아동이 17.4% 더 많았고, 5차년도 조사에서도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18%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응답율이 감소한 것에 반해 성별의 비율은 비슷한 양상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탁아동의 평균연령은 1차년도 11.8세, 2차년도 11.6세, 3차년도 12.7세, 4차년도 13.5세, 5차년도 14.2세로 나타났다. 1차년도와 2차년도는 같은 해에 조사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대상자의 탈락으로 인해 평균연령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5차년도까지 아동의 응답율은 낮아졌으나 평균연령은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에서 탈락된 아동의 연령 분포가 처음 조사시점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위탁아동 중 초등학생 90명(60.0%), 중학생 50명(33.3%), 기타 10명(6.7%)으로 1차년도에 구성되었으나, 조사가 5차까지 진행될 동안 초등학생의 경우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5차년도에 24명(24.0%)으로 표본유지율이 26.7%였던 반면에 기타로 미취학아동, 고등학생, 대학생, 자퇴생의 경우는 30명(30.0%)로 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의 경우 사례탈락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동이 소속되는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탁유형은 1차년도에 일반위탁가정 30명(20.0%), 친인척 위탁가정 31명(20.7%), 대리양육 위탁가정 89명(59.3%)이었으며, 5차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례 수는 감소되었으나 위탁유형 비율은 약 1:1: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위탁유형에 있어서는 대리양육비율이 다른 양육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 특성이 해석되어야 한다.

위탁아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 기준으로 강원 33명(22.0%), 충북 20명(13.3%), 대구 18명(12.0%), 경북 15명(10.0%), 전북 13명(8.7%), 광주 12명(8.0%), 경기 7명(4.7%), 전남 6명(4.0%), 경남 5명(3.3%), 인천·울산·충남 각 4명(2.7%), 대전 3명(2.0%), 서울·부산·경기북부 각 2명(1.3%)순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까지 사례변화는 강원 22사례, 충북 9사례, 광주 8사례, 전북 3사례, 경기·서울 각 2사례, 대구·충남·경남 각 1사례씩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탈락의 원인으로는 위탁아동의 친가복귀, 그룹홈, 시설입소, 종결·자립, 설문거부, 연락두절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전수조사의 특성상 총 16개 시·도 지역에서 최소 2사례에서 최대 33사례까지 조사되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표본을 수집하던 2009년 1차 조사기간 동안 연구조건에 부합하는 사례가 없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1차년도 (2009년 1월)	2차년도 (2009년 7월)	3차년도 (2010년 1월)	4차년도 (2011년 1월)	5차년도 (2012년 1월)	표본 유지율
전체 응답수		150(100.0)	133(88.7)	130(86.7)	117(78)	100(66.7)	66.7%
성별	남자	88(58.7)	83(62.4)	78(60.0)	69(59.0)	59(59.0)	67.0%
	여자	62(41.3)	50(37.6)	52(40.0)	48(41.0)	41(41.0)	66.1%
	전체	150(100.0)	133(100.0)	130(100.0)	117(100.0)	100(100.0)	66.7%
평균연령		11.8	11.6	12.7	13.5	14.2	
학년	초등학교	90(60.0)	80(60.2)	60(46.5)	45(38.5)	24(24.0)	26.7%
	중학교	50(33.3)	38(28.6)	54(41.9)	46(39.3)	46(46.0)	92.0%
	기타	10(6.7)	15(11.3)	15(11.6)	26(22.2)	30(30.0)	300.0%
	전체	150(100.0)	133(100.0)	129(100.0)	117(100.0)	100(100.0)	66.7%
위탁 유형	일반위탁	30(20.0)	28(21.1)	26(20.0)	21(17.9)	21(21.0)	70.0%
	친인척위탁	31(20.7)	29(21.8)	28(21.5)	27(23.1)	21(21.0)	67.7%
	대리양육위탁	89(59.3)	76(57.1)	76(58.5)	69(59.0)	58(58.0)	65.2%
	전체	150(100.0)	133(100.0)	130(100.0)	117(100.0)	100(100.0)	66.7%
지역	서울	2(1.3)	2(1.5)	1(0.8)	0(0.0)	0(0.0)	0.0%
	부산	2(1.3)	2(1.5)	2(1.5)	2(1.7)	2(2.0)	100.0%
	대구	18(12.0)	18(13.5)	17(13.1)	17(14.5)	17(17.0)	94.4%
	인천	4(2.7)	4(3.0)	4(3.1)	4(3.4)	4(4.0)	100.0%
	광주	12(8.0)	10(7.5)	11(8.5)	10(8.5)	4(4.0)	33.3%
	대전	3(2.0)	3(2.3)	3(2.3)	3(2.6)	3(3.0)	100.0%
	울산	4(2.7)	4(3.0)	4(3.1)	4(3.4)	4(4.0)	100.0%
	경기	7(4.7)	6(4.5)	6(4.6)	5(4.3)	5(5.0)	71.4%
	경기북부	2(1.3)	2(1.5)	2(1.5)	2(1.7)	2(2.0)	100.0%
	강원	33(22.0)	25(18.8)	26(20.0)	20(17.1)	11(11.0)	33.3%
	충북	20(13.3)	18(13.5)	13(10.0)	13(11.1)	11(11.0)	55.0%
	충남	4(2.7)	4(3.0)	4(3.1)	3(2.6)	3(3.0)	75.0%
	전북	13(8.7)	13(9.8)	13(10.0)	10(8.5)	10(10.0)	76.9%
	전남	6(4.0)	3(2.3)	5(3.8)	5(4.3)	5(5.0)	83.3%
	경북	15(10.0)	15(11.3)	15(11.5)	15(12.8)	15(15.0)	100.0%
	경남	5(3.3)	4(3.0)	4(3.1)	4(3.4)	4(4.0)	80.0%
전체	150(100.0)	133(100.0)	130(100.0)	117(100.0)	100(100.0)	66.7%	

(2) 친가정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1차년도에 조사된 친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친부모 평균연령으로 부는 약 42세, 모는 약 40세로서, 일반위탁아동의 부는 약 45세, 모는 약 38세이고, 친인척위탁아동의 부는 약 43세, 모는 약 40세이고, 대리양육위탁아동의 부는 41세, 모는 약 41세로 나타났다. 친부모 학력을 살펴보면 부의 학력은 고졸이 58명(53.2%), 중졸이하(고 중퇴) 32명(29.4%), 초졸이하 11명(10.1%), 전문대졸(대 중퇴)·대졸이 각 4명(3.7%)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고졸이 49명(49.5%), 중졸이하(고 중퇴) 29명(29.3%), 초졸 이하 11명(11.1%), 대졸이

<표 4> 친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위탁	전체	
전체		30(19.6)	31(20.3)	92(60.1)	153(100.0)	
연령	부	45	43	41	42	
	모	38	40	41	40	
학력	부	초졸이하	1(9.1) (4.8)	1(9.1) (5.0)	9(81.8) (13.2)	11(100.0) (10.1)
		중졸이하 (고 중퇴)	8(25.0) (38.1)	10(31.1) (50.0)	14(43.8) (20.6)	32(100.0) (29.4)
		고졸	11(19.0) (52.4)	7(12.1) (35.0)	40(69.0) (58.8)	58(100.0) (53.2)
		전문대졸 (대 중퇴)	0(0.0) (0.0)	1(25.0) (5.0)	3(75.0) (4.4)	4(100.0) (3.7)
		대졸	1(25.0) (4.8)	1(25.0) (5.0)	2(50.0) (2.9)	4(100.0) (3.7)
		전체	21(19.3) (100.0)	20(18.3) (100.0)	68(62.4) (100.0)	109(100.0)
	모	초졸이하	4(36.4) (22.2)	1(9.1) (5.3)	6(54.5) (9.7)	11(100.0) (11.1)
		중졸이하 (고 중퇴)	6(20.7) (33.3)	9(31.0) (47.4)	14(48.3) (22.6)	29(100.0) (29.3)
		고졸	7(14.3) (38.9)	5(10.2) (26.3)	37(75.5) (59.7)	49(100.0) (49.5)
		전문대졸 (대 중퇴)	0(0.0) (0.0)	1(33.3) (5.3)	2(66.7) (3.2)	3(100.0) (3.0)
		대졸	1(14.3) (5.6)	3(42.9) (15.8)	3(42.9) (4.8)	7(100.0) (7.1)
		전체	18(18.2) (100.0)	19(19.2) (100.0)	62(62.6) (100.0)	99(100.0)
혼인 상태	기혼	8(29.6) (29.6)	4(14.8) (18.2)	15(55.6) (18.1)	27(100.0) (20.5)	
	이혼	12(21.1) (44.4)	12(21.1) (54.5)	33(57.9) (39.8)	57(100.0) (43.2)	
	별거	2(40.0) (7.4)	2(40.0) (9.1)	1(20.0) (1.2)	5(100.0) (3.8)	
	사별	1(4.5) (3.7)	1(4.5) (4.5)	20(90.9) (24.1)	22(100.0) (16.7)	
	기타	4(19.0) (14.8)	3(14.3) (13.6)	14(66.7) (16.9)	21(100.0) (15.9)	
	전체	27(20.5) (100.0)	22(16.7) (100.0)	83(62.9) (100.0)	132(100.0)	

각 7명(7.1%), 전문대졸 3명(3.0%) 순으로 나타나 부모의 성별 간 학력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이 일반위탁 및 대리양육 위탁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의 친부모의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친인척위탁의 경우 중졸이하(고 중퇴)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친부모의 혼인상태는 이혼이 57명(43.2%)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혼인 경우도 27명(20.5%)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2)의 가정위탁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384명의 위탁아동 중 부모이혼이 4,411명(3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즉, 본 연구대상과 전체 위탁아동의 위탁사유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위탁보호사유 중 '부모이혼', '부모별거/가출', '부/모 사망'과 같은 가정해체가 63.7%로 주요사유임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과는 부모이혼이나 별거 등이 과연 아동이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피치 못할' 이유인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강현아, 2014). 위탁유형별 혼인상태에서의 특이한 점은 친부모의 사별이 일반위탁가정 1명(4.5%), 친인척 위탁가정 1명(4.5%), 대리양육 위탁가정 9명(90.9%)으로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부모의 혼인상태가 기혼인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기혼임에도 아동을 위탁가정에 의뢰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아동의 약 80%가 '부모의 문제'로 위탁된 것이라 응답하였고,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약 15%였다. 부모의 문제에는 부모실직/빈곤,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 질병, 수감, 학대·방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친부모의 소득현황을 보여주는데,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친부모가 85명(6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모든 위탁유형에서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부모가 가장 많아 그 결과가 동일하였다.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용이 136만원임임을 고려할 때 100만원 미만의 소득은 수급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극심한 빈곤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친부모 소득현황

변수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위탁	전체
100만원 미만	19(22.4) (67.9)	14(16.5) (58.3)	52(61.2) (67.5)	85(100.0) (65.9)
100-200만원	8(21.6) (28.6)	7(18.9) (29.2)	22(59.5) (28.6)	37(100.0) (28.7)
200-300만원	0(0.0) (0.0)	3(50.0) (12.5)	3(50.0) (3.9)	6(100.0) (4.7)
300-400만원	0(0.0) (0.0)	0(0.0) (0.0)	0(0.0) (0.0)	0(100.0) (0.0)
400-500만원	0(0.0) (0.0)	0(0.0) (0.0)	0(0.0) (0.0)	0(100.0) (0.0)
500만원 이상	1(100.0) (3.6)	0(0.0) (0.0)	0(0.0) (0.0)	1(100.0) (0.8)
전체	28(21.7) (100.0)	24(18.6) (100.0)	77(59.7) (100.0)	129(100.0)

(3) 위탁가정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위탁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것으로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09년 1월(1차)과 같은 해 7월(2차)에 실시되었다. 위탁부모의 평균연령은 1차조사에서 부는 약 52세, 모는 약 55세로 나타나 친부모의 연령보다 부는 약 10세, 모는 약 15세 더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2차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부의 연령은 약 5세 증가하였고,

〈표 6〉 위탁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위탁		전체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연령	부	50	53	48	53	55	63	52	57	
	모	46	47	48	46	61	62	55	52	
학력	부	초졸이하	1(3.6) (3.7)	1(4.2) (4.0)	3(10.7) (11.1)	3(12.5) (11.1)	24(85.7) (43.6)	20(83.3) (41.7)	28(100.0) (25.7)	24(100.0) (24.0)
		중졸이하 (고 중퇴)	1(5.0) (3.7)	1(5.9) (4.0)	7(35.0) (25.9)	7(41.2) (25.9)	12(60.0) (21.8)	9(52.9) (18.8)	20(100.0) (18.3)	17(100.0) (17.0)
		고졸	10(25.0) (37.0)	9(23.1) (36.0)	15(37.5) (55.6)	15(38.5) (55.6)	15(37.5) (27.3)	15(38.5) (31.2)	40(100.0) (36.7)	39(100.0) (39.0)
		전문대졸 (대 중퇴)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대졸	15(71.4) (55.6)	14(70.0) (56.0)	2(9.5) (7.4)	2(10.0) (7.4)	4(19.0) (7.3)	4(20.0) (8.3)	21(100.0) (19.3)	20(100.0) (20.0)
		전체	27(24.8) (100.0)	25(25.0) (100.0)	27(24.8) (100.0)	27(27.0) (100.0)	55(50.5) (100.0)	48(48.0) (100.0)	109(100.0)	100(100.0)
	모	초졸이하	1(1.9) (3.3)	1(2.2) (3.6)	8(15.4) (27.6)	8(17.4) (27.6)	43(82.7) (54.4)	37(80.4) (54.4)	52(100.0) (37.7)	46(100.0) (36.8)
		중졸이하 (고 중퇴)	5(19.2) (16.7)	5(22.7) (17.9)	3(11.5) (10.3)	3(13.6) (10.3)	18(69.2) (22.8)	14(63.6) (20.6)	26(100.0) (18.8)	22(100.0) (17.6)
		고졸	11(31.4) (36.7)	10(29.4) (35.7)	16(45.7) (55.2)	16(47.1) (55.2)	8(22.9) (10.1)	8(23.5) (11.8)	35(100.0) (25.4)	34(100.0) (27.2)
		전문대졸 (대 중퇴)	0(0.0) (0.0)	0(0.0) (0.0)	1(12.5) (3.4)	1(12.5) (3.4)	7(87.5) (8.9)	7(87.5) (10.3)	8(100.0) (5.8)	8(100.0) (6.4)
		대졸	13(76.5) (43.3)	12(80.0) (42.9)	1(5.9) (3.4)	1(6.7) (3.4)	3(17.6) (3.8)	2(13.3) (2.9)	17(100.0) (12.3)	15(100.0) (12.0)
		전체	30(21.7) (100.0)	28(22.4) (100.0)	29(21.0) (100.0)	29(23.2) (100.0)	79(57.2) (100.0)	68(54.4) (100.0)	138(100.0)	125(100.0)
혼인 상태	기혼	26(37.1) (86.7)	24(36.9) (85.7)	22(31.4) (71.0)	22(33.8) (71.0)	22(31.4) (28.6)	19(29.2) (28.4)	70(100.0) (50.7)	65(100.0) (51.6)	
	이혼	1(9.1) (3.3)	1(10.0) (3.6)	2(18.2) (6.5)	2(20.0) (6.5)	8(72.7) (10.4)	7(70.0) (10.4)	11(100.0) (8.0)	10(100.0) (7.9)	
	별거	0(0.0) (0.0)	0(0.0) (0.0)	1(100.0) (3.2)	1(100.0) (3.2)	0(0.0) (0.0)	0(0.0) (0.0)	1(100.0) (0.7)	1(100.0) (0.8)	
	사별	0(0.0) (0.0)	0(0.0) (0.0)	4(9.8) (12.9)	4(10.5) (12.9)	37(90.2) (48.1)	34(89.5) (50.7)	41(100.0) (29.7)	38(100.0) (30.2)	
	미혼	2(20.0) (6.7)	2(22.2) (7.1)	2(20.0) (6.5)	2(22.2) (6.5)	6(60.0) (7.8)	5(55.6) (7.5)	10(100.0) (7.2)	9(100.0) (7.1)	
	기타	1(20.0) (3.3)	1(33.3) (3.6)	0(0.0) (0.0)	0(0.0) (0.0)	4(80.0) (5.2)	2(66.7) (3.0)	5(100.0) (3.6)	3(100.0) (2.4)	
	전체	30(21.7) (100.0)	28(22.2) (100.0)	31(22.5) (100.0)	31(24.6) (100.0)	77(55.8) (100.0)	67(53.2) (100.0)	138(100.0)	126(100.0)	

모의 연령은 약 3세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의 연령이 낮은 층과 모의 연령이 높은 층에서 사례탈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탁유형간 위탁부모의 연령을 비교하면, 일반위탁부모와 친인척위탁부모는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대리양육위탁부모의 위탁특성상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다 보니 평균연령이 60대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학력은 일반위탁가정의 부의 학력은 대졸이 15명(55.6%)이고, 모의 학력 역시 대졸이 13명(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고졸이 부 15명(55.6%), 모 16명(55.6%)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부모의 학력은 초졸 이하가 부 24명(43.6%), 모 43명(54.4%)로 가장 많았다. 위탁유형에 따라 위탁부모간의 학력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친부모 학력과 비교해 보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친부모보다 위탁부모의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인척 위탁부모는 친부모와 학력이 고졸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친부모의 형제자매로 학력 수준이 비슷함을 유추할 수 있다. 1차와 2차 조사간의 사례변화를 살펴보면,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모든 사례가 유지되었으나 일반위탁가정에서는 2사례,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는 약 10사례가 탈락되었다.

탈락이유로는 타지역 전출, 친가복귀, 설문거부, 설문지 제출 지연 등이 있다. 위탁부모의 학력별 위탁아동에 대한 교육기대가 '대졸이상'인 경우 위탁부모의 학력이 초졸이하인 경우 54%, 중졸이하 69.2%, 고졸 74.3%, 대졸 93.8%로 위탁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위탁아동가정에게 가지는 교육기대도 높아지며, 공부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즉, 일반위탁가정이 친인척 및 대리양육 위탁가정보다 자녀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위탁부모 혼인상태는 1차 조사에서 기혼이 전체 70명(50.7%), 사별 41명(29.7%), 이혼이 11명(8.0%), 미혼 10명(7.2%), 별거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기혼이 86.7%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도 기혼이 71.0%,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사별이 48.1%, 기혼이 28.6%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일반위탁부모들을 엄선하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선정하기 때문에 혼인상태에서도 거의 대부분 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도 기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평균연령도 60대로 높았고, 이에 따른 위탁부모의 혼인상태도 48.1%로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의 위탁부모 혼인상태 중 이혼·별거·사별·미혼인 비율이 46%로 거의 절반의 위탁아동들이 한 명의 양육자에게 돌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족구조를 지니는 위탁유형인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지원 등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표 7〉은 위탁부모 소득현황을 보여주는데, 1차 조사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모가 46.7%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친부모 학력에 비해 위탁부모의 학력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소득현황과 연관 지어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위탁부모 소득이 83.9%,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95.1%로 나타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친부모의 소득현황과 비교해 볼 때,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이 친부모의 소득현황과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육환경이 가정위탁보호에 의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차 조사에서 사례탈락한 경우가 총 15사례 중 대리위탁이면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10사례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경제적·물리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위탁된 아동의 경우 비슷한 위탁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지역 전출, 위탁가정 재배치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위탁가정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위탁가정의 53.3%, 대리양육위탁가정 48.2%, 친인척위탁가정 45.2%가 자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본적인 주거생활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월세, 영구임대에 사는 친인척위탁가정이 22.7%, 대리양육위탁가정이 18.8%로 나타나 대리양육위탁가정보다 친인척위탁가정이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위탁부모의 소득현황 및 주거형태

변수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위탁		전체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소득	100만원 미만	6(6.8) (20.0)	6(7.7) (21.4)	16(18.2) (51.6)	16(20.5) (51.6)	66(75.0) (80.5)	56(71.8) (81.2)	88(100.0) (61.5)	78(100.0) (60.9)
	100-200만원	10(31.3) (33.3)	9(32.1) (32.1)	10(31.3) (32.3)	10(35.7) (32.3)	12(37.5) (14.6)	9(32.1) (13.0)	32(100.0) (22.4)	28(100.0) (21.9)
	200-300만원	5(38.5) (16.7)	5(38.5) (17.9)	4(30.8) (12.9)	4(30.8) (12.9)	4(30.8) (4.9)	4(30.8) (5.8)	13(100.0) (9.1)	13(100.0) (10.2)
	300-400만원	4(80.0) (13.3)	3(75.0) (10.7)	1(20.0) (3.2)	1(25.0) (3.2)	0(0.0) (0.0)	0(0.0) (0.0)	5(100.0) (3.5)	4(100.0) (3.1)
	400-500만원	3(100.0) (10.0)	3(100.0) (10.7)	0(0.0) (0.0)	0(0.0) (0.0)	0(0.0) (0.0)	0(0.0) (0.0)	3(100.0) (2.1)	3(100.0) (2.3)
	500만원 이상	2(100.0) (6.7)	2(100.0) (7.1)	0(0.0) (0.0)	0(0.0) (0.0)	0(0.0) (0.0)	0(0.0) (0.0)	2(100.0) (1.4)	2(100.0) (1.6)
	전체	30(21.0) (100.0)	28(21.9) (100.0)	31(21.7) (100.0)	31(24.2) (100.0)	82(57.3) (100.0)	69(53.9) (100.0)	143(100.0)	128(100.0)
주거 형태	자택	16(22.5) (53.3)	15(24.6) (53.6)	14(19.7) (45.2)	14(23.0) (45.2)	41(57.7) (48.2)	32(52.5) (44.4)	71(100.0) (48.6)	61(100.0) (46.6)
	전세	10(30.3) (33.3)	9(30.0) (32.1)	7(21.2) (22.6)	7(23.3) (22.6)	16(48.5) (18.8)	14(46.7) (19.4)	33(100.0) (22.6)	30(100.0) (22.9)
	보증월세	1(14.3) (3.3)	1(14.3) (3.6)	2(28.6) (6.5)	2(28.6) (6.5)	4(57.1) (4.7)	4(57.1) (5.6)	7(100.0) (4.8)	7(100.0) (5.3)
	월세	0(0.0) (0.0)	0(0.0) (0.0)	3(27.3) (9.7)	3(30.0) (9.7)	8(72.7) (9.4)	7(70.0) (9.7)	11(100.0) (7.5)	10(100.0) (7.6)
	영구임대	1(14.3) (3.3)	1(16.7) (3.6)	2(28.6) (6.5)	2(33.3) (6.5)	4(57.1) (4.7)	3(50.0) (4.2)	7(100.0) (4.8)	6(100.0) (4.6)
	기타	2(11.8) (6.7)	2(11.8) (7.1)	3(17.6) (9.7)	3(17.6) (9.7)	12(70.6) (14.1)	12(70.6) (16.7)	17(100.0) (11.6)	17(100.0) (13.0)
	전체	30(20.5) (100.0)	28(21.4) (100.0)	31(21.2) (100.0)	31(23.7) (100.0)	85(58.2) (100.0)	72(55.0) (100.0)	146(100.0)	131(100.0)

## 2) 가정위탁 유형별 배치 시 친가정 환경의 차이

〈표 8〉은 위탁가정에 배치된 시기에 가정위탁의 유형에 따라 친가정 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친가정 환경은 부모님과 관련된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했는지의 여부와 학대나 양육태도와 같은 친부모 양육행동으로 살펴보았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친인척 위탁가정에서는 6명(54.5%),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5명(45.5%)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위탁가정에서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위탁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요양원, 기도원 등)에 오랫동안 계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11명(35.5%),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도 11명(35.5%), 일반위탁가정은 9명(29.0%)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위탁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어머니)가 어머니(아버지)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11(44.0%),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8명(32.0%), 친인척 위탁가정은 6명(2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유형별로 가정폭력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정위탁 유형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여부의 차이

생활사건 경험여부	위탁유형	가정위탁유형			전체	$\chi^2$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위탁		
부모님의 이혼	없음	10(25.6) (40.0)	7(17.9) (23.3)	22(56.4) (30.1)	39(100.0) (30.5)	1.797
	있음	15(16.9) (60.0)	23(25.8) (76.7)	51(57.3) (69.9)	89(100.0) (69.5)	
	전체	25(19.5) (100.0)	30(23.4) (100.0)	73(57.0) (100.0)	128(100.0) (100.0)	
부모님의 실직	없음	14(16.9) (66.7)	21(25.3) (70.0)	48(57.8) (71.6)	83(100.0) (70.3)	.192
	있음	7(20.0) (33.3)	9(25.7) (30.0)	19(54.3) (28.4)	35(100.0) (29.7)	
	전체	21(17.8) (100.0)	30(25.4) (100.0)	67(56.8) (100.0)	118(100.0) (100.0)	
부모님의 사업실패	없음	13(15.9) (59.1)	22(26.8) (73.3)	47(57.3) (67.1)	82(100.0) (67.2)	1.169
	있음	9(22.5) (40.9)	8(20.0) (26.7)	23(57.5) (32.9)	40(100.0) (32.8)	
	전체	22(18.0) (100.0)	30(24.6) (100.0)	70(57.4) (100.0)	122(100.0) (100.0)	
부모님 교도소수감	없음	20(18.0) (100.0)	24(21.6) (80.0)	67(60.4) (93.1)	111(100.0) (91.0)	6.771*
	있음	0(0.0) (0.0)	6(54.5) (20.0)	5(45.5) (6.9)	11(100.0) (9.0)	
	전체	20(16.4) (100.0)	30(24.6) (100.0)	72(59.0) (100.0)	122(100.0) (100.0)	
부모님 알코올중독	없음	13(14.0) (59.1)	23(24.7) (76.7)	57(61.3) (83.8)	93(100.0) (77.5)	5.847
	있음	9(33.3) (40.9)	7(25.9) (23.3)	11(40.7) (16.2)	27(100.0) (22.5)	
	전체	22(18.3) (100.0)	30(25.0) (100.0)	68(56.7) (100.0)	120(100.0) (100.0)	
부모님 약물중독	없음	17(15.7) (89.5)	27(25.0) (90.0)	64(59.3) (97.0)	108(100.0) (93.9)	2.537
	있음	2(28.6) (10.5)	3(42.9) (10.0)	2(28.6) (3.0)	7(100.0) (6.1)	
	전체	19(16.5) (100.0)	30(26.1) (100.0)	66(57.4) (100.0)	115(100.0) (100.0)	
부모님 장기 입원	없음	13(14.4) (59.1)	20(22.2) (64.5)	57(63.3) (83.8)	90(100.0) (74.4)	7.464*
	있음	9(29.0) (40.9)	11(35.5) (35.5)	11(35.5) (16.2)	31(100.0) (25.6)	
	전체	22(18.2) (100.0)	31(25.6) (100.0)	68(56.2) (100.0)	121(100.0) (100.0)	
부모님 중 한 분 가출	없음	16(18.0) (66.7)	21(23.6) (70.0)	52(58.4) (71.2)	89(100.0) (70.1)	0.180
	있음	8(21.1) (33.3)	9(23.7) (30.0)	21(55.3) (28.8)	38(100.0) (29.9)	
	전체	24(18.9) (100.0)	30(23.6) (100.0)	73(57.5) (100.0)	127(100.0) (100.0)	
부모님 가정폭력	없음	13(13.5) (54.2)	23(24.0) (79.3)	60(62.5) (88.2)	96(100.0) (79.3)	12.560**
	있음	11(44.0) (45.8)	6(24.0) (20.7)	8(32.0) (11.8)	25(100.0) (20.7)	
	전체	24(19.8) (100.0)	29(24.0) (100.0)	68(56.2) (100.0)	121(100.0) (100.0)	
부모님 중 한 분 사망	없음	15(19.0) (55.6)	15(19.0) (53.6)	49(62.0) (69.0)	79(100.0) (62.7)	2.797
	있음	12(25.5) (44.4)	13(27.7) (46.4)	22(46.8) (31.0)	47(100.0) (37.3)	
	전체	27(21.4) (100.0)	28(22.2) (100.0)	71(56.3) (100.0)	126(100.0) (100.0)	
부모님 모두 사망	없음	19(17.6) (90.5)	27(25.0) (90.0)	62(57.4) (89.9)	108(100.0) (90.0)	.007
	있음	2(16.7) (9.5)	3(25.0) (10.0)	7(58.3) (10.1)	12(100.0) (10.0)	
	전체	21(17.5) (100.0)	30(25.0) (100.0)	69(57.5) (100.0)	120(100.0) (100.0)	

\* p&lt;.05, \*\* p&lt;.01, \*\*\* p&lt;.001

가정위탁의 유형에 따라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 분포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는 부모님의 교도소 수감 경험, 부모님의 장기입원, 부모님 간의 가정폭력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험을 많이 했던 위탁유형은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이었다. 이는 부모님의 장기 부재로 인해 아동이 친인척이나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 간의 가정폭력 경험은 일반위탁가정의 경우가 유의미하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부모 간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대리양육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위탁가정보다는 일반위탁가정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9〉 친부모 양육행동

	가정위탁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친부모 양육태도	일반위탁	29	2.82	0.45	2.032	
	친인척위탁	30	2.86	0.34		
	대리양육위탁	89	2.73	0.31		
친부모 학대	일반위탁(a)	27	1.49	0.85	8.179***	a>b (Games-Howell)
	친인척위탁(b)	31	1.08	0.13		
	대리양육위탁(c)	89	1.15	0.28		
친부모 애착	일반위탁	29	2.13	0.91	2.915	
	친인척위탁	31	1.60	1.13		
	대리양육위탁	88	1.53	1.26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더 자주 당한 것을 의미한다. 친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평균점수는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1.49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 1.15, 친인척 위탁가정 아동 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친인척 위탁가정보다 일반위탁가정에서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3) 가정위탁 유형별 배치유형 변경 및 친가정복귀 성과의 차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모든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정위탁유형에 따른 배치유형변경 및 친가정복귀의 차이를  $\chi^2$  검정으로 살펴보았다. 친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친가정 복귀', 위탁을 종결했거나, 재위탁, 시설입소를 한 경우 '배치변경'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친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가정위탁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에서 친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총 21건이었으며,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10명(47.6%), 일반위탁가정이 9명(42.9%), 친인척 위탁가정이 2명(9.5%)으로 각 유형별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를 나타냈다.

두번째로, 위탁종결이나 재위탁, 시설입소 등으로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 가정위탁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체에서 배치가 변경된 경우는 14건이었으며, 일반위탁가정이 6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 모두 4명(28.6%)으로 나타났다. 배치변경의 경우에도 위탁 유형별로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위탁유형에서 배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리양육위탁유형과 일반위탁유형에서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정위탁유형별 친가정복귀, 배치변경의 차이

변경유형	위탁유형	가정위탁유형			전체	$\chi^2$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위탁		
친가정 복귀	복귀 하지않음	21(15.9) (70.0)	29(22.0) (93.5)	82(62.1) (89.1)	132(100.0) (86.3)	8.729*
	복귀함	9(42.9) (30.0)	2(9.5) (6.5)	10(47.6) (10.9)	21(100.0) (13.7)	
	전체	30(19.6) (100.0)	31(20.3) (100.0)	92(60.1) (100.0)	153(100.0) (100.0)	
배치변경	변경없음	24(17.3) (80.0)	27(19.4) (87.1)	88(63.3) (95.7)	139(100.0) (90.8)	7.326*
	변경있음	6(42.9) (20.0)	4(28.6) (12.9)	4(28.6) (4.3)	14(100.0) (9.2)	
	전체	30(19.6) (100.0)	31(20.3) (100.0)	92(60.1) (100.0)	153(100.0) (100.0)	

\* p<.05, \*\* p<.01, \*\*\* p<.001

#### 4)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장기적 발달성과 차이

다음은 가정위탁의 유형별로 위탁아동의 발달성과와 양육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위탁아동의 발달성과는 학교적응, 공격성,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지지로 설정하였으며 이 문항들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수집되었다.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환경은 양육태도, 학대, 애착으로 살펴보았으며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수집된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 (1) 1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1차년도의 데이터는 2009년 1월,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었을 당시에 조사한 데이터이다. 1차년도 데이터 분석 결과, 아래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위탁 유형별로 주요 발달성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1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가정위탁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학교적응	일반위탁	29	3.12	0.34	.152	
	친인척위탁	31	3.06	0.42		
	대리양육위탁	89	3.09	0.44		
공격성	일반위탁	30	1.28	0.19	.402	
	친인척위탁	31	1.25	0.24		
	대리양육위탁	89	1.24	0.22		
우울불안	일반위탁	30	1.24	0.24	.405	
	친인척위탁	31	1.31	0.34		
	대리양육위탁	89	1.28	0.27		
자아존중감	일반위탁	29	2.94	0.46	.597	
	친인척위탁	31	2.97	0.39		
	대리양육위탁	89	2.87	0.47		
또래애착	일반위탁	30	3.03	0.78	.468	
	친인척위탁	31	2.97	0.88		
	대리양육위탁	88	2.89	0.69		
사회적지지	일반위탁	27	2.70	0.56	.496	
	친인척위탁	31	2.68	0.71		
	대리양육위탁	89	2.59	0.57		

\* p<.05, \*\* p<.01, \*\*\* p<.001

##### (2) 2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2차년도 데이터는 2009년 7월에 조사한 데이터로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에 조사하였다.

2차년도(2009) 데이터 분석결과,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평균점수는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3.01,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은 2.80,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이 2.73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적응의 평균점수는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이 3.21로 동일하였고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이 2.96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경우,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이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학교적응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일반위탁가정이 대리양육 위탁가정보다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적응에서는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 모두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학교적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차년도에서는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에서 다른 유형의 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다른 발달성과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2〉 2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가정위탁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위탁부모 양육태도	일반위탁(a)	28	3.01	0.35	5.802**	a>c (Dunnett)
	친인척위탁(b)	30	2.73	0.38		
	대리양육위탁(c)	81	2.80	0.31		
위탁부모 학대	일반위탁	28	1.13	0.17	.227	
	친인척위탁	30	1.18	0.25		
	대리양육위탁	82	1.16	0.29		
위탁부모 애착	일반위탁	28	2.92	0.58	2.471	
	친인척위탁	29	2.62	0.84		
	대리양육위탁	78	2.44	1.11		
학교적응	일반위탁(a)	28	3.21	0.34	5.044**	a,c>b (Scheffe)
	친인척위탁(b)	31	2.96	0.46		
	대리양육위탁(c)	82	3.21	0.38		
공격성	일반위탁	28	1.19	0.14	.047	
	친인척위탁	31	1.17	0.17		
	대리양육위탁	82	1.17	0.23		
우울불안	일반위탁	28	1.27	0.27	.003	
	친인척위탁	31	1.27	0.29		
	대리양육위탁	81	1.27	0.31		
자아존중감	일반위탁	28	3.04	0.48	1.744	
	친인척위탁	31	2.84	0.39		
	대리양육위탁	82	2.95	0.41		
도래애착	일반위탁	27	3.04	0.73	.737	
	친인척위탁	30	3.18	0.50		
	대리양육위탁	81	3.00	0.76		
사회적지지	일반위탁	28	2.76	0.61	1.265	
	친인척위탁	29	2.53	0.63		
	대리양육위탁	81	2.70	0.54		

\* p<.05, \*\* p<.01, \*\*\* p<.001

(3) 3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3차년도(2010) 데이터 분석결과,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위탁부모와의 애착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 평균점수는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3.09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2.57),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2.34)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은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애착수준이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은 위탁부모님과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탁부모님을 닮고 싶어 하는 애착의 정도가 다른 위탁유형의 아동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발달성과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3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가정위탁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위탁부모 양육태도	일반위탁	26	2.95	0.31	2.656	
	친인척위탁	29	2.77	0.43		
	대리양육위탁	77	2.77	0.32		
위탁부모 학대	일반위탁	26	1.09	0.17	1.078	
	친인척위탁	29	1.19	0.41		
	대리양육위탁	77	1.15	0.22		
위탁부모 애착	일반위탁(a)	26	3.09	0.70	4.188*	a>b,c (Dunnett)
	친인척위탁(b)	29	2.34	1.05		
	대리양육위탁	77	2.57	1.04		
학교적응	일반위탁	26	3.24	0.48	1.114	
	친인척위탁	29	3.11	0.36		
	대리양육위탁	76	3.23	0.36		
공격성	일반위탁	26	1.20	0.17	.475	
	친인척위탁	29	1.18	0.20		
	대리양육위탁	76	1.16	0.21		
우울불안	일반위탁	26	1.24	0.35	.953	
	친인척위탁	29	1.18	0.15		
	대리양육위탁	76	1.26	0.26		
자아존중감	일반위탁	26	3.01	0.50	.033	
	친인척위탁	29	3.04	0.47		
	대리양육위탁	76	3.04	0.46		
도래애착	일반위탁	26	2.65	0.87	2.363	
	친인척위탁	29	2.98	0.81		
	대리양육위탁	77	3.03	0.71		
사회적지지	일반위탁	25	2.59	0.75	1.031	
	친인척위탁	29	2.68	0.68		
	대리양육위탁	76	2.78	0.51		

\* p<.05, \*\* p<.01, \*\*\* p<.001

**(4) 4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4차년도(2011) 데이터 분석결과,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양육환경과 아동의 발달성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4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가정위탁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위탁부모 양육태도	일반위탁	21	2.97	0.28	1.326	
	친인척위탁	27	2.87	0.29		
	대리양육위탁	69	2.84	0.36		
위탁부모 학대	일반위탁	21	1.07	0.13	1.154	
	친인척위탁	27	1.07	0.10		
	대리양육위탁	69	1.13	0.25		
위탁부모 애착	일반위탁	21	3.01	0.83	2.923	
	친인척위탁	27	2.57	0.93		
	대리양육위탁	69	2.42	1.02		
학교적응	일반위탁	21	3.20	0.37	.113	
	친인척위탁	27	3.23	0.35		
	대리양육위탁	69	3.18	0.42		
공격성	일반위탁	21	1.17	0.19	.279	
	친인척위탁	27	1.12	0.13		
	대리양육위탁	69	1.15	0.25		
우울불안	일반위탁	21	1.23	0.27	1.017	
	친인척위탁	27	1.16	0.18		
	대리양육위탁	69	1.26	0.34		
자아존중감	일반위탁	21	3.03	0.60	.139	
	친인척위탁	27	3.08	0.34		
	대리양육위탁	69	3.02	0.45		
또래애착	일반위탁	21	3.24	0.41	2.646	
	친인척위탁	27	3.24	0.45		
	대리양육위탁	68	3.00	0.62		
사회적지지	일반위탁	20	2.96	0.46	.669	
	친인척위탁	27	2.88	0.66		
	대리양육위탁	69	2.79	0.60		

\* p<.05, \*\* p<.01, \*\*\* p<.001

**(5) 5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5차년도(2012) 데이터 분석결과, 3차년도 데이터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위탁부모와의 애착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의 평균점수는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2.79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 위탁가정 2.53, 친인척 위탁가정 1.86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은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애착 수준이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은 위탁부모님과의 애착 정도가 친인척 위탁가정 아동보다 긍정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발달성과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5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가정위탁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위탁부모 양육태도	일반위탁	21	2.98	0.36	2.424	
	친인척위탁	21	2.77	0.33		
	대리양육위탁	58	2.82	0.31		
위탁부모 확대	일반위탁	21	1.08	0.17	.351	
	친인척위탁	21	1.10	0.18		
	대리양육위탁	58	1.13	0.23		
위탁부모 애착	일반위탁(a)	21	2.79	0.99	3.932*	a>b (Scheffe)
	친인척위탁(b)	21	1.86	1.34		
	대리양육위탁(c)	58	2.53	1.12		
학교적응	일반위탁	21	3.20	0.30	.031	
	친인척위탁	21	3.20	0.40		
	대리양육위탁	58	3.21	0.39		
공격성	일반위탁	21	1.21	0.25	.640	
	친인척위탁	21	1.13	0.19		
	대리양육위탁	58	1.19	0.26		
우울불안	일반위탁	21	1.29	0.37	1.045	
	친인척위탁	21	1.20	0.30		
	대리양육위탁	58	1.18	0.26		
자아존중감	일반위탁	21	2.93	0.48	.078	
	친인척위탁	21	2.95	0.42		
	대리양육위탁	58	2.98	0.43		
또래애착	일반위탁	21	2.88	0.69	2.441	
	친인척위탁	21	3.12	0.61		
	대리양육위탁	57	3.23	0.59		
사회적지지	일반위탁	21	2.86	0.59	1.711	
	친인척위탁	21	3.05	0.41		
	대리양육위탁	58	2.77	0.64		

\* p<.05, \*\* p<.01, \*\*\* p<.001

(6) 2~5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위탁가정의 양육환경 및 아동의 발달성과 총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2차~5차까지의 보호자 관련 문항은 위탁부모에 대한 문항으로서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을 아동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차~5차까지의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과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차~5차년도까지의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보호자에 대한 애착 수준에서 가정위탁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친인척위탁가정의 아동보다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수준이 모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위탁부모와의 애착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6〉 2차년도-5차년도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차이

	가정위탁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위탁부모 양육태도	일반위탁(a)	21	2.98	0.30	4.089*	a>b (Scheffe)
	친인척위탁(b)	20	2.76	0.23		
	대리양육위탁(c)	57	2.82	0.26		
위탁부모 학대	일반위탁	21	1.10	0.11	.666	
	친인척위탁	20	1.16	0.17		
	대리양육위탁	58	1.14	0.19		
위탁부모 애착	일반위탁(a)	21	2.94	0.61	4.817*	a>b (Scheffe)
	친인척위탁(b)	19	2.24	0.80		
	대리양육위탁(c)	54	2.52	0.75		
학교적응	일반위탁	21	3.23	0.28	1.815	
	친인척위탁	21	3.10	0.29		
	대리양육위탁	57	3.23	0.27		
공격성	일반위탁	21	1.20	0.10	.426	
	친인척위탁	21	1.16	0.09		
	대리양육위탁	57	1.17	0.17		
우울불안	일반위탁	21	1.26	0.29	.324	
	친인척위탁	21	1.21	0.14		
	대리양육위탁	56	1.24	0.18		
자아존중감	일반위탁	21	3.03	0.44	.187	
	친인척위탁	21	2.96	0.26		
	대리양육위탁	57	2.99	0.35		
또래애착	일반위탁	20	2.94	0.54	1.445	
	친인척위탁	20	3.16	0.42		
	대리양육위탁	55	3.09	0.37		
사회적지지	일반위탁	19	2.75	0.44	.051	
	친인척위탁	19	2.74	0.41		
	대리양육위탁	56	2.72	0.36		

\* p&lt;.05, \*\* p&lt;.01, \*\*\* p&lt;.001

## 5) 종단적 분석: 위탁유형 별 양육환경과 아동의 장기적 발달성과의 변화추이 비교

횡단분석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과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해 위탁유형별 양육환경과 아동의 장기 발달성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패널자료는 1년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4회의 조사를 통해 구축된 것이므로 변화·성장율과 동시에 초기치까지 제시해 주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전체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장기적 발달성과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집단별로 반복측정된 변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집단이 시간변화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이 위탁유형별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의 결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통계프로그램이라 판단하여 적용하였다.

단, 본 연구의 조사시기가 1차조사(2009년 1월), 2차조사(2009년 7월), 3차조사(2010년 1월), 4차조사(2011년 1월),

5차조사(2012년 1월)로 설계가 된 바 있다. 그러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시기의 간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조사시기 간격이 동일한 1차, 3차, 4차, 5차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결과를 분석할 때에 1차와 3차 간의 간격이 1년 차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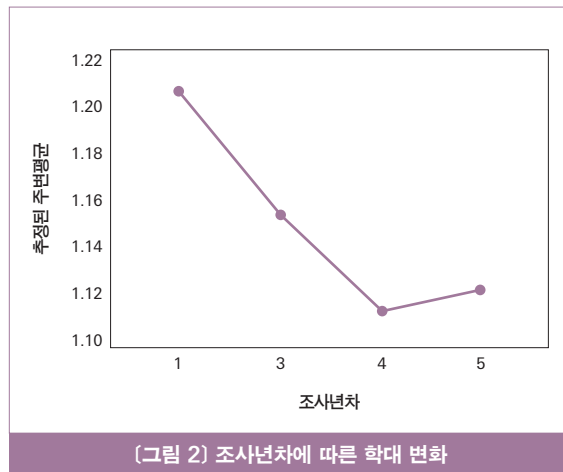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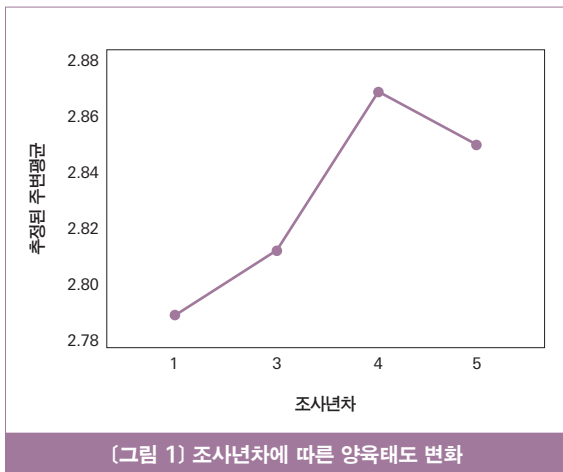
그리고 1차년도(2009년 1월)에서는 위탁배치 전 친부모의 양육태도, 학대정도,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한 값을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에 있어 배치 전 상황이 고려됨은 위탁아동이 배치 전 부정적 생활사건 중 부모님간의 가정폭력, 위탁아동의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대리양육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위탁가정보다는 일반위탁가정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위탁아동의 초기값(1차년도)이 학대경험과 공격성이 높고, 학교적응이 낮게 나타난 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배치부터 아동의 발달수준이나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값을 1차년도인 위탁배치 전 친부모와의 관계도 포함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위탁유형별 가정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

#### ① 양육환경요인: 양육태도, 학대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요인의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양육태도와 학대 1차년도의 수치는 친부모에 대한 내용이며, 그 이후의 수치는 위탁부모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을 보면, 위탁아동들은 위탁배치 전 친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위탁된 후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인지함에 있어 위탁기간 2년동안 긍정적으로 증가하다가 위탁기간 3년차인 5차년도에는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위탁아동이 학대를 인식한 정도는 양육태도와는 정반대의 변화양상을 보였는데, 위탁배치 전 친부모의 학대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위탁된 후 2년 동안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3년차인 5차년도에는 다소 증가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모수변화모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에 나타난 양육태도의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선형변화모형인 제1모형(0,0,1,1), 제2모형(0,1,1,1), 제5모형(0,1,2,3)과 자유모수변화모형인 제3모형(0,1,2,\*), 제4모형(0,1,\*,\*)의 5가지 변화모형을 설정 후 각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에서 평균의 변화가 전제되었으므로 무변화모형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유모수변화모형 중에서 제3모형(0,1,2,\*)이 NFI가 0.903, TLI는 0.959, CFI가 0.971로 모두 0.9를 초과하여 모형적합에 문제가 없었으며 RMSEA 또한 0.049로 모형적합기준에 부합되는 모형이었다. 이 외에도 제2모형과 제4모형도 모형적합기준에 부합하였으나, [그림 1]의 그래프와 동시에 고려할 때 제3모형이 진정한 변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표 17〉 양육태도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양육태도	변화율 요인계수	$\chi^2$	NFI	TLI	CFI	RM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제1모형	0,0,1,1	14.489	.854	.909	.927	.073	2.789***, .024***	.067**, .025**
제2모형	0,1,1,1	9.818	.901	.975	.980	.039	2.774***, .029***	.063*, .030*
제3모형	0,1,2,*	9.587	.903	.959	.971	.049	2.770***, .028***	.047**, .017**
제4모형	0,1,*,*	9.015	.909	.968	.977	.044	2.770***, .029***	.060*, .028*
제5모형	0,1,2,3	15.047	.848	.901	.921	.076	2.781***, .026***	.029*, .011*

\* p&lt;.05, \*\* p&lt;.01, \*\*\* p&lt;.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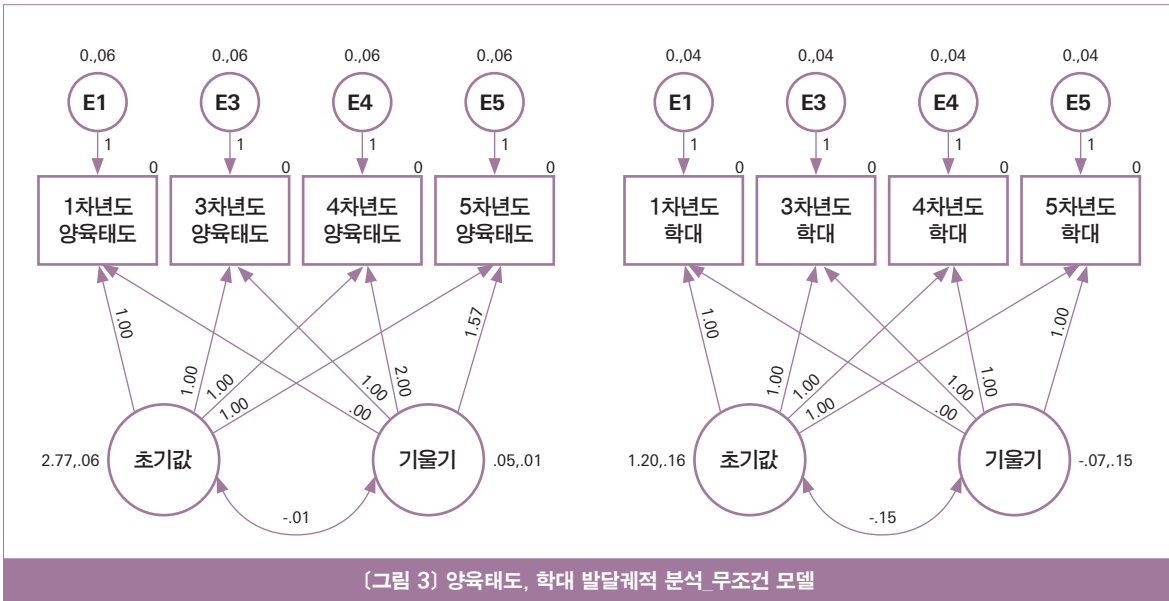
[그림 2]에 나타난 학대의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5가지 변화모형을 설정 후 각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5가지 변화모형 중에서 모형적합기준에 부합한 모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적합도 지수가 다소 비정상적으로 나온 것은 학대빈도가 낮거나 아동들의 보고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 제2모형(0,1,1,1)이 NFI가 0.018, TLI는 -0.576, CFI가 0.000으로 RMSEA는 0.082로 가장 모형적합기준에 가까웠으므로 [그림 2]의 그래프와 동시에 고려하여 제2모형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해석에 있어서는 적합도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8〉 학대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학대	변화율 요인계수	$\chi^2$	NFI	TLI	CFI	RM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제1모형	0,0,1,1	82.894	-4.013	-13.324	.000	.248	1.176***, .025***	-.066*, .026*
제2모형	0,1,1,1	16.241	.018	-.576	.000	.082	1.197***, .037***	-.072, .038
제3모형	0,1,2,*	47.849	-1.894	-7.929	.000	.196	1.197***, .033***	-.046*, .020*
제4모형	0,1,*,*	16.190	.021	-1.009	.000	.093	1.197***, .037***	-.072, .038
제5모형	0,1,2,3	67.094	-3.057	-10.302	.000	.220	1.189***, .030***	-.031*, .013*

\* p&lt;.05, \*\*\* p&lt;.001

양육환경요인을 나타내는 양육태도, 학대의 변화에 대한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조건 모델을 설정하였다. 양육태도의 무조건 모델은 4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5차년도에 자유롭게 변하는 모형으로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2, \*로 고정하였다. 학대는 초기치에서 3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1로 지정하였다.



〈표 19〉와 같이 양육태도의 초기치 평균은 2.770(p<.001)이고 변량은 0.028(p<.001)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탁배치 전 위탁아동이 친부모의 양육태도를 인지함에 있어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 평균은 0.047(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탁아동이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신의 친부모의 양육태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긍정적으로 증가된 인식의 정도는 위탁된 후 2년동안 해마다 0.04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위탁 3년차인 5차년도에 다소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변화율의 변량은 0.017(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위탁아동에 따라 양육태도의 변화율이 1차년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대의 초기치 평균은 1.197(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고, 변량도 0.033(p<.0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탁배치 전 위탁아동의 친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에서 위탁아동 간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학대의 변화율 평균은 -0.072(P>.05), 변량은 0.038(P>.05)로 위탁된 이후의 위탁아동이 경험한 학대정도에 있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아동들 간의 개인적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추정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양육태도 = 2.770 + 0.047 \times 0 = 2.770 + 오차항$$

$$3차년도 양육태도 = 2.770 + 0.047 \times 1 = 2.817 + 오차항$$

$$4차년도 양육태도 = 2.770 + 0.047 \times 2 = 2.864 + 오차항$$

$$5차년도 양육태도 = 2.781 + 0.047 \times 1.57 = 2.844 + 오차항$$

〈표 19〉 양육태도, 학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변화율 요인계수	$\chi^2$	NFI	TLI	CFI	RM 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양육태도	0, 1, 2, *	9.587	.903	.959	.971	.049	2.770***, .028***	.047**, .017**
학대	0, 1, 1, 1	16.241	.018	-.576	.000	.082	1.197***, .037***	-.072, .038

\*\* p<.01, \*\*\* p<.001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요인의 학대에서 조사년차( $F=5.047, p<.01$ )의 값이 유의하므로 설문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위탁아동이 학대를 인식한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위탁배치 전 친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의 정도와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위탁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의 정도가 1년의 간격을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음을 의미한다. 조사년차와 위탁유형 간 상호작용( $F=4.827, p<.001$ )의 값도 유의하므로 위탁유형별로 위탁아동이 학대를 인식한 정도의 변화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위탁아동이 친부모의 학대정도와 위탁된 이후 위탁부모의 학대정도를 인식하는 변화양상에 시간과 동시에 위탁유형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위탁아동이 인지한 학대정도의 차이가 있고 변화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태도에서는  $F$ 값 1.134( $p>.05$ )로 위탁유형 및 조사시기별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조사년차와 위탁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한 위탁유형과 조사년차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요인	SS	df	MS	F
양육태도	개체간	집단	1.357	2	.679	2.530
		오차	26.016	97	.268	
	개체내	조사년차	.236	3	.079	1.134
		조사년차*위탁유형	.383	6	.064	.921
		오차	20.154	291	.069	
학대	개체간	집단	.236	2	.118	.997
		오차	11.240	95	.118	
	개체내	조사년차	1.116	2.260	.494	5.047**
		조사년차*위탁유형	2.135	4.521	.472	4.827***
		오차	21.012	214.742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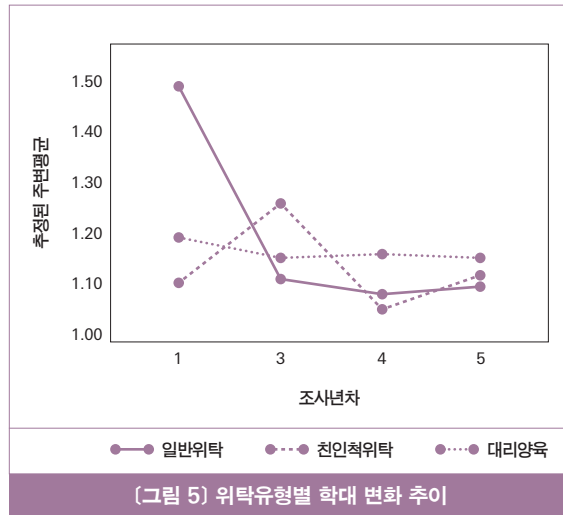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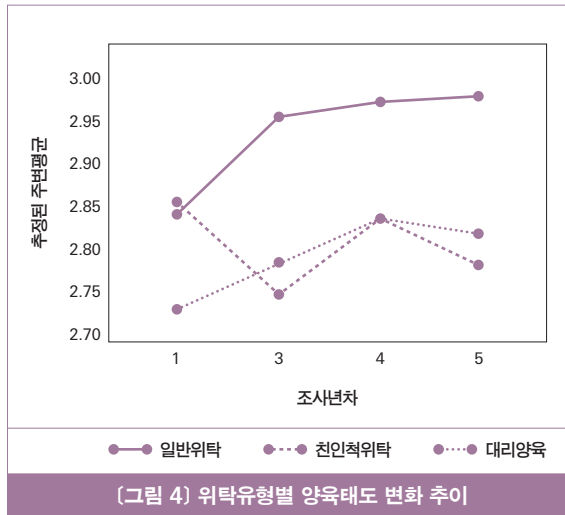
\*\*  $p<.01$ , \*\*\*  $p<.001$

조사시기별로 일반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양육태도와 학대정도를 프로파일로 나타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3개의 위탁유형의 양육태도와 학대 모두에서 변화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정위탁유형과 조사년차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위탁된 유형에 따라서 양육태도와 학대의 변화양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이 위탁 배치되기 전 친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위탁가정에서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긍정적으로 인지함을 알 수 있다. 학대에 있어서는 일반위탁아동이 친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을 친족위탁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부모의 학대정도와 비교하여 위탁배치 후 위탁부모의 학대정도를 인지함에 있어 월등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감소된 수치가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보다 낮으며, 위탁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친인척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이 위탁배치 전 친부모의 양육태도를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경험에서는 위탁된 지 1년 후인 3차년도에서 위탁되기 전 친부모보다 현재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른 위탁유형들과 다르게 조사시기와 상관없이 위탁아동이 양육환경을 인식함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특성상 단순히 혈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적인 위탁양육으로 인해 위탁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인척위탁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우려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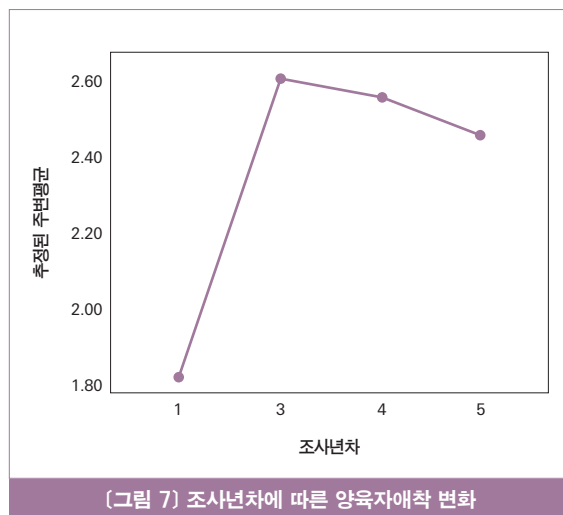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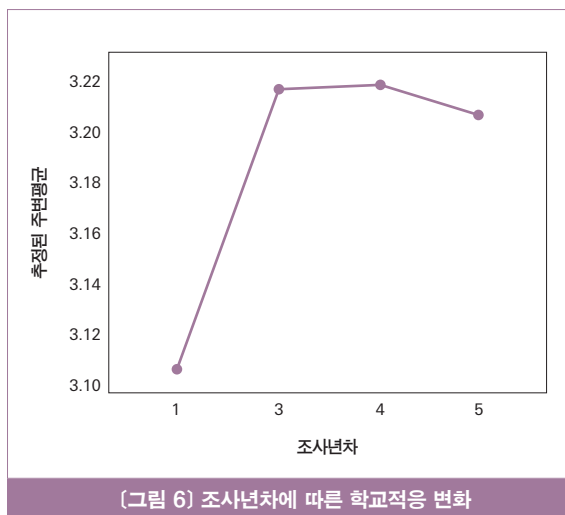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는 위탁아동이 조부모의 양육태도를 친부모의 양육태도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위탁아동이 학대를 인지함에 있어서는 친부모와 조부모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양육의 특성상 친부모가 위탁아동에게 제공했을 양육환경이 조부모로부터 답습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② 긍정적 발달 성과(학교적응, 위탁부모애착)

위탁아동의 긍정적 발달성과의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림 6]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위탁아동들의 학교적응과 위탁부모애착에서 유사한 평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학교적응의 경우 위탁배치된 해인 1차년도에서 다음 해인 3차년도에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이후로는 증가된 학교적응 정도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애착의 경우에는 위탁아동과 친부모 간의 애착관계가 가장 낮았으며, 위탁된 후 위탁부모와의 애착정도에서 월등히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비록 위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위탁부모와의 애착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형태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이 보이지 않음으로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선형변화모형 중 하나인 0,1,1,1의 변화모형이, 위탁부모애착의 경우는 자유모수변화모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에 나타난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선형변화모형인 제1모형(0,0,1,1), 제2모형(0,1,1,1), 제5모형(0,1,2,3)과 자유모수변화모형인 제3모형(0,1,2,\*), 제4모형(0,1,\*,\*)의 5가지 변화모형을 설정 후 각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에서 평균의 변화가 전제되었으므로 무변화모형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선형변화모형 중에서 제2모형(0,1,1,1)이 NFI가 0.841, TLI는 1.050, CFI가 1.000으로 대체로 0.9를 초과하여 모형적합에 문제가 없었으며 RMSEA 또한 0.000으로 모형적합기준에 부합되는 모형이었다. 이 외에도 제3모형과 제4모형도 모형적합기준에 부합하였으나, [그림 6]의 그래프와 동시에 고려할 때 제2모형이 진정한 변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표 21〉 학교적응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학교적응	변화율 요인계수	$\chi^2$	NFI	TLI	CFI	RM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제1모형	0,0,1,1	19.268	.544	.563	.651	.096	3.143***, .027***	.055, .035
제2모형	0,1,1,1	6.700	.841	1.050	1.000	.000	3.086***, .034***	.115**, .038**
제3모형	0,1,2,*	6.748	.840	1.011	1.000	.000	3.107***, .032***	.054*, .022*
제4모형	0,1,*,*	4.209	.900	1.124	1.000	.000	3.093***, .034***	.086*, .034*
제5모형	0,1,2,3	11.839	.720	.851	.881	.056	3.119***, .031***	.037*, .01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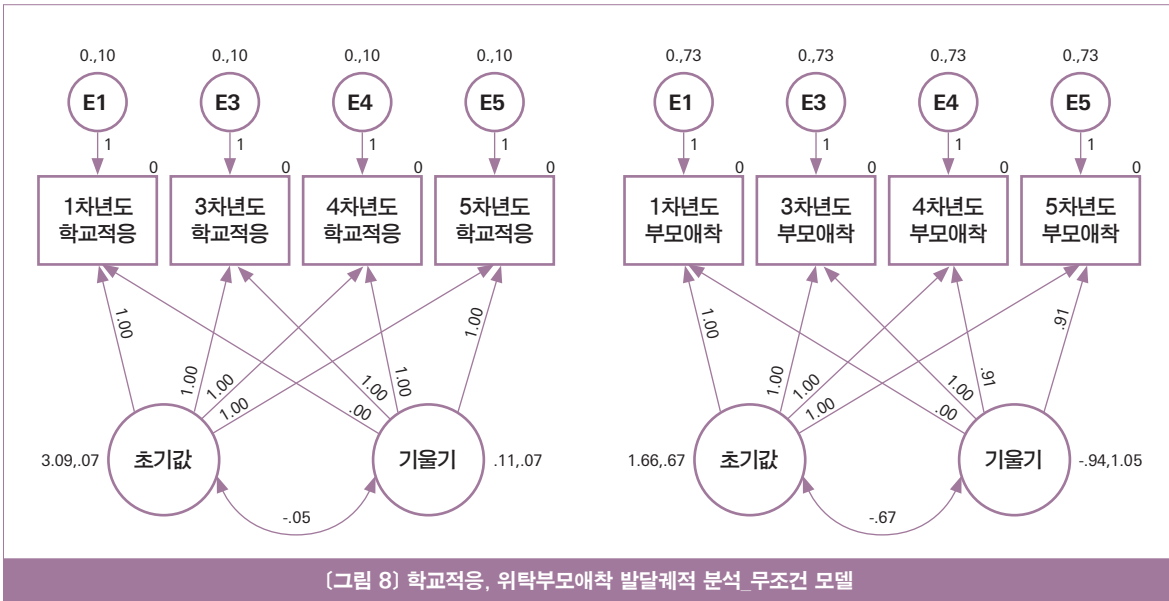
[그림 7]에 나타난 양육태도의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5가지 변화모형을 설정 후 각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자유모수변화모형 중에서 제4모형(0,1,\*,\*)이 NFI가 0.744, TLI는 0.843, CFI가 0.890으로 대체로 모형적합에 문제가 없었으며 RMSEA 또한 0.056로 모형적합기준에 적절한 모형이었다. 이 외에도 제2모형도 모형적합기준에 부합하였으나, [그림 7]의 그래프와 동시에 고려할 때 제4모형이 진정한 변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표 22〉 위탁부모애착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위탁부모 애착	변화율 요인계수	$\chi^2$	NFI	TLI	CFI	RM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제1모형	0,0,1,1	80.857	-1.009	-2.012	.000	.245	2.120***, .067***	.359***, .085***
제2모형	0,1,1,1	11.591	.712	.852	.881	.054	1.665***, .098***	.892***, .119***
제3모형	0,1,2,*	50.325	-.251	-1.047	.000	.202	1.814***, .087***	.463***, .068***
제4모형	0,1,*,*	10.319	.744	.843	.890	.056	1.664***, .097***	.944***, .131***
제5모형	0,1,2,3	69.214	-.720	-1.530	.000	.224	1.942***, .080***	.257***, .046***

\*\*\* p<.001

긍정적 발달성과를 나타내는 학교적응, 위탁부모애착의 변화에 대한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조건 모델을 설정하였다. 학교적응의 무조건 모델은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초기치에 비해 비슷하게 증가하는 모형으로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1, 1로 고정하였다. 위탁부모애착은 3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4차년도와 5차년도에 자유롭게 변하는 모형으로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 \*로 지정하였다.



〈표 23〉과 같이 학교적응의 초기치 평균은 3.086( $p < .001$ )이고 변량은 0.034( $p < .001$ )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탁아동의 학교적응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해에 위탁아동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 평균은 0.115( $p < .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학교적응 정도가 위탁된 지 1년 후에 0.115 만큼 증가하여 그 이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학교적응이라는 긍정적 발달성과를 유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화율의 변량은 0.038( $p < .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위탁아동에 따라 학교적응의 변화율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이후 개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부모애착의 초기치 평균은 1.664(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변량도 0.097(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탁되기 전 친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에서 위탁아동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 평균은 0.944(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탁아동이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보다 위탁된 지 1년 간 위탁부모와 생활하면서 형성된 위탁부모애착이 0.994만큼 증가되었으며, 이후에 다소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변량은 0.131(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위탁아동에 따라 위탁부모애착의 변화율이 1차년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적응과 위탁부모애착을 예측하는 추정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text{차년도 학교적응} &= 3.086 + 0.115 \times 0 = 3.086 + \text{오차항} \\ 3\text{차년도 학교적응} &= 3.086 + 0.115 \times 1 = 3.201 + \text{오차항} \\ 4\text{차년도 학교적응} &= 3.086 + 0.115 \times 1 = 3.201 + \text{오차항} \\ 5\text{차년도 학교적응} &= 3.086 + 0.115 \times 1 = 3.201 + \text{오차항} \end{aligned}$$

$$\begin{aligned} 1\text{차년도 위탁부모애착} &= 1.664 + 0.944 \times 0 = 1.664 + \text{오차항} \\ 3\text{차년도 위탁부모애착} &= 1.664 + 0.944 \times 1 = 2.607 + \text{오차항} \\ 4\text{차년도 위탁부모애착} &= 1.664 + 0.944 \times 0.91 = 2.523 + \text{오차항} \\ 5\text{차년도 위탁부모애착} &= 1.664 + 0.944 \times 0.91 = 2.523 + \text{오차항} \end{aligned}$$

〈표 23〉 학교적응, 위탁부모애착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변화율 요인 계수	$\chi^2$	NFI	TLI	CFI	RM 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학교적응	0,1,1,1	6.700	.841	1.050	1.000	.000	3.086***, .034***	.115**, .038**
위탁부모애착	0,1,*,*	10.319	.744	.843	.890	.056	1.664***, .097***	.944***, .131***

\*\* p&lt;.01, \*\*\* p&lt;.001

위탁아동의 긍정적 발달성과의 위탁부모애착에서 조사년차( $F=10.500$ ,  $p<.001$ )의 값이 유의하므로 설문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위탁아동이 위탁되기 전 친부모에 대한 부모애착정도과 위탁가정에서 생활과 시간을 공유해 감에 따라 형성된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의 변화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사년차와 위탁유형 간 상호작용( $F=0.875$ ,  $p<.001$ )의 값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위탁유형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단( $F=4.985$ ,  $p<.01$ )의 값은 유의하였으므로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위탁에 따라 위탁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위탁 후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의 변화양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에서는 모든 값에서 유의하지 않아 위탁유형 및 조사시기별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조사년차와 위탁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아동의 긍정적 발달성과에 대한 위탁유형과 조사년차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요 인	SS	df	MS	F
학교 적응	개체간	집단	.189	2	.094	.354
		오차	25.343	95	.267	
	개체내	조사년차	.850	3	.283	2.351
		조사년차*위탁유형	.373	6	.062	.517
		오차	34.329	285	.120	
위탁 부모 애착	개체간	집단	16.888	2	8.444	4.985**
		오차	162.619	96	1.694	
	개체내	조사년차	32.512	2.609	12.461	10.500***
		조사년차*위탁유형	5.418	5.218	1.038	.875
		오차	297.239	250.482	1.187	

\*\* p&lt;.01, \*\*\* p&lt;.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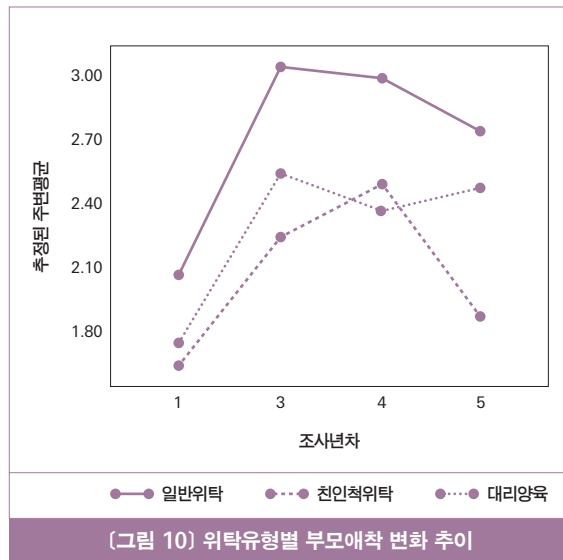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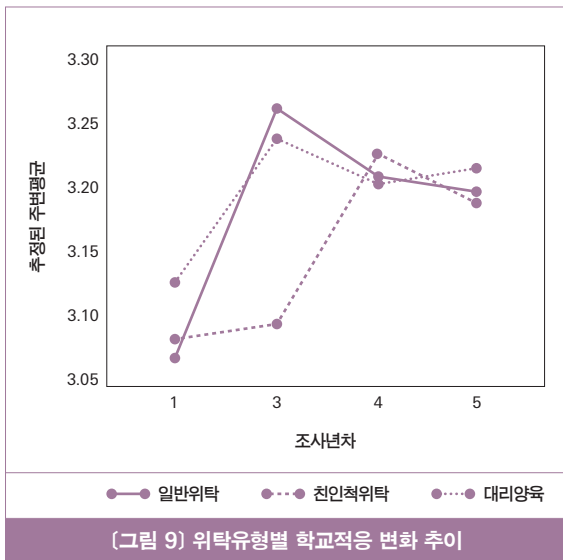
조사시기별로 일반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 아동의 긍정적 발달성과를 프로파일로 나타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3개 위탁유형의 학교적응과 위탁부모애착 모두에서 변화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정위탁유형과 조사년차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위탁된 유형에 따라서 학교적응과 위탁부모애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위탁의 경우 위탁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1년 간 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에 대해 형성된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탁아동의 학교적응은 위탁부모애착의 변화양상과 비슷하였으나 위탁된 해와 1년 후의 증가정도가 다른 위탁유형과 상대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일반위탁가정에서의 위탁부모애착이 친인척 및 대리양육 위탁가정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낸다는 점은 위탁아동이 인지한 양육태도의 평균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친인척 위탁가정은 학교적응에서 위탁된 해로부터 2년 간 증가하다가 위탁 3년차인 5차년도에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특히 학교적응에서 다른 위탁유형과는 다르게 위탁된 1년 후 까지 정체되었다가 이후에 눈에 띄는 증가양상을 보였다. 이는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프로파일인 [그림 9]와 [그림 10]에서 위탁된 지 1년간의 변화양상에서 친인척 위탁아동이 자신의 친부모가 제공했던 양육환경보다 위탁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위탁부모애착의 경우에도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부모와의 애착에 비해 위탁배치 후 2년간 증가하다가 위탁 3년차인 5차년도에 갑자기 감소하는 경향은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프로파일[그림 10]과 비교할 때 친인척 위탁가정의 양육태도와 학대의 변화양상이 안정적이지 않게 나타났던 점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혈연관계인 친족위탁 유형 간에도 전혀 다른 결과와 변화추이를 보이는 점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아동이 위탁된 후 학교적응을 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증가하여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위탁부모애착에서도 친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위탁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는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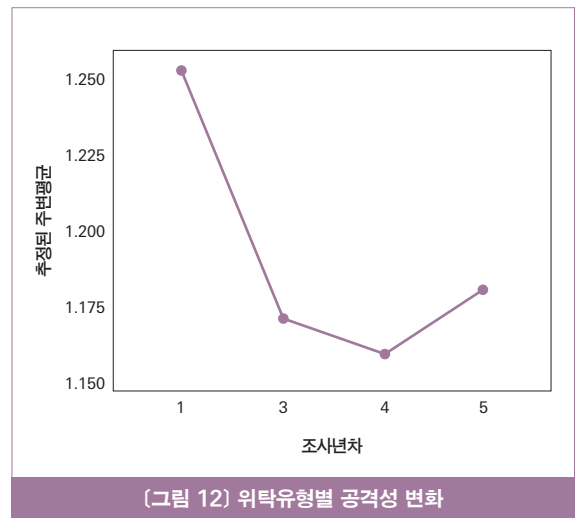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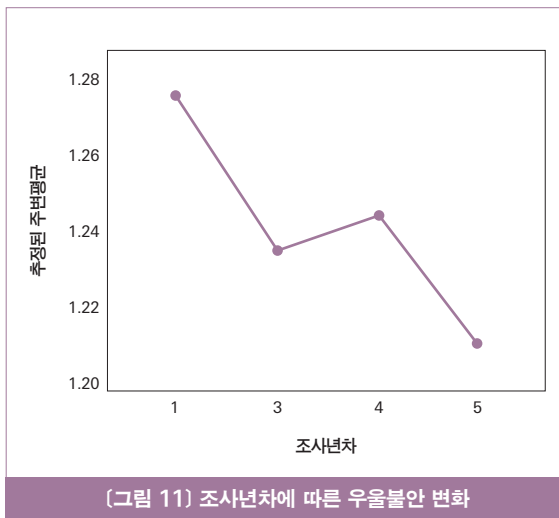


### ③ 부정적 발달 산물\_우울불안, 공격성

위탁아동의 부정적 발달산물의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림 11]와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위탁아동의 우울불안은 위탁이 된 해인 1차년도부터 3년이 지난 5차년도까지 대체로 감소되어 온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3차년도와 4차년도 사이에 우울불안이 다소 증가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선형변화모형 또는 자유모수변화모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탁아동의 공격성의 경우는 위탁아동들이 위탁배치된 때부터 2년 후인 4차년도까지 감소되어 왔으나 위탁 3년차인 5차년도에 다시 증가한 형태로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모수변화모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에 나타난 우울불안의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선형변화모형인 제1모형(0,0,1,1), 제2모형(0,1,1,1), 제5모형(0,1,2,3)과 자유모수변화모형인 제3모형(0,1,2,\*), 제4모형(0,1,\*,\*)의 5가지 변화모형을 설정 후 각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에서 평균의 변화가 전제되었으므로 무변화모형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선형변화모형 중에서 제5모형(0,1,2,3)이 NFI가 0.750, TLI는 0.835, CFI가 0.868으로 대체로 0.9에 근접하여 모형적합에 적절했으며 RMSEA 또한 0.071로 모형적합기준에 양호한 모형이었다. 이 외에도 제2모형, 제3모형, 제4모형도 모형적합기준에 부합하였으나, [그림 11]의 그래프와 동시에 고려할 때 제5모형이 진정한 변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표 25〉 우울불안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우울불안	변화율 요인계수	$\chi^2$	NFI	TLI	CFI	RM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제1모형	0,0,1,1	19.704	.650	.684	.747	.098	1.258***, .017***	-.040, .023
제2모형	0,1,1,1	7.408	.868	1.016	1.000	.000	1.279***, .023***	-.056, .028
제3모형	0,1,2,*	11.181	.802	.871	.910	.063	1.275***, .020***	-.031*, .015*
제4모형	0,1,*,*	5.803	.897	1.037	1.000	.000	1.280***, .022***	-.050, .026
제5모형	0,1,2,3	14.103	.750	.835	.868	.071	1.272***, .019***	-.025*, .011*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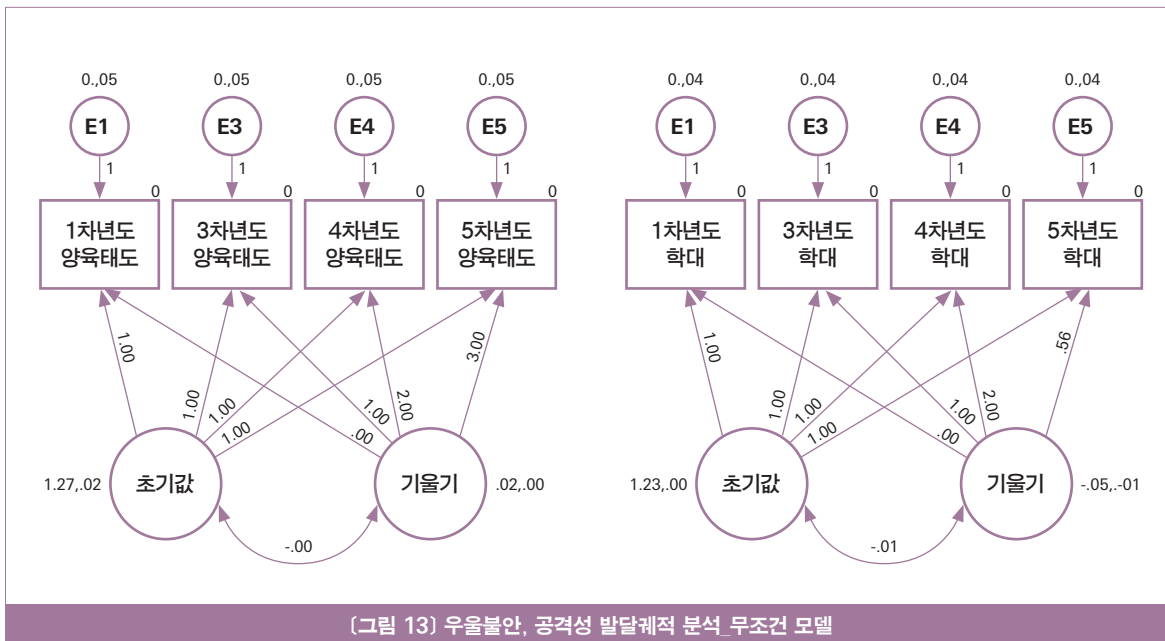
[그림 12]에 나타난 양육태도의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5가지 변화모형을 설정 후 각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자유모수변화모형 중에서 제3모형(0,1,2,\*)이 NFI가 0.739, TLI는 0.786, CFI가 0.850으로 대체로 모형적합에 문제가 없었으며 RMSEA 또한 0.075로 모형적합기준에 양호한 모형이었다. 그러므로 [그림 12]의 그래프와 동시에 고려할 때 제3모형이 진정한 변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표 26〉 공격성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공격성	변화율 요인계수	$\chi^2$	NFI	TLI	CFI	RM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제1모형	0,0,1,1	23.103	.535	.524	.620	.111	1.212***, .014***	-.052**, .019**
제2모형	0,1,1,1	17.369	.651	.705	.764	.088	1.247***, .018***	-.083***, .019***
제3모형	0,1,2,*	12.949	.739	.786	.850	.075	1.229***, .015***	-.047***, .010***
제4모형	0,1,*,*	16.008	.678	.676	.773	.092	1.244***, .018***	-.063**, .022**
제5모형	0,1,2,3	18.754	.623	.661	.729	.094	1.226***, .016***	-.028**, .009**

\*\* p<.01, \*\*\* p<.001

부정적 발달성과를 나타내는 우울불안, 공격성의 변화에 대한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조건 모델을 설정하였다. 우울불안의 무조건 모델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선형 변화모형으로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2, 3으로 고정하였다. 공격성은 4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5차년도에 자유롭게 변하는 모형으로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2, \*로 지정하였다.



〈그림 13〉 우울불안, 공격성 발달궤적 분석 무조건 모델

〈표 27〉와 같이 우울불안의 초기치 평균은 1.272(p<.001)이고 변량은 0.019(p<.001)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탁아동이 위탁된 해에 느낀 우울불안에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율 평균은 -0.025(p<.05)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우울·불안이 위탁배치 된 이래로 해마다 0.025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화율의 변량은 0.011(p<.05)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위탁아동에 따라 우울불안의 변화율이 1차년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격성의 초기치 평균은 1.229(p<.001)이고 변량은 0.015(p<.001)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격성은 아동이 위탁된 초기에 위탁아동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 평균은

-0.047(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탁아동이 위탁된 후 2년 동안 공격성이 해마다 0.047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위탁 3년차인 5차년도에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화율의 변량은 0.010(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위탁아동에 따라 공격성의 변화율이 1차년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울불안과 공격성을 예측하는 추정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1\text{차년도 우울불안} = 1.272 - 0.025 \times 0 = 1.272 + \text{오차항}$$

$$3\text{차년도 우울불안} = 1.272 - 0.025 \times 1 = 1.248 + \text{오차항}$$

$$4\text{차년도 우울불안} = 1.272 - 0.025 \times 2 = 1.223 + \text{오차항}$$

$$5\text{차년도 우울불안} = 1.272 - 0.025 \times 3 = 1.198 + \text{오차항}$$

$$1\text{차년도 공격성} = 1.229 - 0.047 \times 0 = 1.229 + \text{오차항}$$

$$3\text{차년도 공격성} = 1.229 - 0.047 \times 1 = 1.182 + \text{오차항}$$

$$4\text{차년도 공격성} = 1.229 - 0.047 \times 2 = 1.135 + \text{오차항}$$

$$5\text{차년도 공격성} = 1.229 - 0.047 \times 0.56 = 1.203 + \text{오차항}$$

〈표 27〉 우울불안, 공격성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평균/분산

	변화율 요인계수	$\chi^2$	NFI	TLI	CFI	RM SEA	초기치 평균, 분산	변화율 평균, 분산
우울불안	0,1,2,3	14.103	.750	.835	.868	.071	1.272***, .019***	-.025*, .011*
공격성	0,1,2,*	12.949	.739	.786	.850	.075	1.229***, .015***	-.047***, .010***

\* p<.05, \*\*\* p<.001

위탁아동의 부정적 발달산물의 공격성에서 조사년차(F=4.103, p<.01)의 값이 유의하므로 설문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위탁아동의 공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위탁배치된 이후 위탁양육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탁아동의 공격성 평균변화추이가 유의하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조사년차와 위탁유형 간 상호작용(F=0.442, p<.05)의 값도 유의하므로 위탁유형별 위탁아동의 공격성 변화양상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냈다. 이는 위탁아동의 공격성 변화양상에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시간과 동시에 아동이 배치된 위탁유형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에 따라 위탁시간이 지날수록 위탁아동의 공격성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울불안에서는 모든 값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위탁유형 및 조사시기별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조사년차와 위탁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아동의 부정적 발달성과에 대한 위탁유형과 조사년차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요인		SS	df	MS	F	
우울 불안	개체간	집단	.215	2	.108	.740
		오차	13.972	96	.146	
	개체내	조사년차	.045	3	.015	.260
		조사년차*위탁유형	.379	6	.063	1.102
		오차	16.491	288	.057	
공격성	개체간	집단	.105	2	.052	.575
		오차	8.750	96	.091	
	개체내	조사년차	.422	3	.141	4.103**
		조사년차*위탁유형	.091	6	.015	.442*
		오차	9.883	288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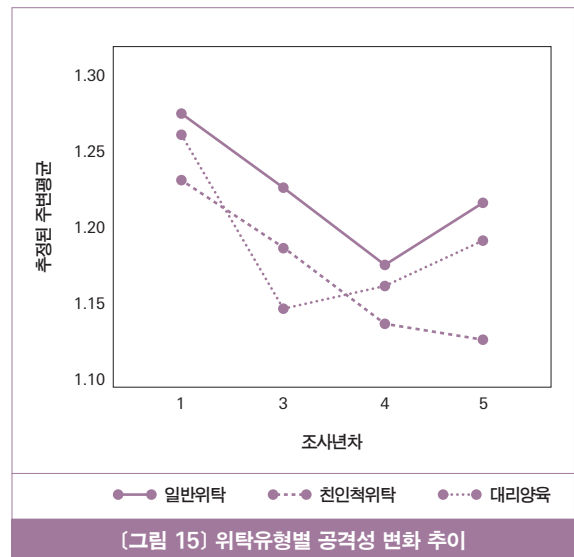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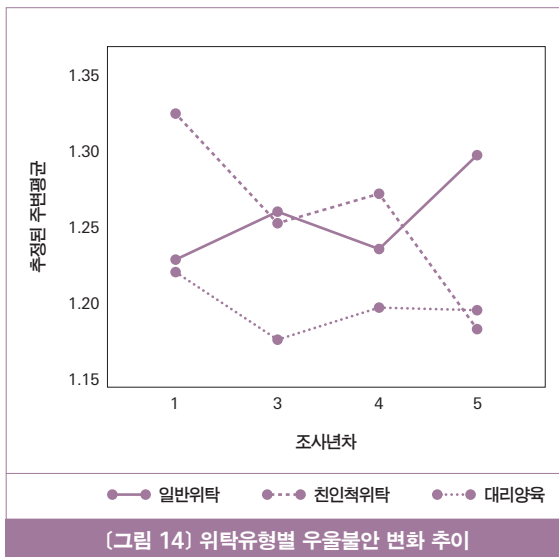
\* p<.05, \*\* p<.01

조사시기별로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아동의 부정적 발달산물을 프로파일로 나타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3개 위탁유형의 우울·불안과 공격성 모두에서 변화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정위탁유형과 조사년차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위탁된 유형에 따라서 우울·불안과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위탁의 경우 위탁아동이 느끼는 우울·불안 정도의 증감이 불안정하게 나타났고 위탁배치 후 3년차인 5차년도에 가장 우울·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위탁배치 된 후 2년동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평균의 변화를 보였다. 특이할 점은 일반위탁아동들이 양육환경(양육태도, 학대)을 긍정적으로 인지하였고, 긍정적 발달성과(학교적응, 위탁부모애착)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울·불안 평균은 대체로 증가하여 5차년도에 다른 위탁유형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공격성에서는 모든 조사시기에서 다른 위탁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친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을 높게 한 아동들이 일반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는 점과 일반위탁아동이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 아동에 비해 환경적인 변화를 심하게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친인척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서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우울·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다소 불안정하고 공격성의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의 공격성에서 위탁배치 후 2년 간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우울·불안의 경우는 감소폭이 가장 크고 대체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다. 이는 위탁아동들이 인지한 양육환경(양육태도, 학대)과 긍정적 발달성과(학교적응, 위탁부모애착)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추이를 보였던 점과 대리양육의 특성상 보다 친숙한 양육환경과 위탁부모의 돌봄 환경과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본다.



## 5. 결론

### 1)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가정위탁 아동패널연구 2기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위탁 유형별 친가정환경의 차이와 친가정복귀 및 배치변경의 차이, 장기적인 양육환경과 발달성과의 차이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즉, 위탁아동이 위탁가정 속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양육환경을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와 동시에 긍정적·부정적인 발달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배치 시 가정위탁 유형별 친가정 환경의 차이

1차년도 조사 시기는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시기이며, 이 때 친부모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 유형별로 친부모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몇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생활사건은 부모님의 교도소 수감 경험, 부모님의 장기입원, 부모님간의 가정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친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과 친부모의 장기 입원 경험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부모님간의 가정폭력 경험의 경우는 일반위탁가정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의 장기부재로 인해 친인척과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지는 특징을 보여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탁 필요 시 일반위탁 배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친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일반위탁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학대를 더 자주 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는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학대경험이 친인척 위탁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정위탁 유형별 배치유형 변경 및 친가정복귀 성과의 차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가정위탁유형에 따른 배치유형변경 및 친가정복귀의 차이를  $\chi^2$ 검정으로 살펴보았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에서 위탁종결이나 시설입소 등으로 배치가 변경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종결, 시설입소, 친가정복귀 등의 변동사항이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장기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3) 횡단적 분석: 가정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및 위탁아동의 장기적 발달성과의 차이

가정위탁의 유형별로 양육환경과 위탁아동의 발달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배치 후 5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각 년도 별 횡단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년도에서는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에 있어서 위탁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순이었다.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은 대리양육 위탁가정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이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학교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은 다른 위탁유형의 아동보다 위탁부모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학교적응수준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아동 또한 일반위탁가정의 아동과 학교적응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에서는 위탁부모와의 애착수준에 있어서 위탁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에서는 3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위탁유형별로 위탁부모와의 애착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애착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친인척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애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위탁유형별 발달성과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가정위탁에 배치될 시기인 1차년도에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상태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은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인 2차년도에 새로운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동시에 학교적응수준도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차년도에는 다른 위탁유형의 아동보다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높았으며 4차년도에는 유형별 차이가 없었으나 5차년도에도 여전히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이 위탁부모와의 애착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지되었다.

### (4) 종단적 분석: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변화 추이

양육태도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이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위탁배치 전 친부모의 양육태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그 변화율은 위탁된 후 2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위탁 3년차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대의 경우, 위탁배치 전 친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에서 위탁아동 간 개인적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위탁배치 이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는 학대에서 위탁배치 전 친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와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위탁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의 정도가 1년의 간격을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면서 값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위탁아동이 인지한 학대정도의 차이가 있고 변화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양육태도는 위탁아동 간에 차이와 성장변화율에 있어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위탁유형 및 조사시기별 차이가 나지 않고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태도는 위탁아동별로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위탁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학대는 위탁아동 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위탁유형별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 (5) 종단적 분석: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긍정적 발달성과 변화 추이

위탁아동의 긍정적 발달성과 중 학교적응은 위탁된 지 1년 후에 증가하여 그 이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학교적응이라는 긍정적 발달성과를 유지했다.

부모애착에서는 위탁 전 위탁아동 친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보다 위탁된 지 1년 간 위탁부모와 생활하면서 형성된 위탁부모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위탁아동이 위탁되기 전 친부모에 대한 부모애착도와 위탁가정에서 생활과 시간을 공유해 감에 따라 형성된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의 변화에서 의미 있게 증가하면서 값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위탁에 따라 위탁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위탁 후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위탁아동 간에 차이와 성장변화율에 있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위탁유형 및 조사시기별 차이가 나지 않고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은 위탁아동별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위탁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탁부모애착은 조사시점별로 위탁아동 간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위탁유형별, 조사시기별 위탁부모애착에 대한 유의한 차이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탁유형별로 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종단적 분석: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부정적 발달산물 변화 추이

위탁아동의 부정적 발달산물 중 우울불안은 위탁배치 된 이래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공격성은 위탁아동이 위탁된 후 2년 동안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위탁 3년차에 다소 증가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는 아동이 위탁배치 된 이후 위탁양육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탁아동의 공격성 평균변화추이가 유의하게 감소하면서 값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위탁유형에 따라 위탁시간이 지날수록 위탁아동의 공격성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울·불안은 위탁유형 및 조사시기별 차이가 나지 않고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아동의 우울불안에서 위탁아동별로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위탁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공격성은 위탁아동 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위탁유형별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7) 가정위탁 유형별 반복측정분산분석의 프로파일 변화양상

반복측정분산분석의 프로파일 변화양상을 살펴보자면,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긍정적·부정적 발달성과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과 상관없이 위탁유형별로 나타나는 평균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탁유형과 조사 시기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록 평균 점수들의 차이 폭이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냈더라도 위탁유형별 프로파일 변화양상에서 위탁유형과 조사시기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유형별로 평균변화양상을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우선, 일반위탁유형의 경우, 아동이 위탁가정의 양육환경 속에서 혈연관계의 위탁유형에 비해 양육태도를 월등히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친부모의 학대정도와 비교하여 위탁배치 후 위탁부모의 학대정도를 인지함에 있어 월등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아동의 학교적응은 위탁된 해에는 가장 낮았으나 1년 후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그 이후로 다른 위탁유형들과 비슷한 평균에 머무르게 된다. 위탁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1년 간 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에 대해 형성된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 다소 감소한다.

무엇보다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위탁부모애착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데, 이는 아동이 인지한 양육태도의 평균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프로파일 변화양상에서 일반위탁아동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최근 바뀐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추후 더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위탁가정에서 제공되었던 양육환경의 질과 상관없이 친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을 높게 한 아동들이 일반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는 점과 일반위탁아동들이 배치 후 환경적 변화를 심하게 겪게 된다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친인척 위탁가정은 일반위탁가정과 반대 양상으로 위탁아동이 인지하는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학대경험에서 위탁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안정한 변화양상을 보이며 위탁된 지 1년간의 변화양상에서 위탁아동이 배치 전 친부모가

제공했던 양육환경보다 위탁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에서 다른 위탁유형과는 다르게 위탁된 1년 후 까지 정체되었다가 이후에 눈에 띄는 증가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이 인지한 양육환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탁부모애착의 경우에도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부모와의 애착에 비해 위탁배치 후 2년간 증가하다가 위탁 3년차에 갑자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울·불안에서 대체로 낮은 평균이 나타나며, 공격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다른 위탁유형들에 비하여 가장 낮아진다. 이는 친인척 위탁가정의 특징으로 위탁아동이 친부모와의 접촉을 위한 기회가 크다는 점과 위탁 배치 시 익숙한 양육환경과 양육자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대체로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에 있어 안정적인 변화추이를 나타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육태도에 있어 아동은 긍정적으로 증가한다고 응답했으며, 학대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 없이 같은 평균대를 유지하였다. 이는 학대의 정도가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지만 평균점수가 낮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태도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인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으로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위탁아동의 학교적응도 아동이 위탁된 후 학교적응을 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증가하여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위탁부모애착에서도 친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위탁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는 변화양상이다. 위탁아동의 공격성은 위탁배치 후 2년 간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우울·불안의 경우는 감소폭이 가장 크고 대체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확대가족의 결속을 피하며,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언급한대로 혈연관계의 위탁유형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탁아동의 지도, 감독이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2) 정책적 실천적 함의

본 연구 결과는 우선 일반위탁아동이 배치되었을 당시에는 아동학대,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애착에 있어 친인척 및 대리양육 위탁아동과 비교해 부정적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배치 시 미국의 경우처럼 양육하기 상대적으로 낫다고 여겨지는 아동들은 친족이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여 친족위탁으로 배치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듯이(Farmer, 2009) 우리나라도 배치 결정에 있어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결과는 친인척위탁유형의 경우 아동이 친부모보다 더 위탁부모의 학대를 높게 인지하였으며 양육태도는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점이다. 대리위탁부모의 경우는 학대 피해 경험이 친부모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더군다나 경제상황이나 주거환경이 친인척위탁 또한 대리양육위탁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과연 친부모에게서 분리된 아동이 더 나은 양육환경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 결과의 중요한 함의는 아동이 가정위탁에 배치 후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일반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성과가 친인척 및 대리양육 위탁아동과 같은 친족위탁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 연구결과는 아동의 배치 시부터 5년에 걸친 장기적 추적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2년 간의 발달성과를 가정위탁 유형 간 비교한 다른 종단적 비교연구(Kang et al., 2013)에서도 대체로 일반위탁아동이 친족위탁아동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 결과를 보인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일반위탁아동이 더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 후 몇 년 후에는 더 긍정적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추측할 수 있는 이유로는 위탁유형 중 6~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일반위탁아동에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나 서비스가 집중되는 현실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이 워낙 열악하여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위탁아동이 배치 후 비교적 초기에는 긍정적 발달성과의 변화율이 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변화가 둔화되며, 5년 차 들어서는 우울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즉 위탁가정에서의 애착관계와 안정된 양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강화

각 센터의 상담원 숫자는 2003년 처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개소 때 60여명에서 2012년 기준으로 85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각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기관장 1인과 상담원 6인 이상을 거의 확보하게 되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 그러나 여전히 센터 수는 2003년 처음 개소 때부터 전국 17개로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담당 사례나 업무는 과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은 미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학계와 현장에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으며,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가능)으로 최소 1년부터 최대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보호하며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례관리 강화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센터 수의 증설 및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다. 특히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면적 및 아동인구수 대비하여 센터를 추가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배치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열악한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제도 하에서는 위탁아동의 경우 생계비 수급여부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를 적용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친족은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리양육위탁부모나 성인 형제가 위탁부모로 책정된 친인척 위탁가정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생계비를 삭감하거나 생계비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가정위탁보호 결정하지 않고 부양의무자가 양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 제도는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을 오히려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양육비 지급은 위탁아동의 친가정복귀에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탁아동은 친가정 복귀를 위해 친부모의 경제활동과 위탁아동과의 주기적인 연락 또는 만남이 필요한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아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수급자 및 위탁보호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실질적인 친가정과 단절을 지원 조건으로 내세워 친가정 유대강화 및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한 양육비 지급이 아니라 위탁가정을 위한 별도의 양육비 지급 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위탁아동의 연령, 발달특성, 욕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차등화 된 양육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이러한 양육지원제도가 마련되면 위탁책임 관련한 업무체계 및 담당인력을 친족위탁과 일반위탁을 분리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배치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에 대한 선정기준 강화

본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들(노총래 외, 2007; 정익중, 권지성 2012)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열악한 양육환경과 부모역할의 미비에 대해 우려할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현재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은 소득수준, 나이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위탁부모 자체가 수급자인 경우도 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 201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는 일반인과 친인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탁가정 선정기준이 최소한으로나마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 위탁아동을 돌봄에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을 것,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할 것 등이다. 그러나 2012년 「아동복지법」개정 이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 선정기준이 없어서 최근 선정기준을 놓고 일선 지자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위탁아동의 욕구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에 배치될 수 있도록 위탁아동 연령별 위험사정도구, 친부모 위험사정도구, 위탁부모(가정) 양육적합성 사정도구 등 여러종류의 사정척도도 개발되어 현재 가정위탁 매뉴얼에도 그 척도가 반영되어있으나 실제 일선공무원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무조건적으로 우선 위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조부모나 친인척의 양육환경 및 여건, 양육의지를 세밀하게 사정하고 아동의 특성이나 욕구와의 매칭도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3) 위탁아동을 위한 전문적 치료서비스의 필요성

본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탁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위탁아동들은 친가정에서 학대나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의 심리적 상처를 이미 경험하였다. 따라서 가정위탁아동들의 긍정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를 통해서도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기준으로 임상심리전문인력이 실제로 배치된 센터는 17개 지역센터 중 4개(부산, 인천, 경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비가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이내, 교통비 월 2만원 이내로 정부 지원안이 마련되어는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산간 지역은 심리치료기관 자체의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각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접근성 및 심리치료기관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의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심리치료의 전문적 경험과 기술을 갖춘 위탁부모를 발굴하여 그들에게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전문위탁가정의 도입도 필요하다.

# 2014

##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 Ⅲ. 위탁아동과 양육자 간 응답 일치율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 Ⅲ. 위탁아동과 양육자 간 응답 일치율

### 1. 문제제기 및 이론적 고찰

가정위탁보호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친가정과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적응을 돕고,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는 2000년부터 가정위탁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공식화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하도록 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아동 수가 2003년 7,565명에서 2013년 14,58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우리나라의 위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위탁아동 수는 14,584명이며 그 중 대리양육 9,829명(67.4%), 친인척위탁 3,803명(26.1%), 일반위탁 952명(6.53%)으로 대부분 친족에 의한 위탁보호가 주를 이룬다. 연령별로는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17-19세의 비율이 각각 38.9%, 43.4%로 가장 높고,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14-16세의 비율이 26.0%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위탁 보호사유는 부모의 이혼이 31.8%로 가장 높고, 별거/가출이 28.8%, 부 또는 모의 사망이 25.6%로 집계되었으며, 그 외에 부모 모두 사망(4.4%), 부모 수감(2.2%), 미혼모(부)/혼외출생(1.9%), 부모질병(1.5%), 실직·빈곤(1.3%)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이 가정위탁보호의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종결사유는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친가정 복귀(21.2%), 위탁가정의 환경변화(5.8%), 위탁아동의 문제행동(1.6%),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1.1%) 등의 사유가 존재하였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4).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발달과정 중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경험하고, 동시에 원가족과의 분리 등의 낮은 환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정위탁의 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높은 정서·행동문제와 낮은 심리사회적 적응의 경향을 보인다(김경민·정익중, 2009). 하지만 위탁부모의 애정과 헌신적인 양육태도는 위탁아동의 불안정한 상태를 완화시켜주고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Altshuler, 2003; Harden, 2004). 가정위탁보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여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최선의 이익은 아동이 친부모 아래에서 양육되는 것을 포함하며,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상황에는 국가가 아동을 위해 가장 최선의 양육방법에 대하여 모색할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따라서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위험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정위탁의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가정위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정서·사회적 문제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최은희·윤혜미, 2014; 정익중·권지성, 2012; 강현아·노충래·전종설·정익중, 2012; 허남순, 2004; 김민정, 2008),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연구(고민정·이경숙·김윤미·최인애, 2013),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들에 대한 연구(권지성·정익중, 2014; 변숙영, 2013), 위탁가정의 어려움 및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장윤영, 2014; 김민정, 2010; 노충래·박근혜·서지원, 2009) 등과 같이 주로 위탁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위탁아동 또는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많은 양적 설문지를 통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 외 보호 형태의 양육에 있어 아동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동에 의한 자기보고식 응답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지만, 양육자나 사회복지사에 의한 대리보고식 응답, 또는 행정상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Leathers, 2003; Palmer, 1996; Wulczyn, Kogan, & Harden, 2003). 따라서 아동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가정위탁의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기보고식 응답과 위탁부모의 대리보고식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대리응답이 얼마나 자기보고식 응답을 대신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자기보고식 응답과 양육자에 의한 대리보고식 응답의 일치율과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은 대부분 건강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연구(Lin, Cheng, Yang, Su, & Ma, 2013; Agnihotri, Awasthi, Singh, Chandra, & Thankur, 2010; Davis, Nicolas, Waters, Cook, Gibbs, Gosch, & Ravens-Sieerer, 2007), 듀켄씨 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을 앓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Lim, Velozo, & Bendixen, 2014), ADHD아동의 삶에 질에 관한 연구(Marques, Oliveira, Goulardins, Nascimento, Lima, & Casella, 2013), 암에 걸린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Chang & Yeh, 2005), 천식을 앓고 있는 아동에 관한 연구(Houle, Joseph, Caldwell, Conrad, Parker, & Clark, 2010),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Majnemer, Shevell, Law, Poulin, & Rosenbaum, 2008),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50세 이상의 환자에 관한 연구(Conner, Conwell, & Duberstein, 2001),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관한 연구(Demissie et al., 2001) 등과 같이 질병과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의 삶의 질에 관련된 아동과 부모의 응답 일치율에 관한 최근 실증연구(Lim et al., 2014; Lin et al., 2013; Marques et al., 2013)에서는 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성 등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응답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치료법과 케어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DMD를 앓고 있는 아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의 경우 아동과 부모의 응답이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심리사회적 건강은 보통수준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아동에 비해 부모는 아동의 삶의 질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Lim et al., 2014). Lin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신체, 정서, 심리사회, 학교생활 등에 대해서는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사회성과 관련하여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 연구 역시 부모는 아동에 비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 보통(Moderate)에 해당하는 0.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모의 점수가 아동의 점수를 25%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응답이 아동의 응답을 대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응답 일치율에 대한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근 실증연구(Hwang & Lee, 2013)에서는 가정 외 보호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과거 배치이력, 서비스 이용과 욕구, 아동의 정서적 문제, 지역사회 안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아동과 양육자의 응답 일치율과 신뢰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체로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경험들에 대해서는 아동과 양육자 간 응답이 높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일치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동의 경우 양육자와 비교하여 정서적 문제에 대한 응답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친사회적 행동 수준에 대한 응답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아동을 조사할 때, 객관적인 경험·생각 등에 대한 측정은 보호자의 대리 응답이 가능하지만, 아동의 주관적인 정서·행동적 문제들은 부모 또는 양육자의 대리 보고가 부정확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정위탁과 관련된 아동-양육자 간 보고의 일치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대리보고식 응답이 얼마나 자기보고식 응답을 추측하고, 대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기보고와 양육자의 대리보고 간 일치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가정위탁아동 패널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문제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위탁아동의 응답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응답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양육자와 아동 응답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의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의 친부모와 아동의 응답,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응답,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위탁부모의 응답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응답 일치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양육자의 보고가 얼마나 아동의 보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이에 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심리사회적 적응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오경자 등(1998)이 수정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Youth Self Report)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위축 9문항, 우울·불안 13문항, 비행 12문항, 공격성 19문항이며, 모두 Likert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1차 자료의 친부모의 경우 위축 .887, 우울·불안 .812, 비행 .876, 공격성 .695이며, 1차 자료의 아동의 위축 .802, 우울·불안 .741, 비행 .695, 공격성 .808로 나타났다. 2차 자료의 위탁부모의 경우 위축 .819, 우울·불안 .675, 비행 .723, 공격성 .821이며, 2차 자료의 아동의 위축 .613, 우울·불안 .843, 비행 .622, 공격성 .799로 나타났다.

#### (2) 학교생활

아동의 학교생활은 학교적응과 학업성적으로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을 즐거워한다',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수업태도가 좋은편이다' 등의 7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성적은 학교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못함', '보통이하', '보통', '보통이상', '아주잘함'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Cronbach's  $\alpha$ 는 1차 자료의 친부모의 경우 .685, 아동의 경우 .582로 나타났다.

#### (3)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조사되었다. 하나는 이종승·오성심(1982)이 제작한 양육태도 40문항과, 부모감독·애착은 부모유대관계척도(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중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두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1차 자료의 친부모의 경우 양육태도는 .895, 감독·애착은 .950, 1차 아동의 경우 양육태도 .869, 감독·애착 .904로 나타났다. 2차 자료의 위탁부모의 경우 양육태도는 .871, 감독·애착은 .859, 1차 아동의 경우 양육태도 .876, 감독·애착 .892로 나타났다.

### 2) 분석방법

아동응답과 양육자의 대리 응답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의 우울·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 학교적응, 학업성적, 부모감독, 애착, 양육태도에 대한 문항을 비교하였다. 이 문항들은 모두 연속변수이므로 ICC(급내상관계수)값을 이용하여 양육자와 아동 응답의 일치율을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ICC값의 기준은 <표 29>와 같다. Klassen, Miller & Fine(2005)에 따르면 일치율의 수준은 0-0.20은 Poor, 0.21-0.40은 Fair, 0.41-0.60은 Moderate, 0.61-0.80은 Good, 0.81-0.99는 Excellent로 구분한다.

〈표 29〉 ICC 기준

점수	구분
0-0.20	Poor
0.21-0.40	Fair
0.41-0.60	Moderate
0.61-0.80	Good
0.81-0.99	Excellent

※ Klassen, Miller &amp; Fine(2005)

### 3. 연구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30〉과 같다. 1차 조사는 아동과 부모를 분석하였고, 2차 조사는 아동과 위탁부모를 분석하였다.

우선 1차의 경우 아동의 성별은 남자 86명(57.0%), 여자 59명(39.1%)으로 여아보다 남아의 수가 더 많았으며, 보호자의 성별은 남자 46명(30.5%), 여자 81명(53.6%)으로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어머니 28명(18.5%), 아버지 16명(10.6%), 기타 90명(59.6%)이며, 위탁유형은 일반위탁가정 30명(19.9%), 친인척 위탁가정 31명(20.5%), 대리양육 위탁가정 90명(59.6%)으로 나타났다.

2차의 경우 보호자의 성별은 남자 34명(22.5%), 여자 92명(60.9%)이며, 응답자는 위탁어머니 46명(30.5%), 위탁아버지 13명(8.6%), 기타 64명(42.4%)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은 일반위탁가정 30명(19.9%), 친인척 위탁가정 31명(20.5%), 대리양육 위탁가정 90명(59.6%)으로 나타났다.

〈표 30〉 일반적 사항

구분	1차(N=151)		2차(N=151)		
	N	%	N	%	
아동성별	남자	86	57.0	-	-
	여자	59	39.1	-	-
	결측	6	4.0	-	-
보호자성별	남자	46	30.5	34	22.5
	여자	81	53.6	92	60.9
	결측	24	15.9	25	16.6
응답자	어머니	28	18.5	46	30.5
	아버지	16	10.6	13	8.6
	기타	90	59.6	64	42.4
	결측	17	11.3	28	18.5
위탁유형	일반위탁	30	19.9	30	19.9
	친인척위탁	31	20.5	31	20.5
	대리양육위탁	90	59.6	90	59.6

## 2) 친부모와 아동

### (1) 응답 일치율 및 차이분석

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우울·불안의 경우 부모평균 1.29, 아동평균 1.27이며, ICC값은 0.45로 일치율은 보통(moderate)으로 나타났으며, 차이 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752$ ).

위축의 경우에는 부모평균 1.31, 아동평균 1.36이며, ICC값은 0.32로 일치율은 다소 낮은 것(Fair)으로 나타났으며, 차이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490$ ).

비행의 경우에는 부모평균 1.10, 아동평균 1.11이며, ICC값은 0.48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을 보였고, 차이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336$ ).

공격성의 경우에는 부모평균 1.23, 아동평균 1.25이며, ICC값은 0.60으로 일치율은 보통(moderate)으로 나타났으며, 차이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877$ ).

학교적응의 경우 부모평균 2.70, 아동평균 2.72이며, ICC값은 0.26으로 일치율은 다소 낮게(fair) 나타났으며, 차이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513$ ).

학업성적은 부모평균 3.05, 아동평균 2.92이며, ICC값은 0.62로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으며, 차이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839$ ).

부모감독·애착의 경우에는 부모평균 2.77, 아동평균 2.82로 나타났으며, ICC값은 0.41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을 보였고, 차이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728$ ). 감독과 애착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모감독의 경우 ICC값은 0.32로 다소 낮은(fair) 일치율을 보였고, 부모애착은 0.41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을 보였다. 차이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부모평균 2.78, 아동평균 2.77이며, ICC값은 0.48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을 보였고, 차이분석 결과 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40$ ). 양육태도의 네 가지 차원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애정차원의 ICC값은 0.47, 자율 0.10, 성취 0.40, 합리 0.38로 나타나, 자율차원에 대한 응답 일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차이분석에서도 자율의 경우 부모와 아동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90, p<.01$ ).

<표 31> 부모와 아동의 응답 일치율 및 차이(1차)

		평균(SD)		test of differences(t)	test of congruency (ICC)
		부모	아동		
	우울·불안	1.29(.33)	1.27(.26)	.752	.45
	위축	1.31(.32)	1.36(.33)	-1.490	.32
	비행	1.10(.22)	1.11(.16)	-.336	.48
	공격성	1.23(.24)	1.25(.23)	-.877	.60
	학교적응	2.70(.39)	2.72(.36)	-.513	.26
	학업성적	3.05(.96)	2.92(.90)	1.839	.62
부모감독·애착	전체	2.77(.66)	2.82(.62)	-.728	.41
	감독	2.89(.68)	2.85(.67)	.661	.32
	애착	2.74(.73)	2.82(.69)	-1.101	.41
부모양육태도	전체	2.78(.33)	2.77(.33)	.140	.48
	애정	2.86(.46)	2.94(.51)	-1.758	.47
	자율	2.69(.25)	2.59(.27)	3.090**	.10
	성취	2.73(.42)	2.75(.43)	-.608	.40
	합리	2.98(.42)	2.92(.45)	1.334	.38

\*\* $p<.01$



## (2) 위탁유형별 응답 일치율 및 차이분석

위탁유형별 부모와 아동의 응답 일치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우선 응답 일치율을 살펴보면, 우울·불안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의 ICC값이 0.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0.58로 일치율은 모두 보통(moderate)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의 경우에는 일반위탁가정 0.56, 대리양육 위탁가정 0.28, 친인척 위탁가정 0.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위탁가정은 보통(moderate)의 일치율,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다소 낮은(fair) 일치율을 보였다. 비행의 경우에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0.68로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고, 일반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0.26으로 다소 낮게(fair)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에는 친인척 위탁가정이 0.66으로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0.60, 일반위탁가정이 0.56으로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다. 학교적응의 경우에는 친인척 위탁가정 0.37, 대리양육 위탁가정 0.33으로 일치율이 낮게(fair)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일반위탁가정이 0.68,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0.61, 친인척 위탁가정이 0.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고, 친인척 위탁가정은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다.

부모감독·애착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 0.51, 대리양육 위탁가정 0.45로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일반위탁가정은 0.22로 다소 낮게(fair) 나타났다. 부모감독의 경우에는 일반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 모두 다소 낮은(fair) 일치율을 보였으며, 부모애착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은 매우 낮게(ICC=0.08),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moderate)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0.58, 친인척 위탁가정 0.55로 일치율은 보통(moderate)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위탁가정은 0.25로 다소 낮게(fair) 나타났다. 애정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ICC=0.26),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moderate)으로 나타났다. 자율의 경우에는 일반위탁가정은 다소 낮은 일치율을,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매우 낮은 일치율을 보였고, 성취는 일반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다소 낮은 일치율을,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합리차원은 일반위탁가정은 다소 낮게,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와 아동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축에 대하여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부모와 아동의 응답에 차이를 보였고( $t=-2.188, p<.05$ ), 부모는 아동의 위축을 아동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에도 응답에 차이가 있었으며( $t=-2.046, p<.05$ ), 위축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비행을 부모는 아동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양육태도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응답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율의 경우 일반위탁가정( $t=2.514, p<.05$ )과 대리양육 위탁가정( $t=2.081,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 비해 부모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합리의 경우에는 대리양육 위탁가정( $t=2.690,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2) 위탁유형별 부모와 아동의 응답 일치율 및 차이(1차)

	위탁유형	부모		아동		t	ICC	
		M	SD	M	SD			
우울·불안	일반위탁(26)	1.38	.35	1.23	.23	1.769	-.04	
	친인척위탁(26)	1.32	.29	1.31	.33	.213	.59	
	대리양육위탁(78)	1.24	.34	1.26	.25	-.613	.58	
위축	일반위탁(25)	1.37	.36	1.37	.31	.071	.56	
	친인척위탁(28)	1.38	.36	1.34	.26	.550	.25	
	대리양육위탁(80)	1.27	.30	1.37	.36	-2.188*	.28	
비행	일반위탁(25)	1.13	.16	1.15	.10	-.704	.26	
	친인척위탁(28)	1.15	.31	1.06	.10	1.733	.26	
	대리양육위탁(76)	1.08	.19	1.11	.19	-2.046*	.68	
공격성	일반위탁(26)	1.31	.24	1.26	.18	1.215	.56	
	친인척위탁(28)	1.25	.26	1.25	.25	0	.66	
	대리양육위탁(78)	1.20	.24	1.24	.23	-1.786	.60	
학교적응	일반위탁(27)	2.67	.35	2.69	.38	-.201	-.12	
	친인척위탁(27)	2.69	.40	2.72	.41	-.423	.37	
	대리양육위탁(79)	2.71	.40	2.72	.35	-.297	.33	
학업성적	일반위탁(26)	2.85	1.12	2.65	1.13	1.095	.68	
	친인척위탁(26)	3.08	1.02	3.12	.82	-.225	.55	
	대리양육위탁(78)	3.10	.89	2.94	.83	1.929	.61	
부모감독· 애착	전체	일반위탁(25)	2.61	.68	2.86	.71	-1.475	.22
		친인척위탁(26)	2.85	.76	2.88	.71	-.242	.51
		대리양육위탁(75)	2.80	.61	2.78	.56	.300	.45
	감독	일반위탁(26)	2.80	.73	2.82	.75	-.110	.28
		친인척위탁(27)	2.91	.78	2.87	.79	.206	.29
		대리양육위탁(80)	2.92	.63	2.85	.61	.875	.36
	애착	일반위탁(25)	2.51	.73	2.87	.78	-1.768	.08
		친인척위탁(27)	2.82	.76	2.93	.74	-.860	.60
		대리양육위탁(78)	2.79	.71	2.76	.65	.381	.48
부모양육 태도	전체	일반위탁(19)	2.65	.41	2.73	.44	-.633	.25
		친인척위탁(22)	2.85	.31	2.86	.33	-.052	.55
		대리양육위탁(61)	2.79	.30	2.76	.29	.927	.58
	애정	일반위탁(26)	2.74	.58	2.90	.58	-1.165	.26
		친인척위탁(24)	2.94	.44	3.08	.52	-1.454	.54
		대리양육위탁(73)	2.87	.42	2.90	.48	-.635	.56
	자율	일반위탁(26)	2.67	.23	2.52	.28	2.514*	.37
		친인척위탁(24)	2.71	.28	2.62	.30	1.017	-.07
		대리양육위탁(72)	2.69	.25	2.60	.25	2.081*	.06
	성취	일반위탁(24)	2.64	.48	2.73	.51	-.788	.34
		친인척위탁(25)	2.83	.42	2.84	.46	-.037	.23
		대리양육위탁(70)	2.72	.40	2.73	.39	-.239	.49
	합리	일반위탁(22)	2.90	.52	2.98	.63	-.546	.26
		친인척위탁(26)	3.03	.43	3.04	.44	-.135	.46
		대리양육위탁(71)	3.00	.38	2.86	.38	2.690**	.45

\*\*p<.01, \*p<.05

## (3) 위탁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다음으로 부모와 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 차이는 <표 33>과 같으며, 부모와 아동 모두 각 항목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3&gt; 부모와 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 차이

	위탁유형	부모			아동			
		N	M	SD	N	M	SD	
우울·불안	일반위탁	28	1.37	.34	28	1.23	.22	
	친인척위탁	26	1.32	.29	31	1.30	.32	
	대리양육위탁	79	1.25	.34	88	1.27	.26	
	F		1.501			.479		
위축	일반위탁	27	1.37	.34	28	1.38	.32	
	친인척위탁	29	1.38	.35	30	1.34	.25	
	대리양육위탁	80	1.27	.30	89	1.36	.34	
	F		1.773			.160		
비행	일반위탁	28	1.13	.16	27	1.14	.11	
	친인척위탁	28	1.15	.31	31	1.06	.10	
	대리양육위탁	79	1.08	.19	86	1.11	.18	
	F		1.630			1.891		
공격성	일반위탁	27	1.31	.23	29	1.27	.19	
	친인척위탁	28	1.25	.26	31	1.25	.25	
	대리양육위탁	79	1.20	.24	88	1.24	.22	
	F		2.402			.227		
학교적응	일반위탁	27	2.67	.35	29	2.72	.38	
	친인척위탁	27	2.69	.40	31	2.72	.38	
	대리양육위탁	79	2.71	.40	89	2.73	.37	
	F		.099			.003		
학업성적	일반위탁	28	2.75	1.14	28	2.64	1.10	
	친인척위탁	27	3.07	1.00	30	3.00	.87	
	대리양육위탁	83	3.11	.88	84	2.93	.85	
	F		1.458			.764		
부모감독· 애착	전체	일반위탁	27	2.67	.70	26	2.91	.73
		친인척위탁	28	2.85	.76	31	2.90	.67
		대리양육위탁	79	2.84	.63	84	2.77	.56
		F		.760			.823	
	감독	일반위탁	27	2.81	.72	27	2.86	.77
		친인척위탁	27	2.91	.78	31	2.89	.75
		대리양육위탁	81	2.93	.64	87	2.82	.61
		F		.347			.107	
	애착	일반위탁	27	2.57	.76	26	2.91	.79
		친인척위탁	27	2.82	.76	31	2.91	.70
		대리양육위탁	81	2.81	.71	86	2.74	.65
		F		1.185			1.026	
부모양육 태도	전체	일반위탁	27	2.74	.38	22	2.82	.48
		친인척위탁	26	2.89	.31	27	2.84	.32
		대리양육위탁	71	2.83	.30	73	2.76	.30
		F		1.488			1.340	
	애정	일반위탁	28	2.77	.57	28	2.96	.60
		친인척위탁	26	2.95	.44	29	3.04	.50
		대리양육위탁	76	2.89	.42	84	2.89	.49
		F		1.161			1.001	
	자율	일반위탁	27	2.65	.24	29	2.57	.31
		친인척위탁	26	2.72	.27	29	2.61	.29
		대리양육위탁	77	2.69	.26	84	2.59	.27
		F		.465			.131	
성취	일반위탁	27	2.67	.47	27	2.83	.57	
	친인척위탁	26	2.83	.41	30	2.83	.43	
	대리양육위탁	76	2.74	.40	82	2.75	.39	
	F		1.047			.640		
합리	일반위탁	28	2.91	.46	24	3.02	.63	
	친인척위탁	26	3.04	.42	29	3.02	.42	
	대리양육위탁	76	3.02	.39	81	2.85	.38	
	F		.904			2.278		

#### (4) 소결

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응답과 아동의 응답의 일치율을 살펴본 결과,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응답의 경우 위축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고,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은 모두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낮은 일치율을 보인 반면, 성적은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부모감독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고, 부모애착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양육태도 중 자율치원에 대한 응답 일치율이 매우 낮았으며, 차이분석에서도 부모와 아동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울·불안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으나, 일반위탁가정은 매우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위축은 일반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고,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다. 비행의 경우에는 일반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높은 수준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친인척 위탁가정이 높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고,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는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학교적응의 경우에는 모두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특히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다. 학업성적은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높은 수준, 친인척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부모감독·애착의 경우에는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이었으나, 일반위탁가정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은 일반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 모두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부모애착은 일반위탁가정 매우 낮게,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는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고,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다. 부모양육태도 중 애정치원은 일반위탁가정에서 낮은 수준이었으며, 자율치원은 일반위탁가정은 낮은 수준,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매우 낮은 수준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 모두 아동에 비해 부모가 더 자율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성취치원은 일반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낮은 수준, 합리치원은 일반위탁가정에서 낮은 수준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위축에 대하여 부모가 아동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행의 경우에도 부모가 아동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 (1) 응답 일치율 및 차이분석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우울·불안의 경우 위탁부모평균 1.16, 아동평균 1.26이며, ICC값은 0.27로 일치율은 다소 낮은 것(fair)으로 나타났으며, 차이 분석 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001$ ).

위축의 경우에는 위탁부모평균 1.28, 아동평균 1.32이며, ICC값은 0.30으로 일치율은 다소 낮은 것(Fair)으로 나타났으며, 차이분석 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850$ ).

비행의 경우에는 위탁부모평균 1.07, 아동평균 1.09이며, ICC값은 0.26으로 일치율은 다소 낮은 것(Fair)으로 나타났으며, 차이분석 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20$ ).

공격성의 경우에는 위탁부모평균 1.15, 아동평균 1.16이며, ICC값은 0.38로 일치율은 다소 낮은 것(Fair)으로 나타났으며, 차이분석 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886$ ).

학업성적은 위탁부모평균 3.09, 아동평균 3.07이며, ICC값은 0.50으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을 보였고, 차이분석 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5$ ).

부모감독·애착의 경우에는 위탁부모평균 3.07 아동평균 3.02로 나타났으며, ICC값은 0.50으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을 보였고, 차이분석 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89$ ). 감독의 경우 다소 낮은 일치율을 보였고( $ICC=0.35$ ), 애착의 경우에는 보통( $ICC=0.44$ )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모두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위탁부모평균 2.95, 아동평균 2.86이며,  $ICC$ 값은 0.56으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을 보였고, 차이분석 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172$ ,  $p<.01$ ). 애정( $ICC=0.56$ ), 성취( $ICC=0.46$ ), 합리( $ICC=0.41$ )는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고, 자율( $ICC=0.24$ )은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차이분석 결과는 애정( $t=2.391$ ,  $p<.05$ ), 자율( $t=2.052$ ,  $p<.05$ ), 성취( $t=2.139$ ,  $p<.05$ ), 합리( $t=2.882$ ,  $p<.01$ ) 네 가지 차원 모두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부모는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4〉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응답 일치율 및 차이(2차)

	평균(SD)		test of differences(t)	test of congruency (ICC)	
	위탁부모	위탁아동			
우울·불안	1.16(.18)	1.26(.29)	-4.001***	.27	
위축	1.28(.32)	1.32(.39)	-.850	.30	
비행	1.07(.14)	1.09(.13)	-1.120	.26	
공격성	1.15(.19)	1.16(.18)	-.886	.38	
학업성적	3.09(.82)	3.07(.98)	-.195	.50	
부모감독·애착	전체	3.07(.40)	3.02(.54)	1.189	.50
	감독	3.11(.48)	3.02(.62)	1.599	.35
	애착	3.05(.44)	3.01(.56)	.715	.44
부모양육태도	전체	2.95(.28)	2.86(.36)	3.172**	.56
	애정	3.09(.39)	3.00(.44)	2.391*	.56
	자율	2.69(.23)	2.63(.32)	2.052*	.24
	성취	2.94(.31)	2.86(.41)	2.139*	.46
	합리	3.15(.41)	3.03(.50)	2.882**	.41

\*\*\* $p<.001$ , \*\* $p<.01$ , \* $p<.05$

## (2) 위탁유형별 응답 일치율 및 차이분석

위탁유형별 위탁부모와 아동의 응답 일치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우선 응답 일치율을 살펴보면, 우울·불안의 경우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ICC$ 값이 0.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친인척 위탁가정이 0.27, 일반위탁가정이 0.05로 나타나,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fair) 일치율을 보였으며, 일반위탁가정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poor)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의 경우에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0.49(moderate)로 가장 높았고 일반위탁가정 0.26(fair), 친인척 위탁가정 0.15(poor)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에는 친인척 위탁가정이 0.69로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0.22로 다소 낮았으며(fair), 일반위탁가정은 0.07로 매우 낮은(poor) 수준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이 0.45로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0.39, 일반위탁가정은 0.26으로 모두 다소 낮은(fair) 일치율을 보였다. 학업성적의 경우에는 일반위탁가정이 0.68로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0.47로 보통(moderate)으로 나타났고, 친인척 위탁가정은 0.39로 다소 낮은(fair) 일치율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애착의 경우 대리양육 위탁가정 0.52, 일반위탁가정 0.46으로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고, 친인척 위탁가정은 0.40으로 낮은(fair) 일치율로 나타났다. 감독은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0.09로 매우 낮은(poor) 일치율을 보였고, 친인척 위탁가정은 0.39로 다소 낮게,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0.46으로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애착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은 0.56,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0.42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 친인척 위탁가정은 0.30으로 다소 낮은(fair)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는 대리양육 위탁가정 0.60, 일반위탁가정 0.49, 친인척 위탁가정 0.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정의 경우 모두 보통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은 일반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다소 낮은 일치율을,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매우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성취차원은 일반위탁은 다소 낮게, 친인척위탁과 대리양육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합리차원의 경우 일반위탁은 매우 낮게, 친인척위탁은 다소 낮게, 대리양육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탁부모와 아동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에 대하여 일반위탁과( $t=-2.438, p<.05$ ), 대리양육에서 부모와 아동의 응답에 차이를 보였고( $t=-2.480, p<.05$ ), 위탁부모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아동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에서 응답에 차이가 있었으며( $t=-2.246, p<.05$ ) 비행 역시 위탁부모가 아동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육태도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t=2.402, p<.05$ ), 양육태도의 차원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취차원은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t=2.825, p<.01$ ), 합리차원은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662, p<.05$ ). 위탁부모는 아동이 인식하는 것보다 자신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위탁유형별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치율 및 차이(2차)

	위탁유형(N)	위탁부모		위탁아동		t	ICC	
		M	SD	M	SD			
우울·불안	일반위탁(24)	1.11	.13	1.27	.30	-2.438*	.05	
	친인척위탁(31)	1.17	.16	1.28	.33	-2.041	.27	
	대리양육위탁(69)	1.16	.20	1.24	.26	-2.480*	.35	
위축	일반위탁(20)	1.24	.21	1.26	.27	-.171	.26	
	친인척위탁(24)	1.39	.33	1.34	.27	.641	.15	
	대리양육위탁(66)	1.26	.34	1.33	.46	-1.258	.49	
비행	일반위탁(26)	1.05	.09	1.12	.13	-2.246*	.07	
	친인척위탁(29)	1.07	.09	1.07	.12	0	.69	
	대리양육위탁(71)	1.08	.17	1.08	.14	-.207	.22	
공격성	일반위탁(26)	1.14	.17	1.19	.14	-1.373	.26	
	친인척위탁(27)	1.17	.20	1.16	.17	.053	.45	
	대리양육위탁(73)	1.14	.19	1.15	.19	-.410	.39	
학업성적	일반위탁(27)	2.81	1.14	3.15	1.03	-1.975	.68	
	친인척위탁(29)	3.14	.99	3.14	.88	0	.39	
	대리양육위탁(72)	3.14	.91	3.04	.72	.980	.47	
부모 감독 · 애착	전체	일반위탁(25)	3.23	.33	3.18	.63	.420	.46
		친인척위탁(28)	2.96	.38	2.95	.49	.156	.40
		대리양육위탁(70)	3.05	.42	3.00	.52	1.237	.52
	감독	일반위탁(27)	3.27	.45	3.16	.81	.654	.09
		친인척위탁(28)	3.02	.44	3.05	.52	-.345	.39
		대리양육위탁(73)	3.09	.51	2.96	.57	1.994	.46
	애착	일반위탁(26)	3.19	.36	3.20	.58	-.144	.56
		친인척위탁(29)	2.94	.41	2.85	.51	.903	.30
		대리양육위탁(73)	3.04	.48	3.01	.56	.417	.42
부모 양육 태도	전체	일반위탁(18)	3.10	.18	3.05	.40	.688	.49
		친인척위탁(25)	2.90	.28	2.76	.37	2.066	.44
		대리양육위탁(55)	2.93	.30	2.84	.04	2.402*	.60
	애정	일반위탁(25)	3.31	.22	3.25	.48	.784	.40
		친인척위탁(26)	2.93	.35	2.79	.47	1.614	.47
		대리양육위탁(69)	3.06	.42	2.99	.37	1.647	.56
	자율	일반위탁(26)	2.70	.22	2.72	.34	-.367	.37
		친인척위탁(29)	2.74	.27	2.63	.35	1.654	.24
		대리양육위탁(62)	2.67	.21	2.59	.30	1.834	.17
	성취	일반위탁(27)	3.07	.21	3.08	.45	-.145	.38
		친인척위탁(25)	2.94	.30	2.74	.38	2.825**	.44
		대리양육위탁(64)	2.88	.34	2.82	.37	1.280	.46
	합리	일반위탁(24)	3.32	.28	3.23	.43	.887	.01
		친인척위탁(28)	3.05	.43	2.95	.52	1.019	.36
		대리양육위탁(70)	3.14	.43	2.99	.50	2.662*	.47

\*\*p&lt;.01, \*p&lt;.05

(3) 위탁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다음으로 위탁부모와 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감독·애착의 경우에 위탁부모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290, p<.05$ ). 사후검정결과 일반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친인척 위탁가정의 위탁부모에 비해 감독·애착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감독과 애착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위탁부모( $F=4.065, p<.05$ )와 아동( $F=4.087, p<.05$ )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모두 일반위탁가정의 경우가 친인척 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차원은 위탁부모( $F=7.702, p<.001$ )와 아동( $F=5.650, p<.001$ )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일반위탁가정이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차원 역시 위탁부모( $F=3.969, p<.05$ )와 아동( $F=6.544, p<.01$ )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위탁부모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이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이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차원은 위탁부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3.102, p<.05$ ), 사후분석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6〉 위탁부모와 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차이(2차)

	위탁유형(N)	위탁부모			위탁아동			
		N	M	SD	N	M	SD	
	일반위탁	27	1.11	.12	25	1.26	.29	
	친인척위탁	31	1.17	.16	31	1.28	.33	
	대리양육위탁	72	1.16	.20	76	1.25	.29	
	F		.902			.128		
위족	일반위탁	20	1.24	.21	28	1.29	.30	
	친인척위탁	25	1.37	.33	30	1.36	.31	
	대리양육위탁	68	1.25	.34	79	1.32	.44	
	F		1.539			.289		
비행	일반위탁	27	1.05	.09	27	1.12	.13	
	친인척위탁	30	1.06	.09	30	1.08	.15	
	대리양육위탁	73	1.08	.17	77	1.09	.13	
	F		.351			.605		
공격성	일반위탁	28	1.14	.16	26	1.19	.14	
	친인척위탁	28	1.16	.19	30	1.17	.18	
	대리양육위탁	73	1.14	.19	79	1.16	.20	
	F		.152			.268		
학업성적	일반위탁	27	2.81	1.15	28	3.14	1.01	
	친인척위탁	29	3.14	.99	31	3.03	.95	
	대리양육위탁	72	3.14	.91	79	3.03	.72	
	F		1.162			.214		
부모 감독·애착	전체	일반위탁(a)	27	3.22	.32	26	3.19	.62
	친인척위탁(b)	29	2.96	.38	30	2.93	.48	
	대리양육위탁(c)	71	3.05	.42	78	2.99	.53	
	F		3.290*(a,b)			1.848		
감독	일반위탁(a)	28	3.26	.44	27	3.16	.81	
	친인척위탁(b)	30	3.02	.44	30	3.05	.51	
	대리양육위탁(c)	73	3.09	.51	79	2.96	.58	
	F		2.026			1.085		
애착	일반위탁(a)	27	3.19	.35	27	3.20	.57	
	친인척위탁(b)	30	2.94	.40	30	2.84	.50	
	대리양육위탁(c)	74	3.04	.47	79	3.00	.58	
	F		2.294			2.798		
전체	일반위탁(a)	23	3.09	.16	23	3.04	.35	
	친인척위탁(b)	27	2.89	.27	28	2.79	.37	
	대리양육위탁(c)	62	2.93	.29	65	2.83	.31	
	F		4.065*(a,b, c)			4.087*(a,b, c)		
애정	일반위탁(a)	27	3.30	.22	26	3.23	.47	
	친인척위탁(b)	27	2.91	.35	30	2.84	.48	
	대리양육위탁(c)	70	3.06	.41	78	2.94	.44	
	F		7.702**(a,b, c)			5.650**(a,b, c)		
부모 양육 태도	자율	일반위탁(a)	27	2.70	.22	27	2.71	.34
	친인척위탁(b)	31	2.73	.27	29	2.63	.35	
	대리양육위탁(c)	66	2.67	.21	72	2.58	.31	
	F		.706			1.633		
성취	일반위탁(a)	27	3.07	.21	28	3.08	.45	
	친인척위탁(b)	29	2.91	.30	29	2.73	.38	
	대리양육위탁(c)	70	2.88	.34	71	2.81	.36	
	F		3.969*(a,c)			6.544**(a,b, c)		
합리	일반위탁(a)	26	3.31	.27	26	3.23	.41	
	친인척위탁(b)	29	3.05	.42	30	2.97	.51	
	대리양육위탁(c)	71	3.13	.43	77	2.98	.49	
	F		3.102*			2.890		

\*\* $p<.01$ , \* $p<.05$



#### (4) 소결

아동에 대한 위탁부모의 응답과 아동의 응답 일치율을 살펴본 결과,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응답의 경우 우울·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 모두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고, 학업성적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부모감독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애착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양육태도의 일치율은 보통이었으며, 자율의 경우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다. 차이분석에서는 우울·불안의 경우 위탁부모는 아동에 비해 아동의 우울·불안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위탁부모는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울·불안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으나, 일반위탁가정은 매우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위축은 일반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비행의 경우에는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낮은 수준, 일반위탁가정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친인척위탁과 대리양육의 경우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고, 일반위탁가정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고, 대리양육은 보통, 친인척위탁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다.

부모감독·애착의 경우에는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고, 친인척위탁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다. 감독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친인척위탁은 낮게,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애착의 경우 일반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 친인척 위탁가정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는 애정의 경우 모두 보통, 자율은 일반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낮은 수준,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매우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다. 성취차원은 일반위탁가정은 낮게,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합리차원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은 매우 낮게, 친인척 위탁가정은 낮게,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우울·불안에서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동에 비해 위탁부모는 아동의 우울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행도 마찬가지로 위탁부모는 아동에 비해 아동의 비행을 낮게 평가하였다.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우울·불안에서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동에 비해 위탁부모는 아동의 우울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위탁부모가 아동에 비해 자신의 양육태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차이에서는 감독·애착의 경우에 위탁부모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친인척 위탁가정의 위탁부모에 비해 감독·애착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위탁부모와 아동 모두 일반위탁가정의 경우가 친인척 위탁가정,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

### (1) 응답 일치율 및 차이분석

다음으로 위탁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태도를 비교하였다. 부모감독·애착의 경우 친자녀 평균은 3.01, 위탁아동 평균 3.07이며, ICC값은 0.47로 보통의(moderate) 일치율을 보였고, 차이분석결과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부모감독·애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570$ ). 감독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fair) 일치율을 보였으며( $ICC=0.34$ ), 애착은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다( $ICC=0.44$ ). 차이분석 결과 감독과 애착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친자녀 평균 2.91, 위탁아동 평균 2.96이며, ICC값은 0.65로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739$ ). 애정, 성취, 합리차원의 경우에는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자율차원은 매우 낮은(poor) 일치율을 보였고, 역시 친자녀와 위탁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응답 일치율 및 차이

		평균(SD)		test of differences(t)	test of congruency (ICC)
		친자녀	위탁아동		
부모감독· 애착	전체	3.01(.45)	3.07(.39)	-1.570	.47
	감독	3.06(.55)	3.12(.47)	-1.071	.34
	애착	2.97(.47)	3.04(.43)	-1.614	.44
부모양육 태도	전체	2.91(.29)	2.96(.27)	-1.739	.65
	애정	3.03(.40)	3.09(.39)	-1.780	.58
	자율	2.72(.27)	2.71(.22)	.521	.12
	성취	2.87(.34)	2.93(.32)	-1.916	.52
	합리	3.09(.39)	3.14(.40)	-1.354	.48

## (2) 위탁유형별 응답 일치율 및 차이분석

위탁유형별 위탁부모가 응답한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에 대한 응답 일치율 및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우선 응답 일치율을 살펴보면, 부모감독·애착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0.64로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0.46으로 보통(moderate),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0.27로 다소 낮은(fair)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과 애착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감독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ICC=0.49)과 대리양육 위탁가정(ICC=0.40)은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 역시 일반위탁가정(ICC=0.44), 친인척 위탁가정(ICC=0.48), 대리양육 위탁가정(ICC=0.44) 모두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이 0.67로 높은(good) 일치율을 보였고,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0.59, 일반위탁가정은 0.41로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차원의 경우 일반위탁(ICC=0.52), 친인척 위탁가정(ICC=0.52), 대리양육 위탁가정(ICC=0.57) 모두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자율차원은 친인척 위탁가정(ICC=0.14)은 매우 낮은 일치율, 대리양육 위탁가정(ICC=0.22)은 다소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성취차원은 일반위탁가정(ICC=0.53), 친인척 위탁가정(ICC=0.52), 대리양육 위탁가정(ICC=0.45) 모두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합리차원은 일반위탁가정(ICC=0.10)은 매우 낮게, 친인척 위탁가정(ICC=0.38)은 다소 낮게, 대리양육 위탁가정(ICC=0.56)은 보통의 일치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감독·애착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 $t=2.132, p<.05$ )과 대리양육 위탁가정( $t=-2.663,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위탁부모는 친자녀에게 더욱 애착과 감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반대로 친자녀보다는 위탁아동에게 애착과 감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과 애착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감독( $t=-2.222, p<.05$ )과 애착( $t=-2.382, p<.05$ ) 모두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친자녀보다는 위탁아동에게 감독과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t=-2.974, p<.05$ ), 친자녀보다 위탁아동에게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애정( $t=-2.576, p<.05$ )과 성취( $t=-2.012, p<.05$ )차원은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친자녀보다 위탁아동에게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차원은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t=2.294, p<.05$ ), 다른 차원과는 반대로 위탁아동보다는 친자녀에게 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위탁유형별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응답 일치율 및 차이

	위탁유형(N)	친자녀		위탁아동		t	ICC	
		M	SD	M	SD			
부모감독· 애착	전체	일반위탁(27)	3.18	.28	3.22	.32	-.640	.27
		친인척위탁(28)	3.10	.42	2.97	.38	2.132*	.64
		대리양육위탁(63)	2.89	.49	3.05	.41	-2.663*	.46
	감독	일반위탁(28)	3.32	.41	3.26	.44	.513	-.13
		친인척위탁(29)	3.12	.44	3.04	.42	.964	.49
		대리양육위탁(65)	2.93	.61	3.10	.51	-2.222*	.40
	애착	일반위탁(27)	3.10	.29	3.19	.35	-1.317	.44
		친인척위탁(29)	3.06	.50	2.94	.41	1.453	.48
		대리양육위탁(66)	2.88	.50	3.03	.46	-2.382*	.44
부모양육 태도	전체	일반위탁(17)	3.14	.19	3.10	.17	.870	.41
		친인척위탁(22)	2.92	.34	2.92	.29	.019	.59
		대리양육위탁(50)	2.83	.26	2.93	.28	-2.974**	.67
	애정	일반위탁(26)	3.27	.26	3.29	.22	-.574	.52
		친인척위탁(24)	3.00	.41	2.93	.36	.915	.52
		대리양육위탁(62)	2.94	.41	3.07	.42	-2.576*	.57
	자율	일반위탁(27)	2.86	.26	2.70	.22	2.294*	-.07
		친인척위탁(28)	2.70	.29	2.76	.27	-.825	.14
		대리양육위탁(57)	2.67	.24	2.69	.20	-.384	.22
	성취	일반위탁(23)	3.07	.32	3.08	.22	-.314	.53
		친인척위탁(27)	2.89	.37	2.91	.31	-.460	.52
		대리양육위탁(60)	2.78	.30	2.87	.34	-2.012*	.45
	합리	일반위탁(23)	3.30	.36	3.31	.26	-.100	.10
		친인척위탁(26)	3.10	.39	3.10	.42	.043	.38
		대리양육위탁(60)	3.01	.38	3.10	.42	-1.921	.56

\*\*p&lt;.01, \*p&lt;.05

### (3) 위탁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위탁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의 응답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감독·애착의 경우 친자녀( $F=6.877, p<.01$ )와 위탁아동( $F=3.290, p<.05$ ) 모두 위탁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친자녀에 대한 감독·애착은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대리양육 위탁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아동에 대한 감독·애착은 일반위탁가정이 친인척 위탁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과 애착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친자녀의 경우 위탁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감독( $F=5.748, p<.01$ )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이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애착( $F=5.177, p<.01$ ) 역시 일반위탁가정이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도 친자녀( $F=8.882, p<.001$ )와 위탁아동( $F=4.065, p<.05$ ) 모두 위탁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친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대리양육 위탁가정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태도는 일반위탁가정이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차원은 친자녀(F=7.898 p<.01)와 위탁아동(F=7.702 p<.01)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친자녀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이 대리양육 위탁가정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위탁아동의 경우 일반위탁가정이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차원은 친자녀(F=4.729 p<.05)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 결과 일반위탁가정이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성취차원은 친자녀(F=8.742 p<.001)와 위탁아동(F=3.969 p<.05) 모두 일반위탁가정이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합리차원 역시 친자녀(F=6.128 p<.01)와 위탁아동(F=3.102 p<.05)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결과 친자녀는 일반위탁가정이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탁아동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9〉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위탁유형에 따른 응답차이

변수	위탁유형(N)	친자녀			위탁아동			
		N	M	SD	N	M	SD	
부모감독· 애착	전체	일반위탁(a)	30	3.19	.28	27	3.22	.32
		친인척위탁(b)	30	3.07	.44	29	2.96	.38
		대리양육위탁(c)	81	2.87	.48	71	3.05	.42
		F	6.877**(a>c)			3.290*(a>b)		
	감독	일반위탁(a)	30	3.31	.40	28	3.26	.44
		친인척위탁(b)	30	3.09	.46	30	3.02	.44
		대리양육위탁(c)	81	2.93	.58	73	3.09	.51
		F	5.748**(a>c)			2.026		
	애착	일반위탁(a)	30	3.12	.30	27	3.19	.35
		친인척위탁(b)	30	3.06	.49	30	2.94	.40
		대리양육위탁(c)	81	2.83	.54	74	3.04	.47
		F	5.177**(a>c)			2.294		
부모양육 태도	전체	일반위탁(a)	24	3.09	.20	23	3.09	.16
		친인척위탁(b)	24	2.91	.34	27	2.89	.27
		대리양육위탁(c)	70	2.83	.24	62	2.93	.29
		F	8.882***(a>c)			4.065*(a>b, c)		
	애정	일반위탁(a)	29	3.24	.26	27	3.30	.22
		친인척위탁(b)	28	3.00	.39	27	2.91	.35
		대리양육위탁(c)	79	2.92	.40	70	3.06	.41
		F	7.898**(a>c)			7.702**(a>b, c)		
	자율	일반위탁(a)	30	2.84	.26	27	2.70	.22
		친인척위탁(b)	28	2.70	.29	31	2.73	.27
		대리양육위탁(c)	77	2.68	.24	66	2.67	.21
		F	4.729*(a>c)			.706		
성취	일반위탁(a)	26	3.06	.30	27	3.07	.21	
	친인척위탁(b)	28	2.89	.36	29	2.91	.30	
	대리양육위탁(c)	75	2.76	.32	70	2.88	.34	
	F	8.742***(a>c)			3.969*(a>c)			
합리	일반위탁(a)	27	3.27	.34	26	3.31	.27	
	친인척위탁(b)	27	3.09	.39	29	3.05	.42	
	대리양육위탁(c)	78	3.00	.35	71	3.13	.43	
	F	6.128**(a>b, c)			3.102*			

\*\*\*p<.001, \*\*p<.01, \*p<.05

#### (4) 소결

위탁부모가 응답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부모감독·애착의 경우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고, 부모감독은 낮게, 애착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경우 높은 일치율을 보였는데,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애정, 성취, 합리는 보통의 일치율, 자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감독·애착의 경우 친인척 위탁가정은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 일반위탁가정은 낮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감독은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으로 나타났고, 애착은 모두 보통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높은 일치율, 일반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보통 수준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차원과 성취차원은 모든 위탁유형에서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고, 자율차원은 낮은 수준, 합리차원은 일반위탁가정은 매우 낮게, 친인척 위탁가정은 낮게,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감독과 애착은 각각 대리양육의 경우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 성취차원의 경우 대리양육 위탁가정에서 역시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의 경우에는 일반위탁가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친자녀보다 위탁아동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율의 경우에만 친자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에 따른 부모감독·애착에 대한 응답차이에서는 친자녀와 위탁아동 모두 일반위탁가정이 다른 유형의 위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감독과 애착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감독과 애착 모두 친자녀의 경우에만 위탁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친자녀와 위탁아동 모두 일반위탁가정에서 다른 유형의 위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위탁아동의 자율차원과 합리차원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역시 일반위탁가정이 다른 유형의 위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는 친부모와 아동,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의 세 가지 차원의 응답 일치율과, 위탁유형별 응답 일치율, 위탁유형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다소 낮은(fair) 정도부터 보통(moderate)의 일치율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매우 낮은(poor) 정도와 높은(good) 정도의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친부모와 아동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학교적응과 위축은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는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경우에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일치도가 낮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wang & Lee, 2013; Lim et al., 2014). 그 외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부모감독·애착 및 양육태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와 아동의 경우에는 우울·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 모두 낮은 수준의 일치율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 부모감독·애착 및 양육태도는 보통의 일치율을 보였다. 특히,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문항들은 위탁아동에 비해 위탁부모의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를 아동보다는 양육자인 위탁부모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정서적 문제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응답에 대하여 아동이 양육자에 비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Marques et al., 2013; Hwang & Lee, 2013).

위탁부모가 응답한 친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부모감독·애착은 보통, 양육태도의 경우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차이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부모가 친자녀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 양육태도를 차원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모감독의 경우 친부모와 아동(ICC=0.32), 위탁부모와 아동(ICC=0.35), 친자녀와 위탁아동(ICC=0.34) 모두 부모애착에 비해 낮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친부모와 위탁부모 모두 아동에 비해

감독의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애정, 자율, 성취, 합리 차원의 부모양육태도에서는 자율의 경우 친부모와 아동(ICC=0.10), 위탁부모와 아동(ICC=0.24), 친자녀와 위탁아동(ICC=0.12) 모두 매우 낮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다른 차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감독과 마찬가지로 친부모와 위탁부모 모두 자율 점수가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허락한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일치율에 대하여 위탁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우울·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위탁유형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낮은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부모는 아동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서도 낮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아동응답에 비해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위탁아동을 양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위탁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일반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친인척 위탁가정의 위탁부모에 비해 감독·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도 일반위탁가정의 부모의 경우 다른 유형의 위탁부모에 비해 양육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응답 또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위탁가정의 위탁부모는 대체적으로 아동양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탁부모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감독·애착과 부모양육태도 모두 일반위탁가정의 경우가 다른 유형의 위탁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친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역시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높게 나타나,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친자녀와 위탁자녀를 불문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 2014

##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 IV. 부모양육태도에 영향 미치는 아동효과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 Ⅳ. 부모양육태도에 영향 미치는 아동효과

### 1. 문제제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기질이나 성별,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Dix, Ruble, Zambarano, 1989; Brody, 2003). 대부분의 부모는 딸을 대할 때와 아들을 대할 때가 다른 경우가 많고, 유아기 자녀와 사춘기 자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성별, 기질, 연령 등 아동의 다양한 특성이 독특한 가족문화, 특히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시각이 최근 많은 아동학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Reiss, 2003).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부모 양육태도의 인과관계 즉,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로 인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반대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부모 양육태도에 변화를 이끈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 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Brody, 2003; Reitz, Deković, Meijer, & Engels, 2006).

이러한 새로운 연구경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간 발표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주로 부모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부모-자녀 간 애착 및 지도, 감독 등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부모에서 아동에 이르는 일방향적 영향 관계인 부모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다(김빛나·진미경, 2014; Buehler, 2006; Reitz, Deković, Meijer, & Engels, 2006).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지만 부모의 거부, 방임, 통제, 과보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부모효과를 밝히는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여겨졌으며,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문제아동을 만들었다고 보거나, 문제행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부모-자녀관계는 오랜 기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상호영향관계 안에서 발달한다(Lollis & Kuczynski, 1997). 이에 따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부모-자녀 간 영향의 인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일방향적인 부모효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결과가 아니라, 반대로 부모양육태도 차이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가 밝혀지면서 아동이 부모 또는 가족에 미치는 영향 즉 아동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Kerr & Stattin, 2003; Macobby, 2003; McHale & Crouter, 2003).

위와 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즉 아동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는 부모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다(백혜정·황혜정, 2006; 이은주, 2010; 이주리, 2008). 아동효과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자녀의 비행행동이 부모의 지도감독 및 유대 수준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이상균(2012)의 연구와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 양육태도 간 부모효과와 아동효과 모두 유의미함을 밝힌 이은주(2011)의 연구 등이 진행 되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동효과를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일반가정에 있는 아동에 비해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은 정서·행동문제의 발생빈도가 더 높으며, 심리사회적 적응도 낮은 편이며(김경민·정익중, 2009), 천가정과의 분리경험으로 인하여 위탁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Vanschoonlandt, Vanderfaeillie, Holen, Maeyer, & Robberechts, 2013). Vanschoonlandt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위탁아동의 40.6%가 외현화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위탁 후 34%가 공격성, 비행, 위축 등의 외현화행동 문제가 증가하였고, 내면화행동보다 외현화행동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탁아동은 행동장애와 정서적 문제를 함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거부감과 상실감, 파괴적 행동과 과잉행동 등의 행동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옥, 2002). 이러한 결과는 부모효과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위탁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가 위탁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위탁가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가족과의 분리 경험으로 위탁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위탁부모의 양육 어려움이 간과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위탁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상호 영향관계를 밝혀 위탁아동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따른 위탁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효과가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위탁자녀의 내면화·외현화 문제가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되었던 아동효과가 위탁부모-자녀관계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문제의 원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지적하는 일반적 연구경향에서 진화하여 아동이 일방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와 아동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위탁가정에서 겪는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효과

부모와 자녀는 함께 생활하며 가장 오랜 기간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관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동안 아동학자들로부터 중요한 연구대상 및 연구과제가 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양육태도를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하고, 주로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양육태도로 인한 자녀의 변화 즉 부모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모효과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자녀관계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지적하며, 부모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백혜정·황혜정, 2006; 이상균, 2008; 이상균, 2012; 이응택·이응경, 2012; 장혜림·정익중, 2013).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높은 애착과 온정적, 수용적 양육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높은 지지와 온정, 관여,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 의사소통과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문제행동을 할 위험을 줄여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ible, Carlo, & Raffaelli, 2000; Reitz et al., 2006). 반면 거부, 방임, 통제, 과보호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김빛나·진미경, 2014; 이영미·민하영, 2004). 특히 부모의 무관심과 지도감독 소홀 등 방임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혁, 2009; 나은숙·정익중, 2007; 박나래·정익중, 2012; 유정아·정익중, 2014). 특히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여아의 우울과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남아의 우울 및 공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임적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별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유정아·정익중, 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부모효과 연구들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는 비행이나 공격성, 약물남용 등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킨다고 보았다(손승희·이은혜, 2004; 이상균, 2012; Fletctcher, Steinberg, & Williams-Wheeler, 2004; Gray & Steinberg, 1999). 특히 부모의 지도감독, 정서적 애착과 유대는 자녀가 비행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줄이며(이상균, 2012), 자녀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어울리는지 등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많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etctcher et al., 2004; Karr & Stattin, 2000). 또한 부모의 애착이나 관여, 참여 등 애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친사회적행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공격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림·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역시 부모효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양육태도의 다양한 측면 중 애정이나 관여, 지지는 자녀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미·민하영, 2004; Alloy, Abramson, Tashman, Berrebbi, Hogan, White house, Crossfield, & Morocco, 2001). 즉, 부모가 자녀에게 더 온정적, 수용적, 지지적일수록 아동이 우울을 겪게 될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로 부모의 학대와 방임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정·정익중, 2013; 유정아·정익중, 2014).

또한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서도 친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한 아동에게 위탁부모의 애정적 양육,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신뢰롭고 일관된 부모-자녀관계는 위탁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Altchuler & Poertner, 2003; Harden, 2004)을 미쳐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부모효과 연구는 친부모와 위탁부모의 경우 모두 양육태도를 자녀의 내면화·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여 부모의 양육실패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 2) 아동이 부모 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효과

부모효과와 반대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아동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최근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을 다룬 다수의 종단 연구들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감소하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증가함을 밝혔다(Jang & Smith, 1997;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Scaramella, Conger, Spoth, & Simons, 2002; Stice & Barrera, 1995; Vuchinich, Bank, & Patterson, 1992; Reitz et al., 2006에서 재인용).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은 주로 아동기에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문제행동이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부모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지만 아동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ice & Barrera, 1995; Reitz et al., 2006).

### (1)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외현화 문제간 영향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고 부정적 통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부모 양육태도에서 아동효과가 유의미함을 증명하였다(Kerr & Stattin, 2003; Stice & Barrera, 199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의 원인 또는 결과인지를 14세~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년간 종단 분석한 Kerr과 Stattin(2003)의 연구결과, 청소년의 비행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자녀가 비행 행동을 보일 경우 부모는 낮은 통제와 낮은 정서적지지 및 격려, 부정적 의사소통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통제와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비행행동을 보호한다는 부모효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 영향의 인과성을 조사한 Albrecht 등(2007)의 연구에서도 아동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부모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자녀의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 등 외현화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의 통제나 간섭이 심하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자녀의 외현화 문제는 부모의 통제나 관심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붓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동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높은 외현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의붓아버지들은 애정과 관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외현화 문제는 의붓아버지들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wkins, Amato, & King, 2007).

하지만 아동효과를 입증한 위의 연구들과 달리 한부모 가정의 african-american 청소년의 비행과 부모감독의

관계를 3년간 종단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감독수준은 자녀의 비행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효과를 지지하였으나, 자녀의 비행과 공격성은 어머니의 감독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동효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Brody, 2003). 이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간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 역시 혼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동효과 역시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재화행동 문제간 영향관계를 분석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Eisenberg, Zhou, Spinard, Valienet, Fabes와 Liew(1999)의 연구에서는 비지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그 역방향인 아동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부모와 자녀간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uist, Dekovic, Meeus, 와 Van Aken(2004)의 연구와 양육행동과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부모효과는 없고 아동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Reitz 등(2006)의 연구에서는 Eisenberg 등(1999)의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아동효과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 간 인과성을 조사한 Albrecht, Galambos와 Jansson(2007)의 연구에서도 아동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부모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eeber, Hops와 Dabis(1998)는 자녀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우울한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성별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우울한 청소년을 대할 때,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더 지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우울한 청소년 자녀와 상호작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한 청소년들을 대할 때 부모의 양육태도에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동효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도 부모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e과 Kaslow(1988)는 아동의 우울증상은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부모가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아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전반적인 아동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동효과를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까다로운 신생아를 둔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Crockenberg & Leerkes, 2003), 자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기질과 부모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Hanington, Ramchandani와 Stein(2010)의 연구결과는 신생아 부모의 우울은 아동의 부정적 기질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반대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역시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효과와 아동효과가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모우울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심리상태는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가 감소한다. 우울한 부모는 부모역할에 많은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에 대한 정서적 관여가 감소하고, 자녀와 손상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김정란 · 이은희, 2007).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집단이 비 환자 집단에 비해 자녀의 양육에 있어 더욱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나(Crook, Raskin, & Elot, 1981; Jacobson, Fasman, & DiMascio, 1975; Parker, 1979; Planet, Prusoff, Brennan, & Parker, 1988; 노지형 · 송현주, 2012에서 재인용), 부모의 우울증상에 따른 자녀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우울한 부모는 자녀에게 덜 반응적이며, 아이의 행동과 욕구에 덜 민감하며, 긍정적 상호작용보다 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 Brumley, 1990). 우울한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며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며, 비판적이고 강압적이며, 엄격하거나 비밀관적인 훈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경 · 김영희, 2003; Leung & Slep, 2006).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 비난이나 적대감, 감정적 개입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유빈·하은혜, 2010; 이정운·장미경,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문제행동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효과를 확인한 국내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위탁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가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는 극히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친부모뿐만 아니라 위탁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심리사회적 적응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오경자 등(1998)이 수정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Youth Self Report)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13문항, 비행 12문항, 공격성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두 Likert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1차조사의 아동 비행은 .695, 공격성은 .808이며, 2차조사의 아동 우울은 .843, 공격성은 .796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우울

부모우울의 경우 친부모의 우울은 1차 자료를 위탁부모의 우울은 2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기분이 우울하다', '매사가 힘들다' 등의 문항이며 모두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친부모의 경우는 .911, 위탁부모의 경우는 .912로 나타났다.

##### (3) 부모양육태도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은 부모유대관계척도(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중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감독은 '자녀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녀가 몇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등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부모애착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입니까?', '자녀에게 평소 따뜻한 감정을 보이는 편입니까?' 등 모두 6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두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친부모의 부모감독은 .894, 부모애착은 .953이며, 위탁부모의 부모감독은 .734, 부모애착은 .858로 나타났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이르는 발달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친부모와 위탁부모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개념 측정의 적합도 검토를 위하여 측정모형을 추정하고, 1단계에서 얻어진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는 2단계로 이루어졌다.

## 4.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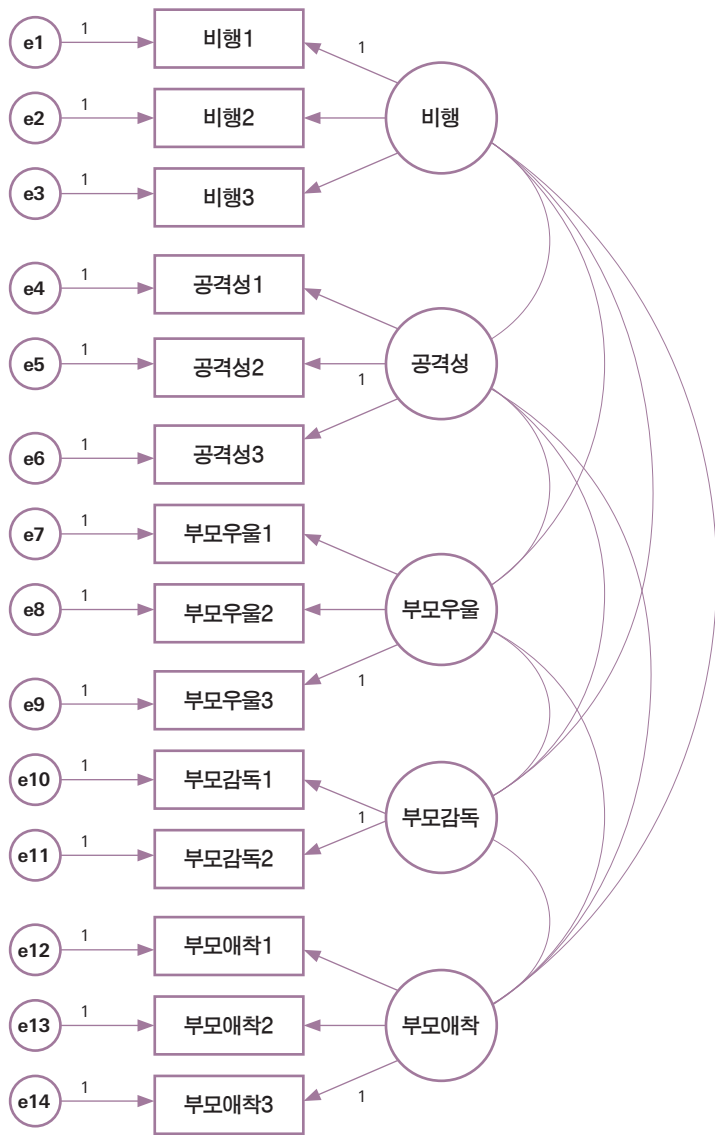
<표 40>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차	부모감독	부모감독1	2.99	.70	-.649	.735
		부모감독2	2.82	.73	-.405	.091
	부모애착	부모애착1	2.84	.78	-.641	.202
		부모애착2	2.74	.76	-.438	.074
		부모애착3	2.72	.80	-.260	-.304
	비행	비행1	1.10	.18	2.042	4.963
		비행2	1.11	.22	2.534	7.402
		비행3	1.11	.18	2.066	5.026
	공격성	공격성1	1.23	.25	1.430	2.198
		공격성2	1.26	.27	.953	.094
		공격성3	1.25	.28	1.402	1.644
	부모우울	부모우울1	2.28	.53	-.034	-.124
		부모우울2	2.04	.73	.095	-.650
		부모우울3	2.21	.77	-.065	-.575
	2차	위탁부모감독	위탁부모감독1	3.18	.53	.011
위탁부모감독2			3.04	.55	-.189	.072
위탁부모애착		위탁부모애착1	3.16	.53	-.074	.017
		위탁부모애착2	3.05	.46	.041	1.014
		위탁부모애착3	2.93	.55	-.125	.576
아동우울		우울1	1.35	.35	1.281	1.418
		우울2	1.18	.32	1.972	3.631
		우울3	1.26	.36	1.911	3.842
공격성		공격성1	1.16	.20	1.833	4.582
	공격성2	1.14	.21	1.770	2.904	
	공격성3	1.19	.25	1.449	1.567	
위탁부모우울	위탁부모우울1	1.65	.70	.942	.243	
	위탁부모우울2	1.91	.79	.253	-1.117	
	위탁부모우울3	1.74	.79	.677	-.524	

## 2) 측정모형

### (1) 아동의 비행, 공격성과 친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비행, 공격성, 부모우울, 부모감독, 부모애착은 잠재변수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아동과 친부모의 모든 변수는 1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측정모형 I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요인적재량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p < .001$ ).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95.258(df=64)$ ,  $p = .007$ 로 나타났는데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다른 보완적인 적합도 지수를 함께 활용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 CFI=.973, TLI=.962, GFI=.921, RMSEA=.057 등을 고려할 때 측정모형은 비교적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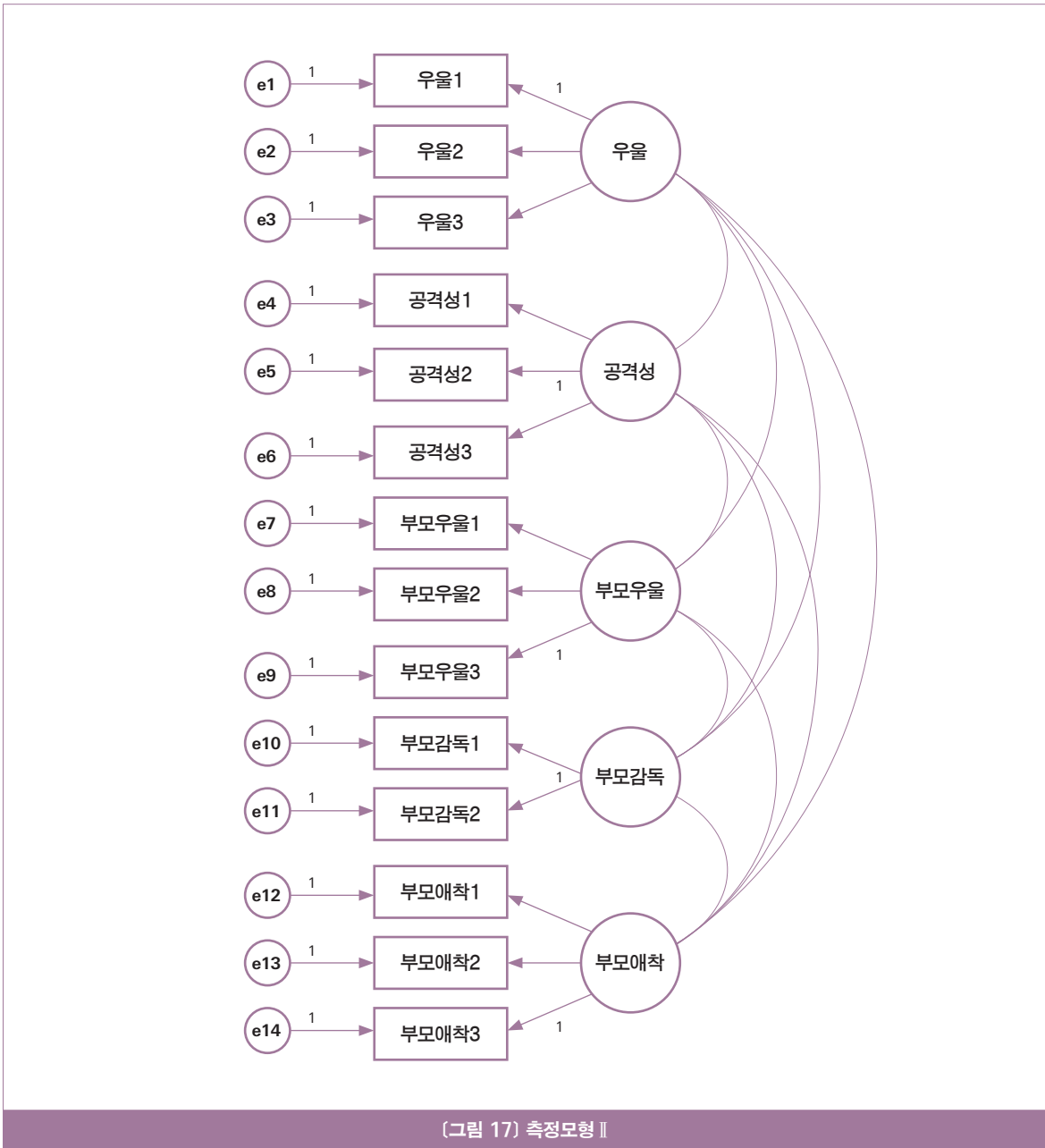
〈표 41〉 측정모형 I 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표준화 요인적재량	t값
비행	비행1	1.000(r)		.684	
	비행2	.908	.156	.575	5.808***
	비행3	.998	.163	.740	6.115***
공격성	공격성1	.682	.095	.666	7.212***
	공격성2	1.000(r)		.852	
	공격성3	.760	.107	.650	7.084***
부모우울	부모우울1	.356	.044	.564	8.088***
	부모우울2	1.000(r)		.857	
	부모우울3	.918	.082	.955	11.258***
부모감독	부모감독1	.706	.043	.564	16.352***
	부모감독2	1.000(r)		1.000	
부모애착	부모애착1	.853	.043	.912	19.906***
	부모애착2	1.000(r)		.942	
	부모애착3	.678	.058	.696	11.697***

\*\*\* $p < .001$

## (2) 아동의 우울, 공격성과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우울, 공격성, 부모우울, 부모감독, 부모애착은 잠재변수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아동과 위탁부모의 모든 변수는 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은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측정모형 II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요인적재량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p < .001$ ).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84.131$  ( $df=63$ ),  $p=.039$  로 나타났는데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다른 보완적인 적합도 지수를 함께 활용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 CFI=.987, TLI=.982, GFI=.930, RMSEA=.047 등을 고려할 때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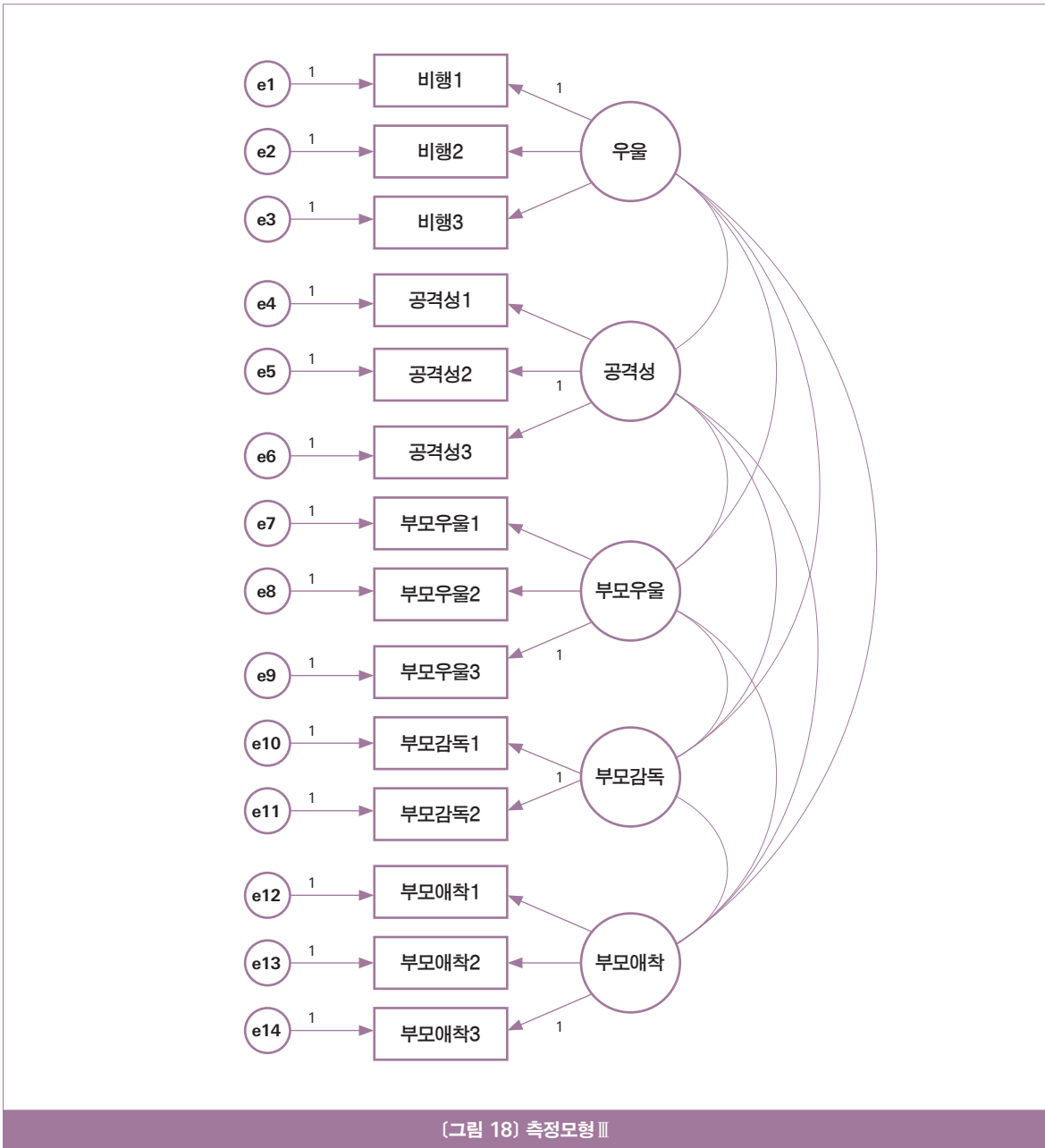
〈표 42〉 측정모형 II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표준화 요인적재량	t값
우울	우울1	.768	.082	.728	9.329***
	우울2	.552	.067	.643	8.257***
	우울3	1.000(r)		.959	
공격성	공격성1	.560	.093	.564	6.019***
	공격성2	.807	.113	.772	7.148***
	공격성3	1.000(r)		.725	
부모우울	부모우울1	.820	.123	.504	6.653***
	부모우울2	.923	.063	.866	14.751***
	부모우울3	1.000(r)		.953	
부모감독	부모감독1	1.000(r)		.948	
	부모감독2	.847	.041	.916	20.596***
부모애착	부모애착1	1.000(r)		.943	
	부모애착2	.654	.030	.920	21.782***
	부모애착3	.910	.035	.962	26.340***

\*\*\*p&lt;.001

### (3) 아동의 비행, 공격성과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비행, 공격성, 부모우울, 부모감독, 부모애착은 잠재변수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은 1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위탁부모의 우울, 감독, 애착은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은 [그림 18]과 같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요인적재량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p < .001$ ).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80.694(df=63)$ ,  $p = .066$ 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 CFI=.976, TLI=.965, GFI=.931, RMSEA=.043 등을 고려할 때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측정모형 III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표준화 요인적재량	t값
비행	비행1	1.000		.752	
	비행2	.555	.117	.543	4.732***
	비행3	.656	.132	.583	4.961***
공격성	공격성1	.667	.097	.654	6.872***
	공격성2	1.000		.872	
	공격성3	.741	.110	.635	6.759***
부모우울	부모우울1	.812	.071	.821	11.444***
	부모우울2	.943	.083	.802	11.292***
	부모우울3	1.000		.878	
부모감독	부모감독1	.806	.158	.661	5.114***
	부모감독2	1.000		.797	
부모애착	부모애착1	.750	.099	.653	7.542***
	부모애착2	.841	.100	.750	8.444***
	부모애착3	1.000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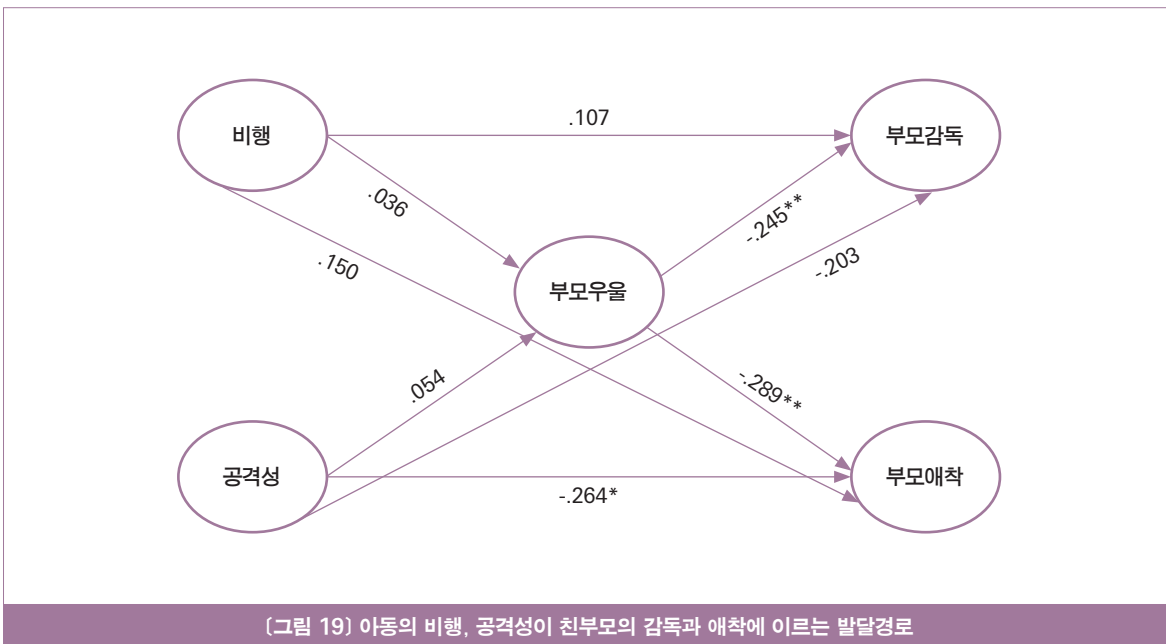
\*\*\*p&lt;.001

### 3) 연구모형

#### (1) 아동의 비행, 공격성과 친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비행, 공격성과 친부모의 부모감독, 부모애착에 관한 완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9]와 같다. 아동의 공격성 → 부모애착 경로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우울 → 부모감독, 부모우울 → 부모애착 경로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비행, 공격성은 부모우울을 매개하여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에 이를 것이라는 가설은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공격성이 부모애착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여 아동효과가 입증되었다.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부모의 애착을 낮추며(-.264), 부모우울이 높으면 부모감독(-.245)과 부모애착(-.289)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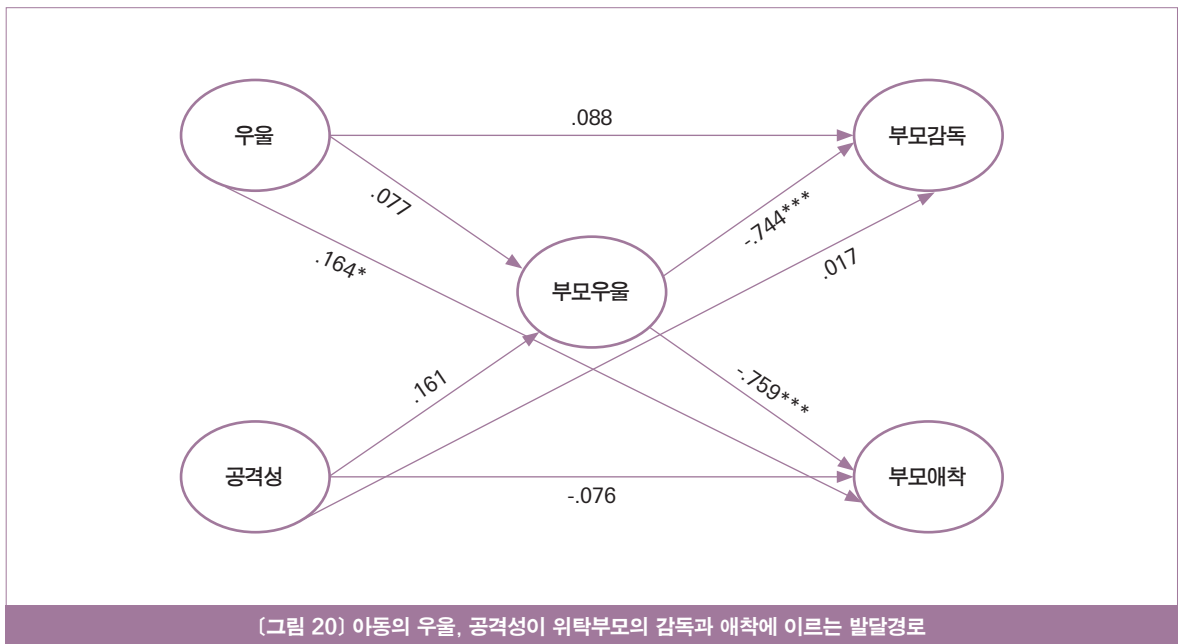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26.998(df=65)$ ,  $p=.000$ ,  $CFI=.947$ ,  $TLI=.948$ ,  $GFI=.906$ ,  $RMSEA=.080$ 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변수인 부모감독의 다중상관자승치는 .091, 부모애착의 다중상관자승치는 .134로 나타나 각각 부모감독의 9.1%, 부모애착의 13.4%가 연구모형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 (2) 아동의 우울, 공격성과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우울, 공격성과 위탁부모의 부모감독, 부모애착에 관한 완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아동의 우울 → 부모애착 경로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우울 → 부모감독, 부모우울 → 부모애착 경로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아동의 우울, 공격성은 부모우울을 매개로 하여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에 이를 것이라는 가설은 증명되지 못하였지만 아동의 우울이 부모애착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여 아동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우울이 높은 아동은 부모의 애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164), 부모우울이 높으면 부모감독(-.744)과 부모애착(-.759)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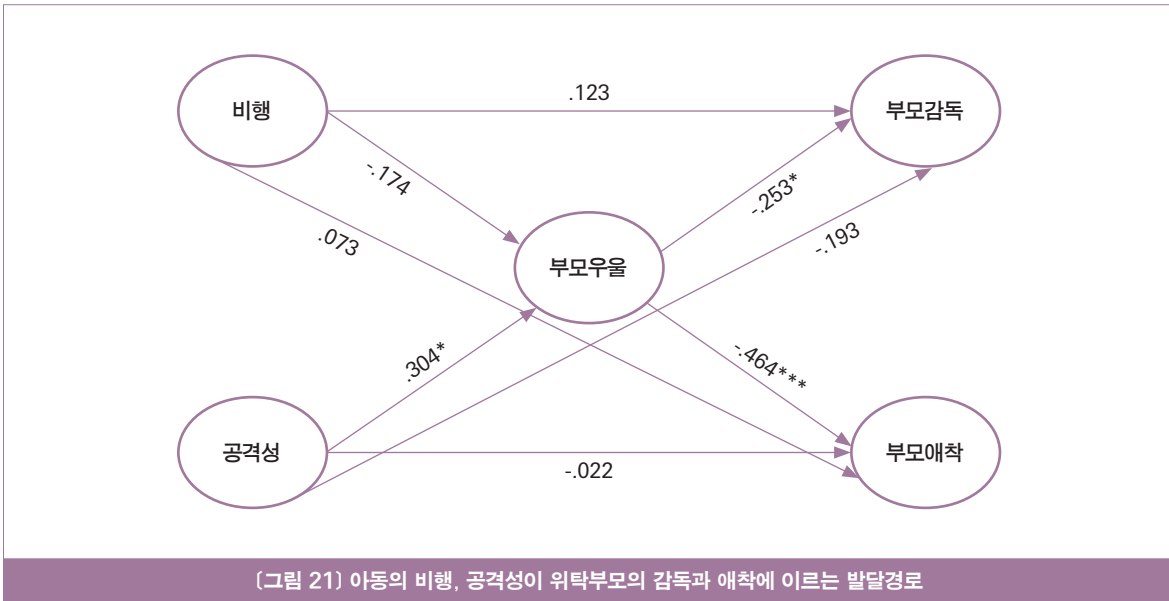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24.217(df=66)$ ,  $p = .000$ ,  $CFI = .965$ ,  $TLI = .952$ ,  $GFI = .898$ ,  $RMSEA = .077$ 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변수인 부모감독의 다중상관자승치는 .536, 부모애착의 다중상관자승치는 .575로 나타나 각각 부모감독의 53.6%, 부모애착의 57.5%가 연구모형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 (3) 아동의 비행, 공격성과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비행, 공격성(1차)과 위탁부모의 부모감독, 부모애착(2차)에 관한 완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아동의 공격성 → 부모우울 경로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우울 → 부모감독, 부모우울 → 부모애착 경로는 각각 .05,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이 부모우울을 매개로 하여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에 이를 것이라는 가설은 증명되어 아동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부모의 우울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304), 부모우울이 높으면 부모감독(-.253)과 부모애착(-.464)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총효과 -.270은 직접효과 -.193, 간접효과 -.077(.304×-.253)로 구성되며, 공격성이 부모애착에 미치는 총효과 -.163은 직접효과 -.022, 간접효과 -.141(.304×-.464)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공격성 → 부모우울 → 부모감독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077이고, 아동의 공격성 → 부모우울 → 부모애착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141이다. 공격성이 부모우울을 매개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모감독보다는 부모애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1$ ).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91.885$ ( $df=64$ ),  $p=.013$ , CFI=.962, TLI=.946, GFI=.924, RMSEA=.054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변수인 부모감독의 다중상관자승치는 .102, 부모애착의 다중상관자승치는 .223로 나타나 각각 부모감독의 10.2%, 부모애착의 22.3%가 연구모형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대다수 부모효과 연구와 달리, 아동효과 즉 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탁자녀의 내면화·외현화 문제가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효과가 친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위탁부모-자녀관계에서도 유효한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1차년도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이 1차년도 친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2차년도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이 2차년도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미치는 영향, 1차년도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이 2차년도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이 친부모의 감독 및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공격성(1차)은 친부모의 애착(1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비행은 친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동의 높은 공격적 행동은 친부모의 애착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친부모의 감독수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비행은 친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모두 정적(+)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분석결과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친부모의 애착수준에 영향을 미쳐 아동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비행의 경우 친부모의 양육태도인 감독과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동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비행문제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인 정서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err & Stattin, 2003; Stice & Barrera, 1995)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Reitz et al., 200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 결과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은 부모로 하여금 양육의 어려움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와 자녀에 대한 애착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낮은 애착이나 정서적 유대관계는 다시 자녀들이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등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김빛나·진미경, 2014), 부모-자녀관계의 악순환을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공격성이 높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을 끊거나 훈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교육과 부모-자녀관계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자녀와의 애착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둘째, 2차년도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이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우울(2차)은 위탁부모의 애착(2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아동의 공격성은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위탁부모의 애착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위탁부모의 애착과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동효과 선행연구(Reitz et al., 2006; Albrecht et al., 2007)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위탁아동의 공격성은 위탁부모의 감독을 높이고, 애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친부모의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첫 번째 분석과 상반된 결과로,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보다 우울과 같은 내면화 행동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가족과의 분리경험이 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표출되는 위탁아동의 외현화 행동을 위탁부모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우울과 같은 위탁아동의 내면화 문제는 큰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더 많은 애착을 보이는 등 결국엔 양육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친부모와 위탁부모 간 상반된 결과는 친부모와 달리 위탁부모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위탁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돕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자녀관계와 다른 방식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을 양육할 때, 아동의 외현화 문제보다 내면화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애착을 보이거나 정서적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탁부모들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서비스의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1차년도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이 2차년도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아동의 공격성(1차)은 위탁부모의 우울(2차)에 영향을 미치고, 위탁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위탁부모의 감독(2차)과 애착(2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년도 아동의 비행은 2차년도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탁아동의 높은 공격성은 위탁부모의 우울수준을 높이고, 위탁부모의 우울은 위탁부모의 감독과 애착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아동의 경우 일반가정에 있는 아동에 비해 정서·행동문제의 발생빈도가 더 높고, 심리사회적 적응도 낮은 편(김경민·정익중, 2009)으로 밝혀짐에 따라 위탁부모의 양육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양육어려움은 위탁부모의 우울감을 증폭 시킬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이후에도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꾸준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위탁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위탁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긍정적 양육태도인 감독과 애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 자녀양육 교육이나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녀양육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위탁부모의 우울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아동의 비행(1차)과 공격성(1차)은 친부모의 우울(1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위탁아동의 우울(2차)과 공격성(2차) 역시 위탁부모의 우울(2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1차년도 아동의 공격성은 2차년도 위탁부모의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아동이 공격적일수록 위탁부모의 우울이 증가하였다. 즉, 2차년도 위탁아동의 공격성은 당해 연도(2차) 위탁부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1차년도 아동의 공격성은 차년도(2차) 위탁부모의 우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 영향관계를 보였다. 앞선 연구결과에 의하면 친부모에게 아동의 비행이나 공격성은 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으나, 흥미롭게도 위탁부모의 경우 위탁아동의 공격성을 보이는 시점에 따라 위탁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이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원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아동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외현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 위탁부모의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공격적 행동의 수준이 높았다면 이 아동을 훈육하면서 위탁부모의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배치되기 전부터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 개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탁부모의 우울을 예방하여 긍정적 양육태도를 유지하고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쉽게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이 친부모나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과 도움은 자녀들이 부모와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부모(1차)와 위탁부모(2차)의 경우에서 모두 부모우울은 감독과 애착 수준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부모와 위탁부모 모두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감독수준과 애착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안정이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우울증상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에 대한 정서적 관여가 감소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에 많이 하게 되며, 비판적이고 훈육태도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정란·이은희, 2007; 이정운·장미경, 2009; 정미경·김영희, 2003).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우울과 같은 심리적 안정이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로, 올바른 양육태도를 위해 양육자의 심리적 지지와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모-자녀관계에만 치중되었던 기존 학계 및 실천 현장에 부모의 정신건강 또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2014

##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참고문헌

- 강현아(2005). 위탁아동의 학업성취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위탁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59-72.
- \_\_\_\_\_(2006). 가정위탁양육 중도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59-87.
- \_\_\_\_\_(2013).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및 쟁점**. 2013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2012).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 고민정, 이경숙, 김윤미, 최인애(2013).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신적 표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507-528.
- 고유빈, 하은혜(2010). 어머니 우울증상과 자녀 우울증상의 상관과 어머니 표출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2), 63-80.
- 권지성, 정익중(2013). 가정위탁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37(2), 35-77.
- \_\_\_\_\_(2014).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실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3, 5-36.
-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경민, 정익중(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93-119.
- 김계수(2006). **인과분석 연구방법론**. 서울 : 도서출판 청람.
- \_\_\_\_\_(201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아카데미.
- 김미정(2008).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지각한 위탁부모 양육태도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동광*, 104, 99-148.
- 김민정(2007). 위탁가정 특성, 위탁가정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위탁아동 특성에 따른 위탁부모의 양육효능감. *한국가족복지학*, 12(2), 109-127.
- \_\_\_\_\_(2008).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13(4), 145-159.
- \_\_\_\_\_(2009a). 위탁부모 양육행동이 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3), 97-110.
- \_\_\_\_\_(2009b). 위탁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281-292.
- \_\_\_\_\_(2010). 가정위탁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위탁유지. *한국가족복지학*, 15(3), 149-161.
- 김빛나, 진미경(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3), 329-344.
- 김수정, 정익중(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정란, 이은희(2007). 중년여성의 불안정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9(2), 297-319.

- 김정우(2006). 일반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의 특성과 역할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H위탁보호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87-11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숙(2006). 일반위탁양육자의 역할 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51-79.
- \_\_\_\_\_(2008). 일반 위탁가정 부모의 역할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35-164.
- 김진숙, 이근무(2005). 위탁아동의 양육계약해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41-74.
- 김진숙, 이혁구(2007).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9(1), 87-116.
- 김희연, 박은미, 이주현(2006). 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정책연구**, 6, 1-227.
- 나은숙, 정익중(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의 관계. **이동학회지**, 28(4), 35-49.
- 노지형, 송현주(2012).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아동의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4(1), 1-15.
- 노총래, 김미영, 박은미, 강현아, 신혜령(2008). 발달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238-264.
- 노총래, 박근혜, 서지원(2009). 위탁아동의 가정위탁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위탁 유형의 개인, 위탁부모 및 서비스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155-185.
- 문선화, 이태수, 변용찬(2000).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와 위탁가정사업 활용방안**: 제 1 주제 ;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2000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4회 학술대회, 1-31.
- 민성혜, 신혜원(2006).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를 통한 내적 표상의 차이. **한국아동복지학**, 22, 31-61.
- 민하영, 김경화(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33-41.
- 박나래, 정익중(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7, 139-164.
- 박은미(1998).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체계 개선방안. **장신논단**, 14, 122-150.
- 박현선(2004).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65, 18-20.
- 배나래, 박충선(2013).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위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3), 333-352.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 도서출판 청람.
- 백혜정, 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변숙영(2013).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직무인식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3), 43-69.
- 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2013). **가정위탁아동 가정보호실태조사**. 서울
- 성내경(1997). **반복측정실험과 분석**. 자유아카데미.
- 손승희, 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신건철, 신민선(2011).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1, 45-66.
- 양심영(2009). 친족위탁가정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6, 193-223.
- 양심영(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31-148.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 유정아, 정익중(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까?.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3.
- 윤혜미, 최은희(2013). **가정위탁아동 가정보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이배근(1994). 가정위탁보호사업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121-142.
- 이상균(2008).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39, 315-342.
- \_\_\_\_\_(2012). 청소년기 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157-185.
- 이송이(1999). 가정위탁보호 양육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2), 43-62.
- 이영미, 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영준(2000). **분산분석의 이해**, 도서출판 석정.
- 이은정(2002). 가정위탁(Foster care)제도에 대한 소고. **가족법연구**, 16(1), 209-234.
- 이은주(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_\_\_\_\_(2011).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18(2), 21-41.
- 이은택, 이은경(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 이정윤, 장미경(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이주리(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동학회지**, 29(3), 115-125.

- 이혜영, 이혜원(2011).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가정위탁보호지속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0, 151-174.
- 장신재, 양혜원(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장윤영(2014).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친부모에 관한 상담원의 개입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5, 229-257.
- 장윤영, 박태영(2006).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425-456.
- 장정인(2006). 위탁아동의 친가정기능강화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사례. **사회복지관 사례연구**, 18, 1-19.
- 장혜림, 정익중(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 전재일, 박영준(2002). 가정위탁보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8(1), 81-103.
-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 41(8), 123-137.
- 정선욱(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70.
- 정익중, 권지성(2012). **가정위탁아동 심리사회적 적응 패널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정혜선, 김진숙(2004). 위탁아동의 가정위탁에 관한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2), 115-134.
- 정혜선, 최운선(2006). 친인척위탁부모의 위탁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57-77.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3). **가정위탁 10주년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
- \_\_\_\_\_ (2014). **2013년 가정위탁보호 현황**.
- 최영(2007a). 대리양육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285-314.
- \_\_\_\_\_ (2007b). 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 위탁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4, 61-90.
- 최은희, 윤혜미(2014). 학대피해경험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가정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위탁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143-170.
- 허남순(1998). 가정위탁양육 관계법의 개정. **한국아동복지학**, 7(1), 157-189.
- \_\_\_\_\_ (2000).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1), 263-287.
- \_\_\_\_\_ (2004). 위탁가정유형에 따른 실태 및 서비스 개입 방향. **동광**, 100, 45-99.
- \_\_\_\_\_ (2008).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의 문제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207-233.
- 허남순, 이혜원(2006).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 22, 95-126.

- 허남순, 장옥주, 강수진(2000).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와 위탁가정사업 활용방안: 제 2 주제 ;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위탁가정사업 활성화방안. 2000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4회 학술대회, 33-63.
- 홍세희(2012). 종단자료 분석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S&M 리서치 그룹.
- 황정규(1998). 변화·성장 모형의 두 가지 접근 : 교육측정 평가의 새 지평. 서울: 교육과학사.
- Agnihotri, K., Awasthi, S., Singh, U., Chandra, H., & Thakur, S. (2010). A study of concordance between adolescent self-report and parent-proxy repor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school-going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6), 525-532.
- Albrecht, A. K., Galambos, N. L., & Jansson, S. M. (2007).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 panel study examining direction of effe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673-684.
- Alloy, L. B., Abramson, L. Y., Tashman, N. A., Berrebbi, D. S., Hogan, M. E., Whitehouse, W. G., Crossfield, A. G., & Morocco, A. (2001).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arenting, cognitive and inferential feedback styles of the parents of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Cognitive Theory and Research*, 25(4), 397-423.
- Altshuler, S. J., & Poertner, J. (2003). Assessing child well-being in non-relative foster care with a new outcome measurement tool.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7(2), 73-85.
- Brody, G. H. (2003). Parental monitoring: Action and reaction. In A.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163-169). Mahwah, NJ: Erlbaum.
- Buehler, C. (2006). Parents and peers in relations to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109-124.
- Chang, P. C., & Yeh, C. H. (2005). Agreement between child self-report and parent proxy-report to evaluate quality of Life in children with cancer. *Psycho-Oncology*, 14(2), 125-134.
- Children's bureau. (2012). *Child welfare outcomes 2008-2011: Report to Congress*. available at <http://www.acf.hhs.gov/programs/cb/resource/cwo-08-11>.
- Children's bureau. (2013). *The AFCARS report*. available at <http://www.acf.hhs.gov/programs/cb>
- Cole, P. M., & Kaslow, N. J. (1988). Interaction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affect regulatio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ildhood depression, In S. B. Allet(Ed), *Cognitive process in depression*. NY: Guilford Press.
- Conner, K. R., Conwell, Y., & Duberstein, P. R. (2001). The validity of proxy-based data in suicide research: a study of patients 50 years of age and older who attempted suicide. II.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uicidal behavio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4(6), 452-457.
-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ockenberg, S., & Leerkes, E. (2003). Infant negative emotionality, caregiving, and family relationships. In A.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57–78). Mahwah, NJ: Erlbaum.
- Curran, P. J. (2000). *A latent cur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Rose, J. S., Chassin, L., Presson, C. C., & Sheraman, S. J. (Eds). *Multivariate applications in substance use research : new methods for new ques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les. 1–42.
- Davis, E., Nicolas, C., Waters, E., Cook, K., Gibbs, L., Gosch, A., & Ravens-Sieberer, U. (2007). Parent-proxy and child self-report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qualitative methods to explain the discordance. *Quality of Life Research*, *16*(5), 863–871.
- Demissie, S., Green, R. C., Mucci, L., Tziavas, S., Martelli, K., Bang, K., ... & Farrer, L. A. (2001). Reliability of information collected by proxy in family studies of Alzheimer's disease. *Neuroepidemiology*, *20*(2), 105–111.
- Dix, T., Ruble, D. N., & Zambarano, R. J. (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6), 1373–1391.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et,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Fletcher, A. C., Steinberg, L., & Williams-Wheeler, M. (200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evising Stattin and Kerr. *Child Development*, *75*(3), 781–796.
- Goodman, S. H., & Brumley, H. E. (1990). Schizophrenic and depressed mothers: Relational deficits in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9.
-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74–587
- Hanington, L., Ramchandani, P., & Stein, A. (2010).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temperament: Assessing child to parent effects in a longitudinal population stud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3*(1), 88–95
- Harden, B. J. (2004). Safety and Stability for Foster Childre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Future of Children*, *14*(1), 30–47.
- Hawkins, D., Amato, P. R., & King, V. (2007). Nonresident father involvement and adolescent well-being: Father effects or child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6), 990–1010.
- Hegar, R. L. (1999). *The cultural root of kinship care*. In R. L. Hegar, & M. Scannapieco (Eds.), *Kinship foster car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pp. 17–2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ule, C. R., Joseph, C. L., Caldwell, C. H., Conrad, F. G., Parker, E. A., & Clark, N. M. (2011). Congruence between urban adolescent and caregiver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the adolescent's asthma. *Journal of Urban Health, 88*(1), 30-40
- Hwang, J., & Lee, B. R. (2013). Response agreement rates between child welfare-involved youth and their caregiv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9*, 218-232.
- Kang, H. (2007). Theoretical perspective for child welfare practice on kinship foster care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88*(4), 575-582.
- Kang, H., Chung, I.-J., Chun, J., Nho, C. R., & Woo, S. (2014). The outcomes of foster care in South Korea ten years after its foundation.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39*, 135-143.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_\_\_\_\_ (2003). Parenting of adolescents: Action or reaction? In A.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121-152). Mahwah, NJ: Erlbaum.
- Klassen, A. F., Miller, A., & Fine, S. (2005).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 of quality of life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2*(4), 397-406.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eathers, S. J. (2003). Parental Visiting, Conflicting Allegiance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Foster Children. *Family Relations, 52*(1), 53-63.
- Leung, D. W., & Slep, A. M. S. (2006). Predicting inept discipline: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524-534.
- Lim, Y., Velozo, C., & Bendixen, R. M. (2014).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child self-reports and parent proxy-report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boys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Quality of Life Research, 23*(7), 1945-1952.
- Lin, C. Y., Luh, W. M., Cheng, C. P., Yang, A. L., Su, C. T., & Ma, H. I. (2013).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child self-reports and parent-proxy reports in the Chinese version of the Pediatric Quality of Life Inventory Version 4.0.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5), 583-590.
- Lollis, S., & Kuczynski, L. (1997). Beyond one hand clapping: Seeing bidirectionality in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4), 441-461.
- Maccoby, E. E. (2003). The gender of child and parent as factors in family dynamics. In A. C.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191-206). Mahwah, NJ, US: Erlbaum.



- Majnemer, A., Shevell, M., Law, M., Poulin, C., & Rosenbaum, P. (2008). Reliability in the ratings of quality of life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of school age with cerebral palsy. *Quality of Life Research, 17*(9), 1163–1171.
- Marques, J. C., Oliveira, J. A., Goulardins, J. B., Nascimento, R. O., Lima, A. M., & Casella, E. B. (2013). Comparison of child self-reports and parent proxy-reports on quality of life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1*(1), 1–15.
- Mason, W. A. (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again): a test of Kapli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1), 83–102.
- McHale, S. M., & Crouter, A. C. (2003). How do children exert an impact on family life? In A. C.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207–220). Mahwah, NJ, US: Erlbaum.
- Mize, J., & Pe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291–311.
- Orpinas, P., & Frankowski, F.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Palmer, S. E. (1996). Placement stability and inclusive practice in foster care: An empiric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7), 589–601.
- Patterson, C.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interactional approach*. Eugene: Castalla Publishing Company.
- Reiss, D. (2003). Child effects on family systems: Behavioral genetic strategies. In A.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3–25). Mahwah, NJ: Erlbaum.
- Reitz, E., Deković, M., Meijer, A. M., & Engels, R. C. M. E. (2006).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6*(3), 272–295.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Scannapieco, M. & Hegar, R. L. (1999). *Kinship foster care in context*. In Hegar Scannapieco (Eds.), *Kinship foster car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pp. 1–1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reeber, L., Hops, H., & Davis, B. (2001). Family processes in adolescent depress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19–35.
- Stack, C. (1974). *All our kin: Strategies for survival in a black community*. New York: Harper and Row.
- Stice, E., & Barrera, M. Jr. (1995).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nd adolescents' substance use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322–334.

- Vanderfaeillie, J., Holen, F. V., Vanschoonlandt, F., Robberechts, M., & Stroobants, T. (2013). Children placed in long-term family foster care: A longitudinal study into the development of problem behavior and associated facto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4), 587-593.
- Vanschoonlandt, F., Vanderfaeillie, J., Holen, F. V., Maeyer, S. D., & Robberechts, M. (2013). Externalizing problems in young foster children: Prevalence rates, predictors and service us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4), 716-724.
- Wulczyn, F., Kogan, J., & Harden, B. J. (2003). Placement stability and movement trajectories. *Social Service Review, 77*(2), 212-236.



---

<b>발행일</b>	2014년 12월
<b>발행인</b>	정 필 현
<b>책임연구원</b>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공동연구원</b>	강현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b>연구보조원</b>	박나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
<b>발행처</b>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b>주 소</b>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19, 2층
<b>연락처</b>	TEL. (02) 796-1406 FAX. (02) 790-7266

---

\*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